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Utiliz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손동필 Son, Dong Pil  
조상규 Cho, Sang Kyu

( a u r i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Utiliz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지은이: 손동필, 조상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5년 10월 26일, 발행: 2015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7,000원, ISBN: 979-11-5659-045-3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손동필 연구위원

Ⅰ 연구진          조상규 연구위원

Ⅰ 외부연구진      (가나다순)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방설아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이정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센터장  
                         임재빈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연구원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실장

Ⅰ 연구보조원      지혜란 연구인턴, 김일현, 이경민, 김영아 조사원

---

Ⅰ 연구심의위원    (주심)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외부, 가나다순)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안주영 DTZ 코리아 상무이사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Ⅰ 자문위원          (가나다순)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형 SD파트너스건축사무소 실장  
                         박지호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송기봉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송재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유승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이정면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병규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조경훈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지우진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부장  
                         최진욱 (주)해안건축 소장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매출규모는 2007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07년의 12.3%에서 2013년의 7.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해외 건축설계용역부분 역시 2010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 또한 비교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축분야의 해외사업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5천 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업계의 해외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대부분 건설, 시공분야이거나 도시 및 단지차원의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은 정보 및 일부 자금 제공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건축분야 공사 수주 실적은 연 5건 내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ODA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ODA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서는 중점 과제로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주택개발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ODA사업에서 건축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나온 기존의 여러 정책 및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일본 및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MDB 및 타분야 ODA사업의 사례를 통해 ODA를 활용한 국내 건축서

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과 ODA는 전혀 별개라고 할 만큼 동떨어진 분야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ODA를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던 만큼 이 연구를 통해 OD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장 ODA 현황과 사업기관

우리나라의 ODA기관은 외교부 산하의 KOICA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 산하의 EDCF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진출하는 과정인 사업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KOICA의 여러 사업 중 우리의 관심분야는 프로젝트 사업인데, 통상 2~5년간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와 기술자문 등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개발컨설팅(DEEP)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KOICA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은 사업발굴협의, 사업요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예비선정, 정부간 합의, 사업내용 확정, 사업시행자 선정 및 집행, 사업평가의 8단계로 되어 있다. KOICA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건축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EDCF는 크게 차관, 출자, 보증, 소액차관, 협조융자, 차관지원비의 6가지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허성 차관지원은 개도국의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ODA차관으로 지원 절차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평가 및 사후관리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양허성차관의 경우 전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단계 역시 예비검토, 현지실사를 통한 사업심사, 지원방침 결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정부 간 협정체결, 차관공여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2단계로 구분된 사후관리단계 등 절차와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다. EDCF의 차관 지원 규모는 다른 선진 공여국과 비교할 때 적으며, 건축분야가 중점 지원분야가 아니므로 건축서비스 업체가 지원 받기에는 힘든 경향이 있다.

MDB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WB, IDB, ADB의 조달기준과 사업 절차를 조사하였다. 각 MDB기관의 조달기준과 사업절차는 큰 틀에서 대체로 유사하였다. MDB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업체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받은 후, 소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비용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IDB와 ADB의 경우 관할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을 위한 사업 기준 규모가 다르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수원국 자체 수주나 역내 수주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역외 국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큰 요인이다.

### 제3장 ODA 정책과 기존연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ODA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문헌 및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시장의 다양화,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금융지원, 민관협력강화, MDB 활용의 7개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시장의 다양화

기존연구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진출에서 기회가 더 많은 중동/북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으로 시장의 다양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ODA사업은 국가의 기본 방침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54%)와 아프리카(20%)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ODA를 해외진출의 교두부로 삼으려한다면 문화적·지리적 근접성과 아시아지역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ODA 정책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역시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아프리카 지역 역시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 민관협력의 강화

ODA 기본 정책은 민관협력의 강화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Post-2015개발의제 논의에서는 공공재원의 개발도상국 빈곤해결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강조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EDCF

의 경우 민간 기업이 직접 차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용자 종류는 민자사업차관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5백만달러 이하)뿐이다.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 단독으로는 ODA사업에 참여할 분야가 없으며,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커서 ODA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기존 연구는 ODA를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MDB 활용

기존 연구는 MDB를 민관협력사업이나 EDCF투자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MDB는 기본적으로 ODA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 네트워크의 부재 등 우리 기업이 MDB에 진출하기에는 기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MDB 사업 진출은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진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MDB와 같은 ODA 수행기관과 수원국 정부 2가지 네트워크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입찰정보 등의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국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기업에 대한 간접 홍보의 역할도 수행한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해당국과의 우호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초청사업의 강화,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지원, 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현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업의 해외진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역시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지의 문화별, 국가별 기초정보, 현지 산업동향, 관련 법령, 표준계약서,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제공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분야이다.

#### □ 전문가 양성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 전문인력, 규모 모든 면에서 선진국 기업과는 경쟁력에서 열세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국제표준과 괴리된 국내 기준 및 법 제도의 유지와 해외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선 과제이다. 이는 해외 시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ODA사업 전문가의 경우 기술적,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OD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 금융 지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녹색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등이 있으나, 건축 및 도시 개발 업계의 이용은 저조하다. 건축과 도시개발 업계는 타 분야보다 높은 위험도로 인해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지원 역시 받기 힘들다. 금융 지원은 사업의 초기단계인 시장조사 및 사업 발굴 단계부터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초기, 시공, 운영의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가 다수인 건축서비스 기업에 대한 특화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강화한 후, 보증발급 시스템을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 위주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7가지 방안 중 시장의 다양화, MDB 활용, 민관협력 강화는 해외진출을 위해 달성해야하는 목적이다. 반면에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전문가 양성, 금융지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7가지 방안 중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MDB의 활용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의 다양화는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으나, 국가의 ODA지원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관협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금융시장의 적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타분야 ODA 현황과 전략

우리나라의 타분야 ODA사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을 교통,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KOICA 교통분야 사업의 경우 수원국에 교통부문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DEEP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국제협력의 한계로 구체적인 협력관계 설정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교환,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설정, 연속성이 결여된 일회성 연수사업, 수원국의 다양한 지식 공유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국내 경험 사례의 정리 미흡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민간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국제협력의 전략으로 정보제공, 역량강화, 신규 사업 발굴, 해외사업 추진 지원의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 하였다.

농림수산분야의 ODA는 인프라 구축과 농어촌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강조,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 역량강화와 기술전수, 1~3년의 단기사업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비록 해외진출을 추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지만,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집중 지원, 농업 분야의 특수성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현지 사정에 적합한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분야의 ODA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건축서비스 산업 분야의 정책 제안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타분야 역시 연수생 초대 등을 통한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MDB와 파트너십 확대와 MDB사업 진출, 정보제공, 역량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타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 보건의료 분야 등 건축이 타분야 ODA에 기여할 부문이 상당히 크다. 교육의 학교 건축이나 보건의료분야의 병원 건축 등은 건축업계가 적극적으로 ODA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제안된 정책의 측면에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 강화와 DB 구축 등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과 DEEP 사업과 같은 컨설팅 사업을 통한 후속사업 발굴과 연계, 농림수산분야의 새마을운동 ODA와 같은 한국형 ODA 모델의 개발과 같이 사업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 KOICA 새마을운동 사업 사례

사업명 :	ESCAP (지역빈곤완화 사업) 스리랑카,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농촌 개발시범사업 2차
시행기관 :	KOICA
사업규모 :	125만달러
사업기간 :	2006-2008
사업대상 :	라오스 팍남 군, 캄보디아 캄퐁참 주,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 및 반탄 주, 스리랑카 케골 및 라트나푸라 주
추진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li> <li>• 농촌의 빈곤 해소 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간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가능한 농촌개발 모델 모색</li> <li>• 지역빈곤완화 사업 1단계에서 가능성 확인 후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수립</li> </ul>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 개념 및 수행방법 소개 및 마을 지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 연수</li> <li>• 사업대상지 교환방문 교육</li> <li>• 도로 정비 및 마을안길 개선, 우물 및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li> <li>• 학교 확장 및 개보수</li> <li>• 마을환경 정화 및 마을회관 건립</li> <li>• 관광인프라 구축</li> <li>• 가이드라인 및 교재 개발, 웹사이트 개발 및 영상, 음성 교재 출간</li> <li>• 지역 워크샵 개최</li> </ul>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교육 내용 전파</li> <li>•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농촌 개발</li> <li>• 사업 실시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농촌개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 도출</li> </ul>

## 제5장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의 ODA사업 사례를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컨설팅 사업을 통해 후속사업을 개발한 사례, 주요 MDB 기관들의 사업 사례,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건축분야가 지속적으로 ODA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건축분야 사업의 경우 타분야 ODA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타분야 사업에서 건축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특히 다수의 건축 사업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분이다. 순수한 기술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건축물 건설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분야의 ODA사업은 장기적으로 MDB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ODA사업 참여 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역할로 중요하였다.

#### KOICA 한-베 기술대학 건립 사업 사례

사업명 :	한-베 기술대학 건립 사업
시행기관 :	KOICA
사업규모 :	899만달러
사업기간 :	2011-2013
사업대상 :	베트남 박장성
추진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의 필요</li> <li>•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및 사회발전</li> </ul>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대학 건축</li> <li>• 전문가 파견</li> <li>• 교재 개발</li> <li>• 기자재 지원</li> <li>• 초청연수</li> </ul>
건축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현장 : Thai Dao commune, Lang Giang District, Bac Giang</li> </ul>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예산 : 4.10백만달러(계약 금액 3.84백만달러)</li> <li>• 입찰방법 : 설계도서 산출에 의한 총액입찰방식(Fixed Lump-sum Price)</li> <li>• 공사기간 : 2012.04.03. ~ 2013.10.31. (18개월)</li> <li>• 건축개요 : 대지면적 10ha, 연면적 약 9,190m<sup>2</sup></li> <li>• 시공업체 : 신동아종합건설(주)</li> <li>• 사업종료 후 일정 : 준공 후 하자발생시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팀 상주</li> <li>• 사업분담 : 베트남측은 토목/조경 공사 등 인프라 설비를 시공</li> </ul>

컨설팅 사업과 이를 통한 후속사업의 개발 사례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어떻게 후속 사업을 형성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을 우리나라가 수립할 경우, 마스터플랜 이후 단계인 세부 인프라 사업이 시공 단계에 진입할 때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인문,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조사와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현지 네트워크 역시 다양하게 구축할 수가 있었다.

MDB사업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 현지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MDB기구의 정책상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관별, 사업의 대상 국가별로 기준이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각 기관별, 국가별 기준에 대한 자료 조사와 DB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컨설팅 사업의 부문별, 금액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과 건설공사의 종류별,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해외 업체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 및 분야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사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 사업명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The Modification of Hue City's Master Plan)
- 사업기간 : 2011.08~2013.12 (28개월)
- 대상지 : 베트남 투아티엔후에성 후에시(Hue City, Thua Thien Hue Province)
- 발주처 : KOICA
- 수행기관 : (주)한아도시연구소, (주)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 사업목적 : 1999년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평가 및 후에시 확장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내용 :
  -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 현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 연수초청, 기자재 지원 등



[그림 1] 베트남 후에시 위치도

더불어 건설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가급적 사전 기획 단계에 국제입찰이 가능한 사업규모로 발주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는 비록 직접적으로 ODA사업으로 건설된 경우는 아니지만, KOICA의 활동(현지연수)과 이를 통한 사업의 기획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우리의 전문인력을 기술협력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파견할 필요성과 필요인력의 양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제6장 ODA 활용전략과 개선방안

ODA의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은 국내 ODA사업 → MDB 사업 → 타국가 비구속성 사업 → 국제기구 금융투자사업 → 해외진출 대상국 재정사업 또는 민간발주 사업의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금융투자 사업까지가 진출의 최대 목표이며, MDB 사업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ODA를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체가 다수인 건축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ODA와 해외진출 관련 연구와 ODA관련 등을 바탕으로 단기 전략에 역량강화, 중기 전략에 ODA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 장기 전략에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설정하였다.

단기 전략인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ODA사업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수원국 현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기 전략인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거 수원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새마을 사업과 같은 모델이 적합한데, 새마을 사업의 주택개량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사업모델을 지원을 위해 적절한 금융지원과 ODA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세금 혜택, MDB와 국제기구 등 ODA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수원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역시 강화, 건축전문관 증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현지 환경에 적합한 시공 방법 등의 연구와 개발을 통한 현지화를 추진해야한다.

MDB와 국제기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자원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에는 경험과 사업 수주를 위해 요구되는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진출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야한다. 또한 결합개발 모델 개발을 통해 수원국에 종합적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여러 방안 중 정보수집과 관리·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자료

의 제공은 다수의 건축서비스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분산된 자료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및 관리하여 기업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종합적인 관리와 분석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MDB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MDB 사업의 기술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 핵심 참여자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제안서에는 현지 여건에 적절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평가 항목 역시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한다.

해외정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는 정보자료를 총괄하여 관리와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자료 수집체계를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의 목록과 수집 방법 등을 연구, 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별, 국가별 분석 및 제공이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기존 공공조직을 활용하고, 지원센터는 분석과 관리, 제공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인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ODA사업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동시에 가진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CM전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Developer와 코디네이터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마이스터고, 대학, 대학원, 전문가 과정의 4개 체계로 구성하여, 마이스터고와 대학, 대학원은 정규과정을 통한 인력을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가 과정은 현업 종사자나 일반인을 위해 KOICA와 해외건설협회의 기존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건축서비스산업 ODA 전문가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은 건축서비스산업과 ODA관련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ODA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전문지식을 동시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주제어 :**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ODA, MDB, 해외정보 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 차 례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구성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b>제2장 ODA 현황과 사업기관</b>	<b>17</b>
1. ODA 개요	17
2. ODA 지원 현황	22
3. ODA 기관의 주요 업무와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절차	26
4. 일본의 ODA 사업기관	44
5. MDB 조달기준과 절차	48
<b>제3장 ODA 정책과 기존 연구</b>	<b>65</b>
1. 건축 및 도시 ODA 정책과 기존 연구 방향	65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75
3. 정책 평가와 시사점	83

**제4장 타분야 ODA 현황과 전략 ..... 93**

1. 타분야 ODA 개요 .....	93
2. 교통물류 .....	94
3. 교육 .....	98
4. 농림수산 .....	101
5. 보건의료 .....	104
6. 시사점 .....	108

**제5장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 111**

1. 사례분석 개요 .....	111
2.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	112
3. 건축 및 도시분야 ODA 컨설팅 사업과 후속 사업 개발 사례 .....	118
4. MDB 건축 사업 사례 .....	123
5.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 .....	134
6. 시사점 .....	138

**제6장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 활용전략과 개선방안 ..... 145**

1. ODA활용 전략 .....	145
2. 단기 방안 .....	151
3. 중기 방안 .....	161
4. 장기 방안 .....	171
5. 제도 개선방안 .....	173

**참고문헌 ..... 185**

## 표차례

[표 1-1] 건설 및 건축 관련 서비스업 매출규모 .....	2
[표 1-2] 해외 설계용역 수주 건수 및 계약금액 .....	2
[표 1-3] 국가별 시장점유율 .....	3
[표 1-4] 기업 당 수주능력(해외건설) .....	4
[표 1-5] 기업 당 수주능력(건축분야) .....	4
[표 1-6] ODA재원 해외건설 수주 실적 동향 .....	6
[표 1-7]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12
[표 2-1] 개발재원의 형태 .....	17
[표 2-2] SDGs의 주제별 분류 .....	21
[표 2-3] 연도별 총 ODA 지원현황 (순지출, 달러기준) .....	22
[표 2-4] 양자원조 분야별 지원현황 (순지출) .....	23
[표 2-5] 양자원조 지역별 지원현황(순지출) .....	24
[표 2-6] 양자원조 형태별 지원현황(순지출) .....	25
[표 2-7] 다자원조 기구별 지원현황(순지출) .....	25
[표 2-8] KOICA 지역본부 .....	26
[표 2-9] KOICA 사업 분야 .....	27
[표 2-10] KOICA 사업 종류 .....	28
[표 2-11] KOICA 건축 사업의 절차 .....	32
[표 2-12] KOICA 사업 입찰참가 자격 예시 .....	34
[표 2-13] KOICA 사업 기술평가 예시 .....	35
[표 2-14] EDCF 차관 및 출자의 종류 .....	37
[표 2-15] EDCF 보증제도 .....	38
[표 2-16] EDCF 소액차관제도 .....	38

[표 2-17] EDCF 혼합신용 종류 .....	39
[표 2-18] EDCF의 MDB 협조용자 종류 .....	39
[표 2-19] EDCF 차관지원비 제도 .....	40
[표 2-20] EDCF 지원절차 .....	41
[표 2-21] EDCF 사업 입찰 참가기준 예시 .....	42
[표 2-22] EDCF 사업 기술능력평가 항목 .....	43
[표 2-23] JICA 무상원조 사업 절차 .....	45
[표 2-24] JICA 유상원조 차관의 종류 .....	47
[표 2-25]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및 출연현황(2007~2011) .....	49
[표 2-26]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 원칙 .....	50
[표 2-27] 컨설턴트 선정방식 및 적용 대상 .....	51
[표 2-28] 컨설턴트 참여 제한 규정 .....	52
[표 2-29] QCBS 절차 .....	52
[표 2-30] 컨설턴트 선정 기준 .....	53
[표 2-31]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원칙 .....	53
[표 2-32] 물품 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 선정방식 및 적용 대상 .....	54
[표 2-33] 물품 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의 입찰서류 목록 .....	55
[표 2-34] IDB 발주 공사 및 컨설팅 국제경쟁 입찰 기준 금액 .....	56
[표 2-35] 도시개발 부문 컨설팅 용역 수주 컨설턴트의 국적별 현황 .....	57
[표 2-36] ADB 개발도상국 회원 구분 .....	59
[표 2-37] ABD의 국가별 건설공사 국제경쟁 입찰 기준 금액 .....	60
[표 2-38] QBS 컨설턴트 선정 절차 .....	60
[표 2-39] QBCS 컨설턴트 선정 절차 .....	61
[표 2-40] 인력 중심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	61
[표 2-41]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	62
[표 2-42] 약식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	62
[표 2-43] ADB 사업 참가자 자격 요건 사례 .....	63
[표 3-1] 건축·도시설계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방안 .....	68
[표 3-2] 해외도시개발사업의 규모(전 세계 기준) .....	76

[표 3-3] 아시아 주요 협력국의 민관협력사업 확대 계획 .....	77
[표 3-4] SGDs 도시부문 목표 .....	84
[표 3-5] 지역별 총 ODA 투자금액(전 세계, 지출기준) .....	85
[표 4-1] KOICA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사업 .....	94
[표 4-2] KOICA 교통분야 사례 .....	97
[표 4-3]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사업규모(2015년 기준) .....	98
[표 4-4] KOICA 교육분야 사례 .....	100
[표 4-5] KOICA 농림수산분야 국가별 협력 프로그램 사업규모(2014년 기준) .....	101
[표 4-6] KOICA 새마을운동사업 사례 .....	102
[표 4-7] 보건의료분야 세부목표 및 사업규모(2015년 기준) .....	104
[표 4-8] KOICA 보건의료분야 사례 .....	107
[표 4-9] 분야별 ODA 정책 제안 비교 .....	108
[표 5-1] DR 콩고 박물관 건립사업 주요 내용 .....	113
[표 5-2] 건축 및 전시 사업비 세부 내역 .....	114
[표 5-3] 건축물 개요 .....	116
[표 5-4] 제안서 평가 기준 .....	117
[표 5-5] 계약 조건 및 기성 .....	117
[표 5-6]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개요 .....	119
[표 5-7] 후에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	120
[표 5-8]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 개요 .....	121
[표 5-9] 향강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	122
[표 5-10] 베트남 중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개요 .....	123
[표 5-11] 주요 건설사업 및 컨설팅 조달방식 및 국제조달 입찰결과 .....	124
[표 5-12] 기타 사업 예산 및 입찰 방식 (Phu Ly시 사업의 경우) .....	125
[표 5-13] 베트남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개요 .....	126
[표 5-14] 주요 건설사업 및 컨설팅 조달방식 및 국제조달 입찰결과 .....	127
[표 5-15] 주요 컨설팅 사업 조달계획 .....	128
[표 5-16] 주요 사업 조달계획 .....	129
[표 5-17] 메콩강 권역 타운 개발 프로젝트 개요 .....	130

[표 5-18] 주요 사업 조달계획 .....	131
[표 5-19]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지역개발계획 개요 .....	132
[표 5-20] 방글라데시 다카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	133
[표 5-21]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 .....	134
[표 5-22] 기존 방식과 LH 제안 방식의 비교 .....	135
[표 5-23] 생활권 설정 기준 .....	137
[표 5-24] 국제개발 협력 사례 조사의 시사점 요약 .....	138
[표 6-1]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의 포함 내용 .....	146
[표 6-2] 건설기술교육원의 CM교육과정 .....	156
[표 6-3] 해외건설 인력 양성 사업(2014년도) .....	157
[표 6-4]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사례 .....	158
[표 6-5] 새마을운동 ODA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세부 개발 전략 .....	162
[표 6-6] KOICA 새마을 운동 ODA의 건축분야에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원칙 .....	162
[표 6-7] 복합금융 사례 .....	164
[표 6-8] KOICA의 건축전문관 업무와 담당지역 .....	167
[표 6-9] KOICA 건축전문관의 지역별 업무량 .....	168
[표 6-10] 해외진출 관련 국내 주요기관 제공정보 .....	174
[표 6-11]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175
[표 6-12]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177
[표 6-13]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중장기단계) .....	178
[표 6-14]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인원(안) .....	179
[표 6-15] 개선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지원 정보자료 .....	180
[표 6-16]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대학 및 대학원 .....	182
[표 6-17]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안) .....	183
[표 6-18]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전문가 과정(예시) .....	184

## 그림차례

[그림 1-1] 우리나라 ODA 재원의 증가 추이 .....	7
[그림 1-2] 일본의 J-CODE(해외 에코시티협의회) .....	7
[그림 1-3] 연구 흐름도 .....	11
[그림 2-1]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	18
[그림 2-2]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일정 .....	20
[그림 2-3] KOICA 사업 추진절차 .....	29
[그림 3-1] 방법적 정책과 목적적 정책의 상관관계 .....	75
[그림 3-2] 기존 연구 제안을 통해 살펴본 ODA활용 방안 .....	91
[그림 4-1] 교통물류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목표와 전략 .....	95
[그림 4-2]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	99
[그림 4-3] 시장조사와 자가진단 항목 예시 .....	106
[그림 5-1] 베트남 후에시 위치도 .....	118
[그림 5-2] 후에시 향강 전경 .....	120
[그림 5-3] 신도시 대상지 위치 현황 .....	136
[그림 5-4] 도시공간 구조 계획 .....	137
[그림 6-1] ODA활용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방안 .....	147
[그림 6-2] 해외정보 지원센터 예상 조직도(초기) .....	176
[그림 6-3]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구성(중장기 안) .....	178
[그림 6-4] 대안 2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활용한 정보센터의 구성 .....	18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구성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 건축서비스산업의 침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갈수록 침체되어, 공공분야를 제외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로서, 다음 각 항의 활동을 말함

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로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다.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설계, 감리, 자문, 지도,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기획 및 설계에 한함)등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sup>1)</sup>

2013년 기준 국내 건설 산업의 매출규모는 216.9조 원이며,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의 매출규모는 19.7조 원으로 건설 산업의 9.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순수 건축서비스의 매출규모는 5.0조 원으로 전체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의 25.2% 이다.

1) 출처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16~17.

[표 1-1] 건설 및 건축 관련 서비스업 매출규모

(단위 : 십억 원)

연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 관련서비스업	건축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률
2007	12,235	4,226	34.5%	3,706	12.3%
2008	16,539	4,988	30.2%	4,342	13.0%
2009	18,159	4,592	25.3%	4,265	7.1%
2011	19,247	4,922	25.6%	4,631	5.9%
2012	19,796	5,071	25.6%	4,743	6.5%
2013	19,687	4,956	25.2%	4,609	7.0%

\* 출처: 통계청(2015), “도소매서비스업”,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2015.9.3.)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만 대상으로 함

건축 관련 분야의 매출규모는 2007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건축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07년의 12.3%에서 2013년의 7.0%로 점점 감소하여 영업수지는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외 설계용역부분 역시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표 1-2] 해외 설계용역 수주 건수 및 계약금액

(단위: 건, 억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주건수	102	78	73	77	78
계약금액	10.2	2.2	1.8	2.7	3.0

\* 출처: 해외건설협회(2015), “건설통계”,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sta/sta\\_1502.php?area\\_code=&f\\_date=1965/01/01&t\\_date=2015/05/10](http://www.icak.or.kr/sta/sta_1502.php?area_code=&f_date=1965/01/01&t_date=2015/05/10). (2015.9.3.)

##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

국제 시장에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NR(2015)<sup>2)</sup>자료의 상위 225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합계 상위 12개 국가의 국가별 매출액, 건축분야 매출액, 사업부문별 매출의 3 분야에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 (2015.8.28.)

해외시장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4년 수익기준으로 상위 12개 국가가 전체 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10.2%), 캐나다(10.0%) 순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로 11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225대 기업에 속한 기업의 수는 12개로 비교 대상국 중 3번째로 많았다.

[표 1-3] 국가별 시장점유율

순위	국가	225대 기업 수	2014년 매출액 (백만 달러)	
				비중
1	미국	80	22,447.2	31.7
2	네덜란드	4	7,201.0	10.2
3	캐나다	6	7,105.3	10.0
4	호주	7	6,655.7	9.4
5	영국	6	6,400.4	9.0
6	중국	24	3,189.5	4.5
7	프랑스	9	2,695.2	3.8
8	이집트	5	2,612.6	3.7
9	스페인	9	2,200.3	3.1
10	덴마크	2	1,548.8	2.2
11	<b>한국</b>	<b>12</b>	<b>1,364.5</b>	<b>1.9</b>
12	스웨덴	2	1,040.4	1.5
합계		166	64,460.9	91.0
225대 기업 전체		225	70,853.3	100.0

\* 출처: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 (2015.8.28.) 재정리

각 국가의 개별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을 통해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기업이 기업 당 18억 달러의 수입으로 1위였으며,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11억 8천만 달러, 10억 6천만 달러로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 당 1억 1천만 달러로 중국보다도 낮았으며,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설계 수주 능력은 비교 대상국의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표 1-4] 기업 당 수주능력(해외건설)

순위	국가	기업당 평균 해외매출(백만 달러)
1	네덜란드	1,800.3
2	캐나다	1,184.2
3	영국	1,066.7
4	오스트레일리아	950.8
5	덴마크	774.4
6	이집트	522.5
7	스웨덴	520.2
8	프랑스	299.5
9	미국	280.6
10	스페인	244.5
11	중국	132.9
12	한국	113.7

\* 출처: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 (2015.8.28.) 재정리

범위를 전체 해외건설이 아닌 건축분야(General buildings)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해외건설에서 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와 이집트, 캐나다가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해외건설 사업이 플랜트나 토목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기업 당 수주능력(건축분야)

순위	국가	건축분야 해외매출(백만 달러)	전체 매출대비 건축분야 매출 비율(%)
1	미국	3,457.4	29.3
2	네덜란드	1,499.3	12.7
3	이집트	1,359.7	11.5
4	캐나다	1,354.6	11.5
5	영국	994.3	8.4
6	덴마크	515.5	4.4
7	중국	467.8	4.0
8	호주	451.3	3.8
9	스웨덴	132.0	1.1
10	프랑스	84.2	0.7
11	스페인	75.6	0.6
12	한국	51.0	0.4

\* 출처: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 (2015.8.28.) 재정리

#### 4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이상과 같이 3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해외건설 분야 경쟁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 또한 비교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즉 기업 당 이익이 별로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분야의 해외사업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5천 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업계가 해외에서 경쟁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 정부의 건축 분야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의 부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건설업, 특히 건축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대부분 건설, 시공분야이거나 도시 및 단지차원의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해외 현장 관리능력의 미흡과 국내업체 간 과도한 수주경쟁 등으로 인해 2013년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정부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체의 수주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까지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은 정보 및 일부 자금 제공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의 경우 해외사업 정보제공에 국한하고 있고 건축 산업은 규모가 작아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해외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국 건축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건축 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계획 없이 개별 프로젝트의 설계발주에 그치고 있다.

## □ ODA 관련 연구의 필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정책 및 지역을 선택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ODA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보면, 연평균 약 50건 내외, 2~5억 달러 내외의 공사가 수주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는 연 5건 내외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표 1-6] ODA재원 해외건설 수주 실적 동향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44	563,778	27	387,282	55	210,823	71	674,627	49	305,3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건축	4	65,282	7	66,105	1	2,411	5	16,852	3	16,312
	9.1%	11.6%	25.9%	17.1%	1.8%	1.1%	7.0%	2.5%	6.1%	5.3%

\* 출처: 김민형((2013), 「ODA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15.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대비 0.13%인 ODA재원 비율을 OECD-DAC회원국 평균인 0.31%(2011년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020년까지 ODA재원을 GNI 대비 0.20%<sup>3)</sup>까지 확대하기로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여<sup>4)</sup>, 지난 5년간(2010~2014년) 1.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sup>5)</sup>되었으며,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국제사회의 ODA 목표였던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표인 SDGs에서는 중점 과제로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주택개발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ODA사업에서 건축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2014년 GNI 기준으로 약 3조원 추정

4) ODA Korea(2015), “한국 ODA의 이모저모: 지원실적”,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2015.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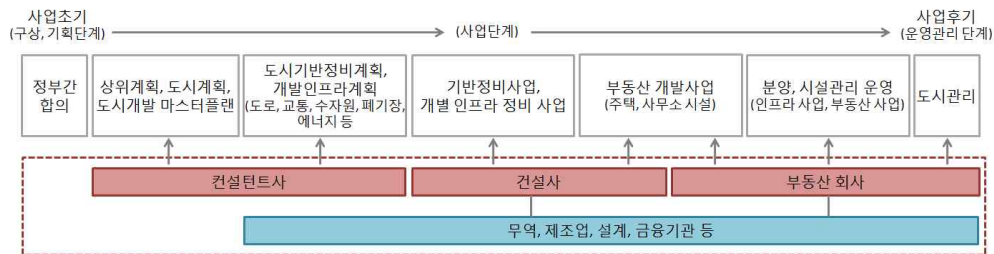
5) 국무조정실(2015),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2015년11월19일자.



[그림 1-1] 우리나라 ODA 재원의 증가 추이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국무조정실(2015), “2014 ODA 실적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년 4월 8일자.

#### <J-CODE 사업방식>



#### <타국 사례>



[그림 1-2] 일본의 J-CODE(해외 에코시티협의회)

\* 출처: 서수정 외(2014), 「정책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6.

우리나라는 ODA사업을 원조기관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정보 및 금융 분야의 참여와 건설 프로세스상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패키지식 개발형태는 금융, developer,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부분의 참여와 상호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로 일본은 증가하

는 신흥개발국의 환경공생형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및 기획 단계부터 관리운영의 전 단계를 민관일체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교통성, 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등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종합하면, ODA는 원조국가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윤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ODA를 통해서 원조사업과 자국 기업의 실질적인 이득을 동시에 얻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ODA에서 건축서비스분야의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여러 정책 및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와 국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ODA를 활용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이 ODA의 전반적인 추세와 거리가 있었고, OD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던 만큼 이 연구를 통해 ODA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및 기존 연구의 재검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및 기타 기관들의 해외진출 정책 및 기존 문헌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재검토한다. 특히 해외진출과 관련한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년 정도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분야(환경, 농업, 의료 등)의 ODA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 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양자원조(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및 외교부/KOCIA등의 무상원조)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을 검토하고, 다자원조 중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의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야 하는 준비내용을 검토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 2. 연구의 주요내용

### □ 기존 정부정책 및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

기존 정부정책 및 기존 연구의 주요 정책제안을 재정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 방향성을 재검토한다.

기존 정책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가능하면 정책의 효과까지 정리하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까지 구체화한다.

### □ 타분야 ODA활용방안 정리 및 시사점 도출

ODA는 기본적으로 수여국의 총체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설,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농업,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타분야의 ODA관련 정책들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정책모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 국내외 ODA 동향 분석 및 ODA 중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양자원조부분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기존 양자원조뿐만 아니라 다자원조 중 MDB 부분에 집중하여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UN, HABITAT등의 국제기구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 다양한 MDB에서 자본금을 증액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ODA 중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 ODA를 활용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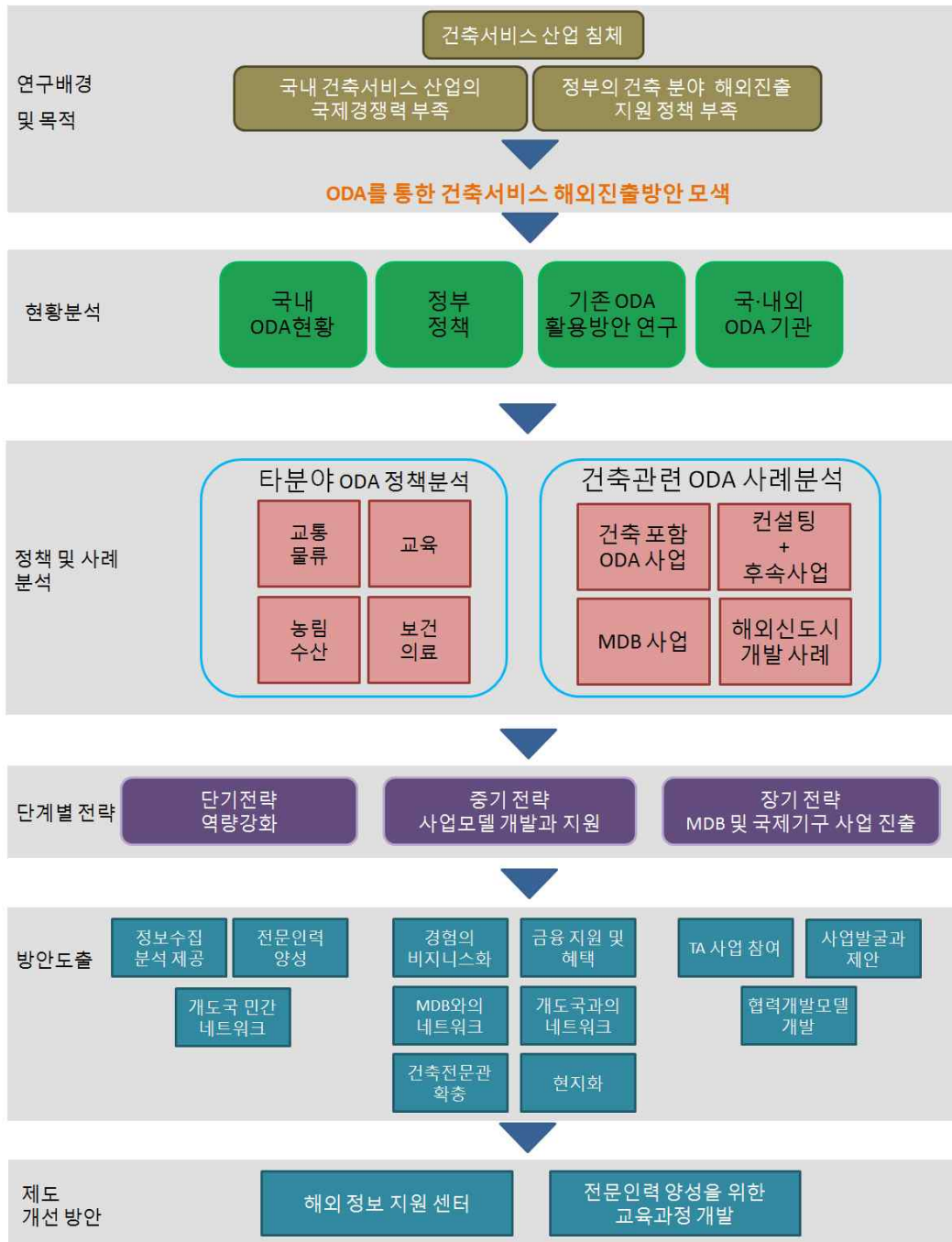
ODA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정책 및 연구결과를 재검토한 후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해외진출 로드맵을 정립한다. 또한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구성

#### 1) 연구방법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부정책 및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 국내 ODA현황 및 정책 조사
  - 국내외 ODA 사업기관 및 프로젝트 사업 절차 조사
  -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ODA활용 방안 제안 조사
- 외부전문가 원고의뢰 및 자문회의
  - ODA 종사자 및 MDB 관련 연구 전문가 원고 의뢰
  - ODA 관련 연구 전문가와 건축서비스 업계 관계자와의 자문회의
- 건축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관련 사례 조사
  - 국내 타분야 ODA사업 사례 조사
  - 국내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ODA사업 사례 조사
  - MDB 사업 사례 조사
  - 국내외 MDB 근무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면담

## 2) 연구 흐름도



[그림 1-3] 연구 흐름도

\* 출처 : 직접 작성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표 1-7]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3)	-문헌조사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설문 및 면담조사 -국내외 해외시장 진출 사례조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제도, 사례 등을 고찰하여 해외진출과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2	-과제명: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연구자(년도): 김민형 (2013)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 검토 -해외건설협회 등 내부자료를 통한 통계 분석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 원조 도입 및 운용사례 연구	-ODA의 추진방향 및 언타이드화 계획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르는 대응방안 강구
	3	-과제명: ODA를 통한 개도상국 도시개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연구자(년도): 박소연, 박인권(2014)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 검토 -다당시 GG-CDS (Green GrowthCity Development Strategy) 사례분석 -해당주체 인터뷰(베트남 중앙정부, 다당사회경제개발연구원, GGCI, UN-Habitat, 중소기업협회, 현지전문가 자문 등)	-ODA를 통한 개도국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정책목표를 규명하고 정책주체 간의 협력과 갈등의 대상 탐색
	4	-과제명: 한국형 해외 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연구자(년도): 정창무 외(2013)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인터뷰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모델 및 시행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제시
	5	-과제명: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연구자(년도): 차주영 외(2013)	-국내외 관련 법 및 사례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제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선행 연구	6 -과제명: 개발을 위한 민 간 참여와 ODA 역할 -연구자(년도): 박예지(2012)	-OECD문헌 조사	-공적개발을위한 민간투 자를 유도하기 위한 ODA 의 역할 조명
	7 -과제명: 민관협력시스 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Ⅱ):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 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조진철 외 (2010)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해외도시개발 DB구축 을 통한 우리 해외도시 개발 현황파악 및 수원 국 발주 현황 파악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인터뷰 조사 -국가별 ODA현황 및 지 역개발은행에 관한 해외 사례조사 -전문가 그룹의 연대창 출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포럼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 대한 원고 의 뢰와 컨트리리포트 발간 -연구원 내 해외관련 연 구과제와 연구진 교류, 연구심의회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 협력	-ODA활용을 통한 해외 도시개발의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시장 진출 방 안 연구 및 조사
	8 -과제명: 해외 주요 진 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 도 조사 연구 -연구자(년도): 성장환 외 (2012)	-선행연구 및 발간물 검토 -유관기관을 통한 상세 자료 수집 -해외도시개발 관련 기 업 활용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의견 조사	-해외 도시개발사업 대 상 국가에 대한 진출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유망한 국가 에 대해 도시개발(신도 시, 주택단지 등) 관련 법제도 조사 및 분석
	9 -과제명: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연구자(년도): 정창무 외 (2010)	-외국의 해외도시건설 지 원 정책 및 제도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도시개발 사례 현 장조사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확립 및 특징을 파악하 고 도시수출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제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선행연구	10	-과제명: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연구자(년도): 정창구 외 (2010)	-MDB의 조직 및 가이드라인 문헌 조사 -현지 MDB기관 방문조사	-해외 인프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MDB의 투자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업체의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이고 MDB 발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 제시
본연구		-과제명: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사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문헌조사를 통한 기존 건설산업 해외 진출방안 정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한 방향성 재정립 -건축서비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사례조사 및 인터뷰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 및 ODA(양자원조, 다자원조)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1)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및 기존 연구의 재검토 및 방향성 재정립 (2) 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 □ 선행연구 현황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은 역사가 오래된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 건축분야의 해외진출은 대략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고, 관련 정책 및 연구도 대략 그 전후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해외 도시개발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요 연구방향도 패키지형 도시개발에 치중해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 제도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패키지형 도시개발 혹은 건설·시공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며, 비록 각 연구별로 부문별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의 경우 바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현실점에서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방안으로 ODA를 활용한다는데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ODA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

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0여 년간 제시된 온 정책 및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방향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의 시발점으로 ODA를 활용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또한 다른 분야의 ODA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제기구, MDB로의 진출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장 ODA 현황과 사업기관

1. ODA 개요
2. ODA 지원 현황
3. ODA 기관의 주요 업무와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절차
4. 일본의 ODA 사업기관
5. MDB 조달기준과 절차

### 1. ODA 개요

#### 1) ODA 개요<sup>6)</sup>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개발 및 선진국과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을 말한다. ODA는 국제개발협력의 한 분야이며 공여국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국제기구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표 2-1] 개발재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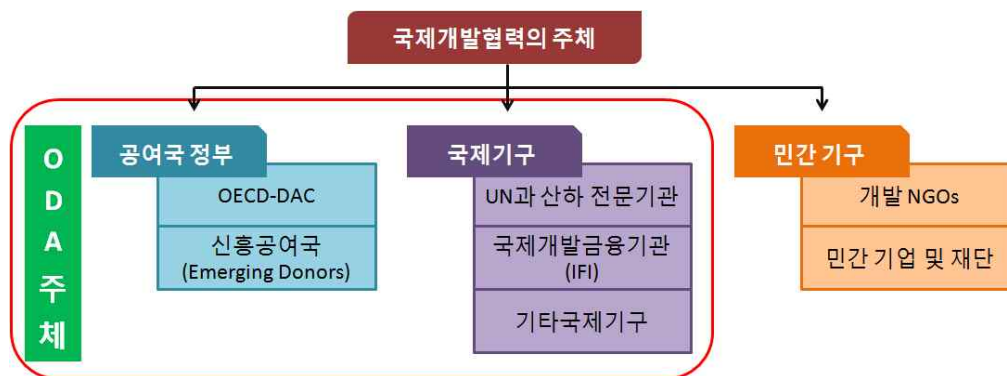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Net Grants by NGOs)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 출처 : ODA Korea(2015),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5.2.9.)

6) ODA Korea(2015),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5.2.9.)

ODA는 원조의 조달경로에 따라 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양자 간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개발기구(WB, UNDP<sup>7)</sup> 등)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들 기구가 수원국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는 다자간 원조로 구분된다. 또한 상환조건에 따라 무상원조는 양자원조 중 수원국이 공여국에서 받은 원조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원조이며, 유상원조는 상환의 의무가 있는 원조이다.

ODA의 주체는 원조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이다. 원조공여국의 대표 협의체로 24개 회원으로 구성된 OECD-DAC가 있으며, 개발협력의 장기목표 설정, 회원국 간의 의견 조율 및 상호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흥공여국에 의한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 출처 : 직접 작성

국제기구의 경우 UN과 산하 전문기관, 국제개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IFI)이 있다. 유엔과 산하 전문기관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바탕으로, IFI는 회원국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WB,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이 대표적인 개발금융기관이다.

## 2) 국제사회의 ODA 목표

국제사회가 설정한 ODA 목표는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ODA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의 사업 계획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설정한 ODA 목표는 향후 ODA사업의 주요 정책이 건축서비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기존과 새로운 목표를 각각 살펴보고

7)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건축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MDGs는 2000년 9월 UN 제55차 정기총회에서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으로, 빈곤퇴치와 아동 및 모자 보건 향상, 교육, 여성인권 향상, 환경보전,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8가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sup>8)</sup>.

##### MDGs 8대 목표

-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 유아 사망률 감소: 5세 이하 사망률을 2/3로 줄인다
- 산모건강의 증진: 산모 사망률을 3/4로 줄인다
-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
-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
-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ODA사업의 주요 원조 분야의 설정과 목표에 큰 영향을 준 MDGs는 국제 공조를 통해 성별 격차와 빈곤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ODA의 패러다임을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DGs는 UN내부의 소수 전문가와 국간 간 합의로 수립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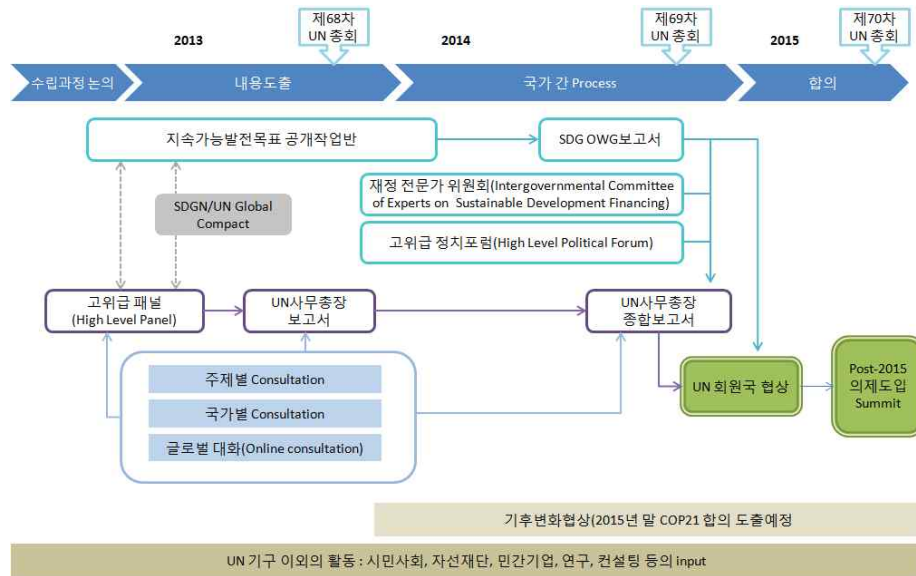
#### □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Post-2015와 SDGs는 MDGs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목표로 향후 우리나라 ODA정책의 핵심 기조가 될 것이며, 주요 투자 분야와 전략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노력은 UN 주도의 Post-MDGs 설정활동과 Rio 정상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Rio+20의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한 SDGs의 두 축에서 발전해왔으며,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와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8) UN(2015), "News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http://www.un.org/millenniumgoals/>, (2015.4.11.)

9)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p.4.



[그림 2-2]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일정

\* 출처: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p.2.

UN사무총장이 발표한 종합보고서를 분석하면 Post-2015 개발의제는 다음의 6가지 필수요소를 강조하고 있다<sup>10)</sup>.

UN Post-2015 개발의제의 필수요소

- 보편성(universality)에 기반
- 인간중심적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의제
- MDGs의 연장선상에서 MDGs가 포함하지 못한 지속가능한 개발 격차를 보완
- 포용, 평화, 평등
- 지속가능하고 환경 보호적이며 포용적인 경제 전환을 가속화
-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의 3측면을 통합하기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 데이터 혁명과 강력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결과 공유

반면에 SDGs 초안은 보다 구체적인 17대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과 기아, 사회발전, 환경, 경제성장, 글로벌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의 MDGs가 기초선 확보를 목표로 했다면, SDGs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MDGs에서 미미하게 다뤄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4개

10)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제22호, KOICA.

목표와 32개 세부목표가 자연 및 자원 환경, 3개 목표와 29개 세부 목표가 사회 환경 관련이며, 지속가능에 대한 강조가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SDGs에서는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도시문제(목표 11)가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의 주거문제와 성장을 위한 도시 개발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며, 이로 인해 도시개발과 주거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SDGs체제의 등장은 건축서비스 업계로서는 큰 기회가 될 것이며 ODA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2-2] SDGs의 주제별 분류

주 제		SDGs 목표
빈곤 (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 (7)*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8)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 (12)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 (10)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12)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자원 환경	7. 에너지 (5) 13. 기후변화대응: UNFCCC (5) 14. 해양자원 (10) 15. 육상생태계 (12)
	사회 환경	6. 물과 위생 (8) 11. 도시 (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11)
경제성장 (2목표, 20세부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9. 인프라와 산업화 (8)
글로벌파트너십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

\* \* ( )는 세부목표의 수

\* 출처: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p.10.

## 2. ODA 지원 현황

### □ ODA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왔다. 특히 OECD-DAC에 가입한 2010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GNI 대비 ODA비율(ODA/GNI)은 최대치였던 2012년을 기준으로 0.14%로 여전히 DAC 회원국의 2014년도 평균비율인 0.29 %<sup>11)</su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고 위상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지출규모 약 32억 달러, ODA/GNI비율 0.2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sup>12)</sup>. 전체 ODA규모에서 양자원조는 74.6%이며, 다자원조는 25.4%로 양자원조의 비중이 높다.

[표 2-3] 연도별 총 ODA 지원현황 (순지출, 달러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ODA	802.3	816.0	1,173.8	1,324.6	1,597.5	1,755.3
양자간원조 비중(%)	539.2 (67.2)	581.1 (66.1)	900.6 (76.7)	989.6 (74.7)	1,183.2 (74.1)	1,309.5 (74.6)
다자간원조 비중(%)	263.1 (32.8)	234.9 (28.8)	273.2 (23.3)	335.0 (25.3)	414.3 (25.9)	445.8 (25.4)
ODA/GNI(%)	0.09	0.1	0.12	0.12	0.14	0.13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 □ 사업 분야별 양자원조 지원 현황

양자원조 중 분야별 ODA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약 44.4%)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약 27.0%) 분야에 자원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보면 교통·물류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과 보건 분야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1) OECD(2015), “Aid statistics”, 「OECD」, <http://www.oecd.org/dac/stats/development-aid-stable-in-2014-but-flows-to-poorest-countries-still-falling.htm>. (2015.2.18.)

12) ODA Korea (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 (2015.2.18.)

[표 2-4] 양자원조 분야별 지원현황 (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539.2 (100)	581.1 (100)	900.6 (100)	989.6 (100)	1,183.2 (100)	1,359.6 (100)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31.8 (43.0)	273.5 (47.1)	387.5 (43.0)	416.0 (42.0)	558.2 (47.2)	599.6 (44.1)
교육	60.5	69.5	142.8	179.4	205.0	209.5
보건	49.2	91.0	130.1	91.2	120.3	137.8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8.8	3.3	4.6	4.1	7.3	9.6
수자원 및 위생	42.5	41.3	53.2	71.7	118.4	97.6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62.6	61.2	48.2	53.0	90.7	112.1
기타 사회 인프라	8.2	7.1	8.6	16.7	16.6	32.9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123.9 (23.0)	152.5 (26.2)	250 (27.8)	308.2 (31.1)	308.8 (26.1)	377.7 (27.8)
교통 및 물류	75.6	77.4	117.7	229.8	210.3	231.7
통신	45.8	59.5	63.3	40.0	47.4	39.4
에너지	-1.1	14.1	64.5	35.0	48.0	102.0
금융 및 재무서비스	2.6	0.9	2.0	1.5	1.5	1.4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0.9	0.5	2.4	1.9	1.7	3.2
생산 (산업) 부문	79.2 (14.7)	59.9 (10.3)	63.0 (7.0)	77.1 (7.8)	95.7 (8.1)	127.3 (9.4)
농업임업어업	50.2	38.6	48.1	55.8	70.2	98.5
산업광업건설	10.1	12.5	12.6	13.5	16.3	19.5
통상정책 및 조정	17.7	8.5	2.0	7.4	8.0	8.1
관광	1.2	0.4	0.3	0.4	1.2	1.1
환경보호	7.2 (1.3)	8.7 (1.5)	14.4 (1.6)	16.9 (1.7)	42.2 (3.6)	26.8 (2.0)
다부문	16.8 (3.1)	28.9 (5.0)	104.5 (11.6)	56.0 (5.7)	73.4 (6.2)	44.5 (3.3)
물자지원/ 일반프로그램원조	1.6 (0.3)	0.1 (0.0)	-	1.9 (0.2)	2.0 (0.2)	0.02 (0.0)
부채 관련 지원	10.3 (1.9)	-	2.4 (0.3)	-	-	-
인도적 지원	23.7 (4.4)	16.8 (2.9)	16.9 (1.9)	23.8 (2.4)	16.4 (1.4)	26.6 (2.0)
행정비용	31.5 (5.8)	27.8 (4.8)	38.4 (4.3)	53.6 (5.4)	59.4 (5.0)	68.8 (5.1)
NGO지원	9.1 (1.7)	7.8 (1.3)	11.4 (1.3)	0.7 (0.1)	1.2 (0.1)	0.9 (0.1)
기타 (미배분포함)	4.2 (0.8)	5.3 (0.9)	12.3 (1.4)	35.3 (3.6)	26.0 (2.2)	87.4 (6.4)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 □ 지역별 양자원조 지원현황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54%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시아 중심의 지원 정책을 보여 주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가 각각 20% 와 7.1% 이다.

[표 2-5] 양자원조 지역별 지원현황(순지출)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250.8 (46.5)	292.1 (50.3)	553.0 (61.4)	583.9 (59.0)	637.7 (53.9)	738.9 (54.3)
아프리카	104.1 (19.3)	95.0 (16.3)	139.9 (15.5)	178.3 (18.0)	261.0 (22.1)	271.6 (20.0)
중동	30.5 (5.7)	21.4 (3.7)	34.3 (3.8)	41.3 (4.2)	42.3 (3.6)	40.6 (3.0)
유럽	12.9 (2.4)	46.4 (8.0)	38.7 (4.3)	20.7 (2.1)	16.6 (1.4)	2.6 (0.2)
중앙 및 남아메리카	68.7 (12.7)	55.8 (9.6)	64.5 (7.2)	64.4 (6.5)	76.2 (6.4)	96.5 (7.1)
오세아니아	2.2 (0.4)	1.5 (0.3)	5.6 (0.6)	4.2 (0.4)	3.4 (0.3)	3.9 (0.3)
기타	70.0 (13.0)	68.9 (11.9)	64.7 (7.2)	96.8 (9.8)	146.1 (12.3)	205.5 (15.1)
합계	539.2 (100)	581.2 (100)	900.7 (100)	989.6 (100)	1,183.2 (100)	1359.6 (100)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치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 □ 지원형태별 양자원조 지원 현황

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원조(64%)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과 기술지원(14.1%) 역시 비중이 높다. 2012년 이후 NGO와 민관협력지원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과 민간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sup>13)</sup>.

13) 실제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년)에서는 EDCF, KOICA 모두 NGO와 민간 파트너들과의 연계 강화를 주요 전략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는 ODA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표 2-6] 양자원조 형태별 지원현황(순지출)

(단위: 백만 달러, %)

원조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양자간 ODA	539.2 (100)	581.1 (100)	900.6 (100)	989.6 (100)	1,183.2 (100)	1,309.6 (100)
예산지원	—	—	—	—	29.5 (2.5)	19.6 (1.5)
국내/국제 NGO 및 민관협력지원	16.4 (3.0)	14.8 (2.5)	28.7 (3.2)	42.3 (4.3)	96.0 (8.1)	140.7 (10.7)
프로젝트 원조	240.4 (44.6)	331.5 (57.0)	666.7 (74.0)	679.8 (68.7)	762.3 (64.4)	819.6 (62.6)
기술원조	—	—	128.0 (14.2)	151.0 (15.3)	167.0 (14.1)	196.1 (15.0)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지원	—	—	31.6 (3.5)	42.2 (4.3)	54.3 (4.6)	61.3 (4.7)
채무구제	10.3 (1.9)	—	2.4 (0.3)	—	—	—
행정비용	31.5 (5.8)	27.8 (4.8)	38.4 (4.3)	53.6 (5.4)	59.4 (5.0)	57.5 (4.4)
기타공여국내 지출	4.2 (0.8)	5.3 (0.9)	5.0 (0.6)	20.7 (2.1)	14.7 (1.2)	14.8 (1.1)
기타	236.5 (43.9)	201.9 (34.7)	—	—	—	—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 □ 다자원조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를 보면 전통적인 다자지원 기관인 UN산하기구와 월드뱅크 그룹(WBG),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국제기구<sup>14)</sup>에 대한 지원은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7] 다자원조 기구별 지원현황(순지출)

(단위: 백만 달러, %)

원조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다자간 ODA 총액	263.1 (100)	234.9 (100)	273.2 (100)	335.0 (100)	414.3 (100)	445.8 (100)
UN 기구	46.7 (17.8)	55.8 (23.8)	77.4 (28.3)	82.0 (24.5)	114.5 (27.6)	113.5 (25.5)
WB 그룹	78.7 (29.9)	93.2 (39.7)	110.8 (40.6)	123.1 (36.7)	153.9 (37.2)	170.5 (38.2)
지역개발은행	125.9 (47.8)	68.7 (29.2)	66.5 (24.3)	104.1 (31.1)	126.2 (30.5)	126.7 (28.4)
기타 국제기구	11.8 (4.5)	17.2 (7.3)	18.5 (6.8)	25.8 (7.7)	19.7 (4.7)	35.0 (7.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14) 기타 국제기구란 UN, WB 그룹, 지역개발은행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로 대표적으로 WTO와 IMF 계열 기관이 있다. 또한 다양한 특정 사안별 기관이 있다.

### 3. ODA 기관의 주요 업무와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절차

우리나라의 양자원조는 KOICA가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이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에 다자원조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MDB에 대한 출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KOICA 역시 국제기구에 대한 협력사업,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등의 형태로 다자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15)</sup>.

####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 ① 개요

KOICA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되었다<sup>16)</sup>.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양자원조 예산의 약 47%, 양자 무상원조 예산의 약 79%를 집행하였다. 현재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기관의 비전으로 선정하고 원조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7)</sup>.

[표 2-8] KOICA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 팀	관할 지역
아시아 I	지역 총괄팀	업무 총괄
	동남아 1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남아 2팀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아시아 II	서남아시아팀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동북아태평양팀	몽골, 아프가니스탄, 솔로몬 군도, 태평양국가 등
	중동중앙아시아팀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중동 및 중앙아시아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동아프리카팀	우간다,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
	서아프리카팀	가나,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국가
	중남미팀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

\* 출처 : KOICA(2015), “「KOICA 소개」, 「KOICA」, <http://www.koica.go.kr/>. (2015.4.8.)

15) KOICA(2015), “ODA 알기”, 「KOICA」, <http://www.koica.go.kr/>. (2015.4.8.)

16) KOICA(2015), “KOICA 소개”, 「KOICA」, <http://www.koica.go.kr/>. (2015.4.8.)

17) KOICA(2014), 「2014 대한민국 ODA백서」, KOICA, p.29.

KOICA 본부에서는 경제사회개발부가 분야별 사업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3개 지역본부 산하 8개 지역 팀이 국가별 세부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28개 해외사무소 및 16개국 파견 주재원이 각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KOICA는 중기전략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을 바탕으로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등 7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표 2-9] KOICA 사업 분야

분야	목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의 질 확보, 교육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육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li> </ul>
공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li> <li>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정책 개발 및 이행 역량 강화</li> <li>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대상국 거버넌스 강화</li> </ul>
농림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안보를 위한 농수산물 생산성 증대 및 접근성 개선</li> <li>소득증대를 위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li> <li>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 활동 보장 및 생활여건 개선</li> </ul>
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대상국 경제 발전 단계 및 국가개발전략을 고려한 비교우위 사업 중점 지원</li> <li>인프라 분야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원국 운영 및 관리 역량강화</li> <li>수원국 경제개발에 기여 및 국내 업계의 현지 진출 도모</li> </ul>
범분야 (환경, 여성, ICT,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도상국의 성평등 증진 및 여성의 역량강화 도모</li> <li>협력대상국 사업 수혜대상자의 자력화를 통한 인권 실현에 기여</li> </ul>
기후변화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적응능력, 완화능력, 대응능력 배양</li> </ul>

\* 출처 : KOICA(2015), “KOICA 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11.14.)

## ② 주요 사업형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종류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건물, 시설물 등 물적 협력수단과 전문가 파견 등 인적 협력수단을 결합하여 다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 협력대상국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초청하는 인적 협력사업인 국내초청연수사업, 개도국의 희망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문가파견사업, 해외재난긴급구호,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NGO)원조와 민간기업과의 협력, UN 산하 주요 개발기구와의 협력사업 역시 실시하고 있다<sup>18)</sup>.

[표 2-10] KOICA 사업 종류

사업종류	내용
국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 농업능력 향상 등 특정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장비, 기자재의 물적협력수단과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등의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2~5년 등) 지원하는 사업</li> <li>•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및 심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li> </ul>
글로벌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는 사업</li> <l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격차를 좁히는데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li> </ul>
해외봉사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li> <li>• 우리의 청·장년들이 교육 및 직업훈련,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참여</li> </ul>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대형사고, 분쟁 및 만성적·복합적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원활동</li> </ul>
민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민간단체의 해외원조사업을 지원</li> <li>•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개도국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ODA사업을 보완하여 국민의식·국제화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원조사업</li> </ul>
국제기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원조 인프라 경험의 부족으로 양자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양자간 무상원조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li> <li>•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원조의 가시성을 제고</li> </ul>

\* 출처 : KOICA(2015), 「KOICA 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11.14.)

협력대상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KOICA의 개발컨설팅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이하 DEEP)을 DEEP프로그램<sup>19)</sup>으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개도국과 공유하고 있다.

KOICA의 여러 사업 중 우리의 관심분야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통상 2~5년간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와 기술자문 등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OICA는 1991년부터 2013년 말까지 4조 1,918억 원의 무상 ODA를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

18) KOICA(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KOICA, p.60.

19) DEEP은 지난 20여년간 KOICA가 수행해온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등의 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사업(DEEP)’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확대하여, 협력국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기술자문, 제도구축, 인프라 구축 연계 및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네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된다. (출처: KOICA(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KOICA, p.61.)

업에 총 지원액의 50%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 ③ 프로젝트 사업 시행 절차

KOICA 사업의 일반적인 시행절차는 ①사업형성협의 ⇒ ②공식사업요청서 접수 ⇒ ③타당성 검토 ⇒ ④사업예비선정 ⇒ ⑤정부 간 합의 ⇒ ⑥사업내용확정 ⇒ ⑦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 ⑧사업평가 의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후관리 단계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림 2-3] KOICA 사업 추진절차

\* 출처 : KOICA(2015), “사업추진방향”, 「KOICA」, <http://www.koica.go.kr/>. (2015.3.17.)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 결정에 앞서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CPS를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형성 협의를 추진한다.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굴하며, 재외공관 및 사업발굴협의단을 통해 협력대상국과 형성협의를 실시한다.

형성협약에서는 KOICA사업의 목적과 CPS에 대한 부합 여부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CPS에서 해당 국가의 교육분야 지원 전략을 교육인력 확보라고 규정했다면,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즉 교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별 CPS를 잘 파악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논의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사업요청서(PCP : Project Concept Paper)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다. 이후 협력대상국의 요청서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예비선정을 진행한다. 무상협력사업의 경우, 각 시행기관이 예비선정한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역과 내용 측면에서 중복되는지 여부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조정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기관별 다음년도 사업계획의 검토를 통해 무상협력의 사업효과성 및 ODA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대상국과 사업 세부 내용을 추가 협의하고, 이를 포함하는 협의의사록을 기관 간에 체결한다. 그리고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 해당 협의의사록을 추인하는 정부 간 합의문<sup>20)</sup>(무상원조 기본약정 또는 교환각서)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집행 단계는 집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집행 및 모니터링, 사업종료 순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중간평가(사업 중간 시점) 및 종료평가(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후 1년 이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 제도를 통해 무상협력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 수행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원조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1)</sup>.

---

20)용어 설명 : Record of Discussion(RD)

21) KOICA(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KOICA, pp.45~46.

#### ④ 건축사업의 진행 절차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 유형은 주로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므로 프로젝트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겠다.

프로젝트 사업에서 건축분야는 사업 유형에 따라 학교, 직업훈련원, 병원, 보건소, 연구소, 연수센터, 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 및 건설 사업에 대해 OECD-DAC 및 국제기구 등에서 물적 지원이 개도국 조달이나 현지 물자,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수원국 주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조비구속화(untied aid)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건설 수준이나 시장여건 등이 우리의 ODA 건설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한국 건설업계의 적절한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sup>22)</sup>.

프로젝트 사업의 주체는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며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을 관리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와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 부문 관리를 총괄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PMC의 사업계획을 건축 계획으로 구현하는 건축 설계자, 기자재 조달 및 설치를 담당하는 기자재 업체가 있다. KOICA 본부의 지역팀 및 해외사무소는 각 사업별로 PDM(Project Design Matrix) 및 집행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며, 협력대상국의 수원기관도 사업의 단계마다 수요(Needs)를 재확인하며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사업은 단일 사업 내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분야별 사업수행자 및 관리자, 실제 사용자가 모두 다르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야 하므로, 코디네이터로서 PMC 및 CM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축사업의 진행과정은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사업 요청서 접수 이후, 사업형성조사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과 검토가 시작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의 사후관리와 사후 평가의 절차가 연속된다. 건축 사업의 절차는 크게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의 단계로 진행된다.

---

22) 방설아(2014), “공적개발원조(ODA)와 KOICA프로젝트 건설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5(4), p.33~36.

[표 2-11] KOICA 건축 사업의 절차

단계	내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이 계약적인 건축물의 용도, 규모, 사업비 등을 제출</li> </ul> </li> <li>예비조사(사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해보다 한해 전에 조사단 파견을 통해 타당성 검토</li> </ul> </li> <li>기획조사(실시협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해보다 한해 전 하반기에 실시</li> <li>규모, 금액, 일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양국간 분담사항 확정</li> </ul> </li> </ul>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li> <li>기술과 가격을 각각 90점, 10점으로 평가, PM의 외국어 소통 능력 및 설계 운영 계획 등 평가</li> </ul> </li> <li>기본 및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안,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li> </ul> </li> </ul>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조달지침과 현지여건에 따라 입찰조건 조정</li> <li>대부분 현지 국제입찰로 진행</li> </ul> </li> <li>공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표준공사계약서 사용</li> <li>현지 사무소에 의해 선정된 계약은 가급적 현지법에 따라 진행</li> <li>지역 CM이 있는 경우 상주 CM이 공사 관리</li> <li>필요시 현지 관리인 고용 및 CM은 비상주 순회감리</li> </ul> </li> <li>준공 및 인수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검사 및 현지 인허가와 최종 승인 후 수원기관에 양도</li> </ul> </li> </ul>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사가 하자보수증권의 유효한 기간까지 지원</li> <li>사후관리사업비 혹은 후속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한계 보완</li> </ul> </li> </ul>

\* 출처 : 저자 작성

## □ 기획단계

예비조사단계에서 수원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때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추정한다. 이는 수원국이 제안 내용을 대체로 과도하게 부풀려서 작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승인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적정사업부지, 스페이스 프로그램, 건축 발주계획, 추정 건축 사업비, 사업 기간, 양국 분담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이때 건축 사업비와 사업 일정, 건축규모 등은 협의의사록(RD)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수원국과의 약속 사항으로 향후 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한 조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후 반영해야 한다.



## □ 설계단계

일반적으로 국내 설계사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며, 사업규모가 작으므로 동일 국가나 동종 분야의 경우 여러 사업을 묶어서 통합 설계 발주를 한다.

국내 설계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설계사를 하도급으로 선정한다. 이유는 국내 설계사가 현지의 건설관련 규정 및 주요 자재에 대한 파악, 내역 단가 작성, 인허가 등 현지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 기준을 적용하여 도서를 완성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가 되어, 시공 단계에 잦은 설계변경과 불필요하게 건축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을 통해 국내 설계 기술력과 현지 정보력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으로 공동 설계를 진행하며, 하도급 계약의 범위는 국가별 현지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 □ 시공단계

시공사의 선정은 현지 국제입찰로 진행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현지입찰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건설경험이 부족하고 현지 조로나 공사 진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국내 입찰처럼 저가 격입찰을 하여 공사 운영 및 저가품질 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시스템이 없는 수원국이 대부분이므로 입찰공고는 현지 일간지에 실리며, 입찰 보증금은 5%가 기준이나 국가별로 2~3%로 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유찰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입찰 관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계약은 KOICA의 국제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며, 현지 사무소에 의하여 선정된 계약의 경우는 현지 계약 건으로 가급적 현지법을 따라 진행한다. 선금은 20~30% 범위로 지급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10%정도이다. 선금이행증권 및 계약이행보증증금은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증보험사나 공제조합과 증권을 발행할 기관이 없으므로, 보통 현지 은행에 신용을 담보로 증권을 발급받는다. 공사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증권을 받으나 현지 관행 상 1~2년 정도 하자 증권을 은행에서 발급하여 하자를 담보한다.

## □ 유지보수 단계

KOICA 사업단계에서 사후관리 단계에 해당하며, 건축 프로세스 상 하자보수 단계이다. 인수인계 이후 수원기관이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와 보수를 담당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운영관리비가 부족하고 시설을 통한 자체수익이 높지 않으므로 많은 건물이 관리 부실로 하자가 생기기도 한다. KOICA는 인도 후 사업의 관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시공사를 통해 하자보수증권이 유효한 기간까지는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나 요구 사항은 사후관리사업비 혹은 후속사업 발주를 통해 수원국의 자체 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 하고 있다.

## ⑤ KOICA 발주 사업의 참여기준

KOICA 발주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면 참가가 가능하고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통해 선정한다.

[표 2-12] KOICA 사업 입찰참가 자격 예시

DR공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p>KOICA 전자조달시스템(ebid.koica.go.kr) 조달협력업체 등록을 필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li> <li>○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필증 소유자</li> <li>○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이 아닌 자(입찰신청 시 건축사 협회 및 등록 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li> <li>○ 총괄 PM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 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한국 건축사 자격증에 한함</li> </ul> </li> <li>○ PM 및 PA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 소속여부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인정함</li> </ul> </li> <li>○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및 제7항(타당성조사, 사전조사, 사업협의(BDS 포함) 등 해당 사업의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소속기관 및 당해 지역 CM)에 해당되는 경우 경쟁입찰 참여대상에서 제외.</li> <li>○ 공동수급 불가</li> <li>○ 본 설계용역 수행자는 동일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li> </ul>

\* 출처 : KOICA(2015), 「DR공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p.6.

실질적으로는 기술평가 항목에서 업체의 사업 실적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핵심 인력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업체의 수행실적은 수행사업의 합산 금액으로 평가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는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는데, PM의 경우 3건 이상의 수행경험이 있으면 최대점수인 4점, PA의 경우는 2건 이상이면 최대점수인 2점 배점하고 평균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업체의 경영 상태를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KOICA 사업의 경우 참여 실적에 의한 점수 차는 최대 3.4점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13] KOICA 사업 기술평가 예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 요소 (세부배점)	
정량평가 (20점)	경영상태	8	신용평가등급	
	핵심인력의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6	국내외 해당분야 사업 실적	
	회사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6	국내외 해당분야 사업 수행실적 비율	
정성 평가* (80점)	상 임 위 원 평 가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제안	3	주요 사업의 기능성 및 완성도
		과업의 이해	8	대상국, 수원기관, 사업성과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유사분야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설계 주안점 및 위험요 소와 문제해결 방안제안
		현지조사 분석 및 개념 제안	9	현지 조사 계획 및 자료 검토분석의 적정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한 기본컨셉의 적정성
		건축계획안 작성	20	설계 개념의 지역성, 예술성, 실용성(7) 건축 계획의 기능성 및 타당성(6) 현지 환경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계획안(7)
		추정공사비 및 기타 제안	5	현지 물가 및 공사비 수준을 고려한 추정공사비 및 기타제안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0	총괄PM의 사업 참여도 및 지속성 사업단계별 국내외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현지 업체 및 협력업체 계획
		사업관리계획	10	설계 일정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사업 관계자 협력방안 및 의사결정 관리 방안 시공단계 설계지원 계획 및 투입
		특수제안	5	제안요청(RFP) 개선방안의 적절성 설계기간 준수 및 오류 방지를 위한 기술제안의 적절성
		PM 역량	10	PM의 사업추진 역량, 기술전문성, 외국어구사능력
	비 상 임 위 원 평 가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제안	3	주요 사업의 기능성 및 완성도
		현지조사 분석 및 개념 제안	10	현지 조사 계획 및 자료 검토분석의 적정성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한 기본컨셉의 적정성
		건축 계획안 작성	30	설계 개념의 지역성, 예술성, 실용성(10) 건축 계획의 기능성 및 타당성(15) 현지 환경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계획안(5)
		건축물의 시공성 및 지속가능성	12	사업비와 현지 건설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시공계획의 적정성 지역의 기후와 경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계획의 적정성 에너지 및 생애주기비용 고려 방안의 적절성
		각종 시스템 제안	5	박물관 시설에 특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전기, 기계, 통신, 소방등) 적정성
		추정공사비 및 기타 제안	5	현지 물가 및 공사비 수준을 고려한 추정공사비 제안 및 기타제안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0	총괄PM의 사업 참여도 및 지속성 사업단계별 국내외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현지 업체 및 협력업체 계획
		특수제안	5	제안요청(RFP) 개선방안의 적절성 설계기간 준수 및 오류 방지를 위한 기술제안의 적절성

\* 출처 : KOICA(2015), 「DR공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p.41.

##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sup>23)</sup>

### □ 개요

EDC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위상 상승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sup>24)</sup>이 담당하는 3가지 기금의 하나이며, ODA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국 내의 개발협력과가 협력기금관리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상원조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담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교통, 상하수도 설비, 교육시설, 보건시설 등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내의 경험총괄본부와 경험사업본부에서 차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양허성차관을 0.01~2.5%의 저리, 24~40년 만기의 장기 차관으로 제공하고 있다<sup>25)</sup>. 설립이래, 2014년 말까지 총 52개국 337개 사업에 총 11.6조 원이 승인되었으며, 5조 672억 원이 집행되었다.

EDCF의 정책 방향은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현재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거나 잠재적으로 밀접해질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선별적 집중 지원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투자 분야 역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 □ EDCF의 지원업무

EDCF는 크게 차관, 출자, 보증, 소액차관, 협조융자, 차관지원비의 6가지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허성 차관지원에는 개도국의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ODA차관으로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이 있다. 또한 출자는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와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가 있다.

23) EDCF(2015), “EDCF안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24)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이하 IKCF)의 3가지 업무를 수행

25) 김태경 외(2014), 「해외개발협력사업의 경기도 참여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4-63, 경기개발연구원, p.53.

[표 2-14] EDCF 차관 및 출자의 종류

종류		지원내용
차 관	개발사업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경제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민자사업차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차관 (Program Loan)	•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
	섹터개발차관 (Sector Development Loan)	•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차관 (Loa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
	민간협력차관 (Private Sector Loan)	•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
	민간협력전대차관 (Private Sector Two-Step Loan)	•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
출 자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Equity Participation to the Company for PPP Projects)	•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Equity Participation to the Fund by International DFIs)	• 개도국의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개도국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표 2-15] EDCF 보증제도

구분	내용
보증대상기관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보증대상위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Guarantee) (단, 일반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 정치적 위험의 예: 몰수, 외화 환전 및 송금불능, 정치적 혼란(테러, 파업 등), 정부계약 불이행 등
보증기간	대출기간과 동일
지원대상국가	EDCF 지원대상국가
보증한도	건당 1억불 이내
보증표시통화	원화, 현지화, 국제기축통화(달러화, 유로화)
보증료	보증금액의 0.1%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소액차관은 5백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 심사, 구매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DCF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표 2-16] EDCF 소액차관제도

구분	내용
차관한도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 (단, 5백만 달러 이하)
이자율	무이자
상환(거치)기간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구매방법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 결정
유망분야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협조융자제도는 혼합신용과 MDB 협조융자의 2종류가 있다. 혼합신용은 EDCF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Export Credit)을 혼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EDCF자금만으로 곤란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DB 협조융자는 MDB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자체 재원만으로 부족한 대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입수, 개도국과의 협력 채널 확보에 유리하다.

[표 2-17] EDCF 혼합신용 종류

종류	내용
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동일한 사업에 대해 사업범위를 자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 자금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통상 지원절차도 별도로 진행 (예. 동일사업 중 토목부문은 EDCF 지원, 기타 기자재 제공부문은 수출신용 지원)
결합융자 (joint financing)	여러 자금을 혼합하여 자금 풀(pool)을 구성하고, 동일사업의 진전에 따라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통상 전체 혼합비율)로 지출
사전혼합신용 (pre-mixed credit)	결합융자와 같이 동일사업 전체에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로 지출이 발생하나, 자금 공여기관들이 여러 자금을 사전에 통합, 하나의 금융패키지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차입 조건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표 2-18] EDCF의 MDB 협조융자 종류

종류	내용
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를 독립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조융자 기관이 분담 융자하는 형태로, 참가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건, 구매절차 등을 결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li> <li>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차관(Tied Aid) 으로 지원되는 경우 적합</li> </ul>
결합융자 (joint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를 분할하지 않고 협조융자 기관 간에 일정 융자비율만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융자</li> <li>기본적으로 MDB가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기관의 구매가이드라인에 따름.</li> </ul>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차관지원비 제도는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무상으로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준비, 사업실시,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2-19] EDCF 차관지원비 제도

분야	지원 내용
사업 준비	<p>지원유망사업에 대한 F/S 작성 또는 이미 작성된 F/S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사업준비(Project Preparation)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용의 산정</li> <li>•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사업범위, 구매계획,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공정계획, 자본조달계획 등)</li> <li>• 재무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li> <li>• 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li> <li>• 환경영향평가</li> </ul>
사업 실시	<p>기금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제점 해결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턴트 고용 및 공급자 선정관련 서류준비 및 검토</li> <li>•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등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li> <li>• 사업진행보고서, 자금지출요건 서류 및 사업완공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완</li> <li>•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li> </ul>
사후 관리	<p>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완공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li> <li>• 필요시 설비운전, 작동 등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li> <li>•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 지원 등</li> </ul>

\* 출처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 □ 차관 지원 절차

양허성차관 지원 절차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평가 및 사후관리의 6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양허성차관의 경우 전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단계 역시 예비검토, 현지실사를 통한 사업심사, 지원방침 결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정부 간 협정체결, 차관공여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2단계로 구분된 사후관리단계 등 절차와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다.



[표 2-20] EDCF 지원절차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개발우선 순위가 높고, 지원 타당성이 높은 사업 발굴</li> <li>• 수원국 정부의 지원 요청</li> </ul>
	지원 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정부부처, 지방정부, 국제개발기관, 공여국 정부, 공여국 민간기업 등</li> <li>• 개도국 정부와의 이국간 정책협의</li> </ul>
	차관사업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정부가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 첨부 후 지원 요청</li> <li>• 현지 대사관 경유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외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li> </ul>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예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자금 지원적격국 및 차관자금위험회수 위험 파악</li> <li>• 상업성 여부 검토</li> <li>•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시 수원국 통보</li> <li>•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을 시 수원국에 사업내용 변경 요청</li> </ul>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사업법률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준비상황,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확인, 차관도입 절차 및 관련 법규 확인을 위한 질의</li> </ul>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역, 기술전문가, 법규역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 파견</li> <li>• 현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국 정부와 토의록(MOD) 작성</li> </ul>
	심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li> </ul>
	사업승인 (정부지원방침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주무부서와 협의 후 지원규모, 조건 등의 방침 결정</li> </ul>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정부간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장관이 수혜국 정부에 통보</li> <li>• 수혜국 정부의 수락의사와 함께 기본협정 체결</li> <li>• 서명 당일로 발효, 10년간 유효</li> </ul>
	차관공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원국 정부 또는 법인을 당사자로 계약</li> <li>• 세부사항에 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규정</li> </ul>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 준수</li> <li>• 타이드 조건에 따른 구매적격국 제한</li> <li>• EDCF는 우리나라를 구매 적격국으로 제한하는 타이드 원조자금</li> <li>• 구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차주가 부담</li> <li>• 경쟁입찰 원칙</li> </ul>
자금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계약에 규정된 지출방식에 따라 지출</li> <li>• 공정 이행정도에 따라 분할 지출</li> <li>• 지출방식은 신용장방식, 직접지급방식, 사후지급방식이 있음</li> </ul>
평가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료 후 예비완공확인서 발급</li> <li>• 하자보수기간 동안 문제가 없을 시 최종완공확인서 발급, 이 때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완공보고서 제출</li> <li>• 완공점검 후 2년경과 시점에 사후평가 실시</li> </ul>

\* 출처 : EDCF(2015), “지원절차”,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job/process/eval.jsp>. (2015.3.16.)

## □ EDCF 발주 사업의 참여 기준

수혜국이 사용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후, EDCF가 심사를 통해 승인조건을 제시하면 수혜국이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혜국은 대한민국 원화로 기금지원을 받으며, 가능한 대한민국의 업체로부터 용역과 재화를 수입하고 원화로 결제한다. 그러나 현지 물품과 용역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한국 업체의 선정은 주로 국내경쟁입찰로 결정되나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경쟁구매,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절차상 건축서비스산업은 구매와 컨설턴트 고용 부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EDCF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게만 부여한다. 건축분야 용역의 입찰 참여를 위해 EDCF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참가업체에게 일정정도의 사업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규모에 상관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금액을 제한하기도 하며, 사업 실적은 관련 분야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병원건축 사업이라면 실제 병원 건축 사업만을 수행실적으로 고려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인정하고 있다.

[표 2-21] EDCF 사업 입찰 참가기준 예시

###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아래사업 수행실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 병원 의료계획 수립 및 의료장비 선정 컨설팅
  - 병원 운영계획 수립 컨설팅 또는 5년 이상 병원 운영 실적
  - 국내·외 병원 건축과 관련된 컨설팅업무
    - \* 컨설팅업무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등(감리, 교육 등은 제외)
    - \* 병원 : 7개 진료과목 이상을 갖춘 병원
- ※ 공동도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

\* 출처 : EDCF(2015),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 p.2.

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로 이루어진다. 업체의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참여 실적의 경우 수행건수 5점, 금액 3점, 해외 용역수행 건수 2점으로 총10점이다. 입찰 기준을 최소로 충족한 업체의 경우 6점을 얻을 수 있으며 참여 실적에 의한 점수 차이는 최대 4점이다.

[표 2-22] EDCF 사업 기술능력평가 항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 평가	사업수행 실적	용역수행 건수	5.0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용역수행 금액	3.0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
		해외용역수행 건수	2.0	최근 5년간 해외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0.0	
	참여인력의 경험	PM 자격	1.0	기술자등급 평가
		PM 경력	2.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PM 실적	2.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자 경력 2)	5.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참여기술자 실적 2)	5.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5.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0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정량평가 소계		30.0	
정성 평가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	사업내용 이해	2.5	사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사업대상국 이해	2.5	대상국 현황, 관련계획, 대상지역 기능/특성 등
		소 계	5.0	
	F/S 수행 계획	F/S 실행계획	7.5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항목별 조사방법	7.5	분야별 조사계획 및 방법, 타당성분석 방안
		위험요소 분석/대책	2.0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F/S 관리방안	2.0	보고계획, 사후관리, 보안준수 방안 등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1.0	영문보고서 작성방안을 영문으로 작성
		소 계	20.0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 계획	인력운용계획	5.0	참여조직도 및 전문가 투입계획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5.0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등
		소 계	10.0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등		10.0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TOR에 대한 의견/제 안사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혁신적·독창 적 제안/과업수행방안, 사업별 특수사항 등
	PM 대면평가		5.0	PM의 사업 이해도, 수행능력 등 평가
	정성평가 소계		50.0	
	기술능력평가 합계		80.0	

\* 출처 : EDCF(2015),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 p.6.

## 4. 일본의 ODA 사업기관

### 1)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 □ 개요

JICA는 일본의 ODA를 일원화한 창구로서 2002년 외무성 산하기관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독립한 법인이다. 본래 1974년에 설립되어 무상 ODA를 전담해왔고, 유상 ODA를 담당하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2008년에 JICA로 흡수되었다. 2008년 이후 JICA는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이라는 3가지 원조수단을 일체화하여 운영하는 세계최대의 원조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엔차관 및 해외투융자), 무상자금협력(외무성의 외교상 활동 제외), 국민의 해외 협력활동 지원, 해외이주자 및 일본계 외국인 지원, 기술 협력을 위한 인력양성, 조사연구, 긴급구호 등이다. 2013년 기준 JICA의 지원국과 지역은 152개로 총 지원액은 1조 2,789억 엔이다. 같은 해 일본 전체의 ODA 총액에서 JICA가 57.6%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협력이 1,773억 엔, 유상자금 협력이 승인액 기준 9,858억 엔, 무상자금 협력이 양허계약 기준 1,158억 엔이다.

#### □ 주요 사업 현황

JICA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 물과 식량, 에너지 문제, 세계적 전염병, 금융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제도, 조직, 인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세계의 빈곤을 개선하며 인간의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JICA의 운영 전략은 4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는 정책제도의 개선, 인재 육성, 인프라 정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이다. 둘째는 일본 내의 민관협력과 국민 동참, 과학기술의 활용, 국제적인 연대의 확산을 통한 개발파트너십의 촉진이다. 셋째는 긴급구난부터 경제발전지원까지 유기적인 연대와 저개발국이 중진국으로 도약하면서 필요한 지원의 단계별 수행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기술협력은 계획 및 행정, 공공 공익사업, 농림수산, 광공업, 에너지, 상업관광, 인적자원,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으로 나뉘는데, 농림수산이 23.2%로 가장 비중이 크다. 다

음으로 계획 및 행정(23.1%), 교통, 사회기반 사업 등의 공공 공익사업(18.0%), 인적자원(14.1%), 보건의료(11.7%) 순이다.

무상자금 협력은 건설·건축 관련 분야가 59.4%를 차지한다. 공공 공익사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상자금 협력사업의 3분의 1을 도로(21.4%)와 상수도(10.7%)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핵심 사업은 보건의료사업(10.2%), 초등과 중등교육(9.7%)이다. 이들 사업은 병원이나 학교 등의 건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자재 사업 등이 포함되어 실제 건설·건축사업의 비중은 줄어든다.

차관사업인 유상자금협력은 사업모델이 구체적이고 자금 회수가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운송부문이 31.3%이며 철도 12.1%, 도로 9.1%로 철도가 도로보다 많아 무상협력과 차이가 있다. 전력·가스(21.2%), 사회서비스(14.8%), 상하수도·위생(9.1%) 등의 비중이 높다. 지역별로는 자금의 79.6%가 아시아에 집중되며, 중동 7.2%, 아프리카 5.3%, 중남미 5% 정도이다.

#### □ JICA 무상원조의 절차

JICA는 ‘사전조사(협력준비조사)’, 결제업무 등의 ‘실시감리’ 그리고 ‘사후 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상자금 협력은 안건 발굴과 형성, 안건 심사 실시와 결정, 교환 공문과 증여 계약, 프로젝트 실시, 사후감리 순으로 이어진다.

[표 2-23] JICA 무상원조 사업 절차

분 야	내 용
안건 발굴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하여 JICA 협력준비조사 등을 통해 상대국 정부와 협의</li> <li>상대국 현황, 사업 목적, 협력 규모, 사업의 관리 운영 체제, 기대 효과 등 조사</li> <li>수집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책정</li> </ul>
안건 심사 실시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력 내용 심사</li> <li>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검토와 절차를 실시</li> <li>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상 안건의 실시를 결정</li> </ul>
교환 공문과 증여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프로젝트 협력의 목적과 내용을 정리한 문서(교환 공문)의 서명</li> <li>JICA는 상대국 정부와 구체적인 증여 내용과 조건을 정한 “증여 계약”을 체결</li> </ul>
프로젝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ICA는 계약 체결에서 건설 완료 기자재의 인도까지 상대국 정부나 컨설턴트에게 조언과 지도</li> </ul>
사후 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 종료 후에는 상대국 정부가 유지 관리를 수행</li> <li>장비의 고장 등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JICA는 필요한 기자재 조달, 수리 반의 파견, 응급 대책 공사 등의 후속 협력을 실시</li> </ul>

\* 출처 : JICA(2015), “Type of Assistance: Grant Aid”, 「JICA」,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grant\\_aid/index.html](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grant_aid/index.html). (2015.9.10.)

## □ JICA 유상원조의 절차

유상원조는 엔 차관과 해외 투·융자로 구성되어 있다. 엔 차관은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저렴한 금리로 차관을 실시하되, 엔화로만 대출한도를 책정하고 일본 기업으로부터만 용역과 기자재를 구입하여 엔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원조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일본 기업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사업 추진에서 주도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상원조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비교적 큰 금액을 운용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다.

엔 차관의 절차는 프로젝트 준비, 요청, 검토/심사·사업사전심사, 공문교환과 차관계약, 프로젝트의 실시, 완성/사후평가 및 팔로업의 6단계로 이뤄진다.

엔 차관의 종류는 프로젝트형 차관과 논프로젝트형 차관이 있으며, 프로젝트형 차관에는 프로젝트 차관, 엔지니어링서비스차관, 개발금융차관, 섹터 론이 포함되며, 논프로젝트형 차관은 개발정책차관, 상품차관, 섹터 프로그램 론으로 나뉜다.

차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민간 기업 등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와 대출 지원을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성화, 사람들의 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투·융자가 있다. 2011년부터 시행 단계를 거쳐 201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 투·융자는 개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ODA 대상국의 사업 중에서 다음의 3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빈곤 감소를 위한 생활·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성장가속화’
- 빈곤층을 직접 수익자로 하는 ‘MDGs·빈곤’
- 기후 변화 등으로 빈곤층의 고통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완화하는 ‘기후변화대책’

해외 투·융자 업무는 리스크 심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JICA는 부서 간의 상호 견제 체제 외에도 관리 계정을 통해 해외 투·융자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체제 및 위험 심사·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 2-24] JICA 유상원조 차관의 종류

종 류		내 용
프로젝트형 차관	프로젝트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발전소 건설 등 특정 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li> <li>엔 차관의 주요 부분을 차지</li> </ul>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조사·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위해 본 사업에 선행 용자</li> <li>본 사업 타당성 조사(F/S) 등을 통해 사업 전체의 필요성·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에 한함</li> </ul>
	개발금융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국의 금융 기관을 통해 중소 규모의 제조 및 농업 등 특정 부문의 진흥과 빈곤층의 생활 기반 정비 등 지속적인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li> <li>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까지 두 개 이상의 금융 기관을 거치게 되므로 투스텝 론(TSL)</li> <li>민간 다수의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을 공여할 수 있음</li> <li>개도국 금융 기관에 중개함으로써 그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와 금융 부문의 개발을 지원</li> </ul>
	섹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의 서브 프로젝트로 구성된 특정 분야의 개발 계획의 실시예 필요한 기자재, 용역 및 컨설팅 서비스 비용을 대출</li> <li>대상 분야의 정책, 제도 개선과 연계 가능</li> </ul>
논 프로젝트형 차관	개발정책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개발 및 제도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전략, 빈곤 감소 전략의 실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li> <li>WB 등 국제 개발 금융 기관과 협조하여 용자</li> </ul>
	상품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환 사정이 악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의 수입 결제 자금을 제공</li> <li>차입 국가 경제 안정화를 목적</li> <li>차관 자금은 일반적으로 양 정부 간에 미리 합의 된 제품의 수입을 위해 사용</li> </ul>
	섹터 프로그램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 차관을 공여하는 동시에 중점 분야의 개발 정책을 지원</li> <li>개발도상국이 상품을 받아 이를 자국에서 판매하면, 현지통화로 받게 되는 대금은 JICA로 회수하지 않고 미리 합의된 분야의 개발투자로 재투입</li> </ul>

\* 출처 : JICA(2015), "Type of ODA Loans", 「JICA」,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oda\\_loans/overseas/types.html](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oda_loans/overseas/types.html). (2015.9.10.)

## 5. MDB 조달기준과 절차

### 1) MDB 개요<sup>26)</sup>

MDB는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 다수의 재원 공여국과 차입국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MDB는 WB, ADB, IDB가 있다. 그 외에도 카리브해연안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의 지역별 투자은행과 이슬람개발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 석유수출국기구기금 등 특정분야나 지역에 국한된 기타 다자간금융기구가 있다<sup>27)</sup>.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MDB 출자 및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IMF에 출자한 6억 달러를 제외하면 대체로 출자금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 양허성자금과 신탁기금의 출연금으로 지출되었다. 양허성 자금의 경우 ADB의 아시아개발자금(Asian Development Fund, 이하 ADF)<sup>28)</sup>와 AfDB의 아프리카개발자금(African Development Fund, 이하 AfDF)에 대한 기여가 꾸준히 많았고, 신탁기금의 경우는 주로 WB에 기여해왔다. 또한 출자금 역시 IMF를 제외하고는 ADB에 대한 기여가 가장 많았다.

본 절에서는 MDB중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주축이 되는 WB와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ADB, 5대 MDB중 3번째 시장 규모가 큰 IDB의 3개 주요 MDB를 중심으로 조달계획 기준을 살펴본다. WB의 건설공사 및 컨설팅 관련 조달가이드라인은 다른 MDB들의 조달 가이드라인과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WB의 조달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MDB의 조달 절차 및 입찰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IDB와 ADB의 조달 기준은 WB와 차별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26) 권율 외(201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연구보고서13-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정창구외(2010),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pp.16~17.

28) ADF는 1973년에 설립된 기금으로서 아시아 최극빈 국가들에게 공여성 차관



[표 2-25]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및 출연현황(2007~2011)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b>출자(A)</b>	<b>426</b>	<b>—</b>	<b>—</b>	<b>—</b>	<b>695,365</b>
IMF					659,539
WB					
ADB					33,560
AfDB	426				2,266
EBRD					
IDB					
<b>양허성 자금(B)</b>	<b>130,943</b>	<b>100,741</b>	<b>147,755</b>	<b>134,983</b>	<b>148,445</b>
IDA	77,431	57,770	74,114	75,982	75,033
IDA-MDRI	3,780	3,743	3,686	4,263	5,020
ADF	35,342	26,368	31,004	31,785	31,388
AfDF	12,231	15,328	15,328	15,328	27,393
AfDF-MDRI	1,354	672	824	1,161	278
IDB(FSO)					
IDB(MIF)			25,000	8,333	8,333
<b>신탁자금(C)</b>	<b>8,319</b>	<b>99,567</b>	<b>36,891</b>	<b>54,121</b>	<b>61,631</b>
IMF	819	12,067	2,743	3,711	3,805
WB		6,000	21,899	31,947	39,645
ADB	6,000	8,000		6,368	6,000
AfDB		3,500	6,882	7,152	7,930
EBRD	1,500		5,367	4,943	4,251
IDB		70,000			
<b>CFC(D)</b>	<b>35</b>	<b>18</b>	<b>18</b>	<b>18</b>	<b>20</b>
합계 (A+B+C+D)	139,723	200,326	184,664	189,122	905,461

\* 순지출 기준

\* 출처 : 권율 외(201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연구보고서13-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44~45. 재인용

## 2) 세계은행그룹

### ① 세계은행그룹 개요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 국제개발협회(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이하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의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944년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국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IBRD와 1960년 IBRD의 기능을 보완하고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IDA를 합쳐서 WB라 부르며, 주요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 및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2015년 현재, IBRD는 188개국, IDA는 17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세계은행그룹의 조달 기준

WB가 주도 및 지원하는 사업은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에 대한 지침<sup>29)</sup> 및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에 대한 지침<sup>30)</sup> 등 두 개의 조달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이 수립 및 시행한다. 이 지침들은 WB 주관 사업에 관한 조달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원칙, 가장 널리 적용되는 선정 방법인 품질 및 비용기반 선정(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이하 QCBS) 절차와 품질기반선정(Quality-based Selection, 이하 QBS), 최저가격선정(Least-Cost Selection, 이하 LCS) 등의 조달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 □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

컨설턴트는 컨설팅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건설관리사업자, UN 산하기구,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NGO, 및 개인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업주체(entity)를 포괄한다. 차입국이 컨설턴트 선정, 고용, 계약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표 2-26]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 원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서비스</li> <li>• 경제성 및 효율성</li> <li>• 기회의 공정성(자격이 되는 모든 컨설턴트가 경쟁)</li> <li>• 개발도상국 컨설턴트 활용 지원</li> <li>• 선정과정의 공정성</li> </ul>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를 바탕으로 작성

29)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30) WB(2011), *Guidelines: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Non-Consulting Service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1/01/16226753/guidelines-procurement-goods-works-non-consulting-services-under-ibrd-loans-ida-credits-grants-world-bank-borrowers>. (2015.6.15.)

컨설턴트 선정은 일반적으로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따르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격조건 (eligibility)을 모든 국가의 컨설턴트에 공고해야하며 다수의 업체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받은 후, 지명경쟁 참여업체 선정기준(short-listing criteria)에 의거하여 소수의 경쟁입찰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고, 품질(quality) 및 비용(cost)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한다. 선정방식은 품질 및 비용 기반 선정 (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 이하 QCBS)이 가장 일반적이며, 과업의 종류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과업의 종류는 [표 2-27]과 같다.

[표 2-27] 컨설턴트 선정방식 및 적용 대상

선정방식	적용 대상
품질 및 가격기반 선정 (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 QC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6개 정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제안서(일반적으로 80점) 및 가격제안서(일반적으로 20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의 제안서 작성 컨설턴트를 선정</li> </ul>
품질기반 선정 (Quality Based Selection: Q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의 성격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필요하며, 컨설턴트의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제안이 요구되는 경우 (예: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li> <li>후속효과(downstream impacts)가 높고, 최고의 전문가 선정이 요구되는 경우 (예: 대규모 구조물 설계, 국가적 정책 연구 등)</li> <li>수행 방안이 다양해서 제안서의 비교 평가가 어려운 경우</li> </ul>
고정예산 사업 선정 (Selection under a Fixed Budget: F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예산이 고정적이고 과업이 단순, 명료한 경우 (QCBS절차로 진행, 가격제안이 예산보다 높을 경우 탈락, 최고점 기술제안서 제출자가 선정)</li> </ul>
최저비용 선정 (Least Cost Selection: L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화되고 통상적인 성격의 과업 (예: 소규모 엔지니어링 설계 등) 중 표준화된 업무 처리방안이 있는 경우</li> <li>- 기술제안서 최저 기준을 만족한 중 최저가 입찰자가 선정</li> </ul>
컨설턴트 자격 기준 선정 (Selection based on the Consultant's Qualification: CQ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의 규모가 작고,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li> </ul>
수의계약 (Single Source Selection: S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 입찰보다 수의계약의 장점이 명확한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li> <li>- 이전 과업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경우, 이전 과업 수행업체 선정 (연속 과업)</li> <li>- 자연재해 관련 복구 등 또는 소규모 용역</li> <li>- 하나의 업체만이 실적 및 자격기준을 만족하거나 해당 업체의 과업 수행 실적이 예외적으로 탁월한 경우</li> </ul>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를 바탕으로 작성

해당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특정 업체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표 2-28] 컨설턴트 참여 제한 규정

구분	내용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활동과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서비스 사업 조달 간의 이해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는 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li> </ul> </li> <li>해당 컨설팅 과업과 컨설턴트의 다른 과업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li> <li>수원국/차관국의 담당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컨설턴트</li> <li>컨설턴트는 하나의 제안서만 제출 할 수 있음(개인, 공동 포함)</li> </ul>
컨설턴트 참여 제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국의 법률이 특정 국가와의 상업 교류를 금지하는 경우</li> <li>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경우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만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가질 경우 예외 적용</li> </ul> </li> <li>차입국 공무원은 법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에만 참여가능</li> <li>비리 등으로 WB에 의하여 입찰 참여가 금지된 업체는 제한 가능</li> </ul>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를 바탕으로 작성

QCBS 방식은 WB의 차관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컨설턴트 선정 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표 2-29] QCBS 절차

구분	내용
과업지시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목표, 배경 및 범위에 대한 정보</li> </ul>
비용 산정 및 예산확보, 지명경쟁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확정</li> </ul>
공고/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 Development online과 WB 사이트</li> <li>참여의향서 제출</li> </ul>
지명경쟁 컨설턴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6개 업체 선정</li> <li>한 국가에서 3개 이상의 사업체 선정 금지</li> <li>최소 1개 업체는 개도국에서 선정</li> </ul>
REP 준비 및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문(Letter of Invitation: LOI)</li> <li>컨설턴트에 대한 지침 및 정보</li> <li>과업지시서</li> <li>계약의 형태</li> </ul>
과업제안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구분 접수</li> </ul>
과업제안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무분 평가, 질적 평가</li> <li>가격제안서 공개 및 평가</li> <li>품질 및 가격에 대한 최종 평가</li> </ul>
협상 및 계약	—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를 바탕으로 작성

컨설턴트 선정에 대한 평가는 보통 3인에서 7인 사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차입국 전문가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경우, 최대 10% 정도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주요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자격 조건(학력, 경력, 개발도상국에서 경력 등), 해당 과업과 관련된 실적(교육, 경력 등)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경험(언어, 문화, 행정, 정부 기구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격제한서에 대한 평가 시 일반적으로 최저가격 제안자에게 100점을 부여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점수는 최저가격과 제안가격과의 비율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격 부문 점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점수 중 20%이다.

[표 2-30] 컨설턴트 선정 기준

기준	점수
컨설턴트 실적	0-10
제안된 방법론	20-50
주요 전문가 평가	30-60
지식전수	0-10
주요 전문가 중 해당국 비중	0-10
총점	100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를 바탕으로 작성

#### □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 충돌, 일반적인 절차(과업공고 등) 등 많은 부문에서 컨설턴트 선정 지침과 동일하며, 조달의 기본원칙 역시 컨설턴트 선정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표 2-31] 물품 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원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및 효율성</li> <li>• 기회의 공정성 및 개방성</li> <li>• 차입국 내 계약 및 제조업 발전 우선</li> <li>• 투명한 조달 절차</li> </ul>

\* 출처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를 바탕으로 작성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이하 ICB)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입국의 내수 생산물 조달 및 차입국 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러나 도시건축 분야(건설)에서는 국제경쟁입찰 외에 제한경쟁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이하 LIB),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이하 NCB)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컨설턴트 지침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충돌 규정이 적용되며, 직접적으로 연관된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는 후속 물품구매, 공사 및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표 2-32] 물품 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 선정방식 및 적용 대상

선정방식	적용 대상
국제경쟁입찰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입찰이며, 차입국의 사업체 등에게 우선권(domestic preference) 부여 가능</li> </ul>
제한경쟁입찰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L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 없이 참여 업체를 직접 초청하여 경쟁 입찰을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입찰과 동일</li> <li>제한된 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li> </ul>
국내경쟁입찰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국의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차입국 내 경쟁 입찰 -외국 업체 참여를 통한 경쟁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li> </ul>

\* 출처: WB(2011), *Guidelines: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Non-Consulting Service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1/01/16226753/guidelines-procurement-goods-works-non-consulting-services-under-ibrd-loans-ida-credits-grants-world-bank-borrowers>. (2015.6.15.)를 바탕으로 작성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은 총액지불(lump-sum), 단위가격(unit price)방식으로 지불되며, 실비정산 및 수수료 (reimbursement and fees) 방식은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대규모 발전시설 등과 같은 특수 공사의 경우, 턴키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턴키방식이 적용되는 대규모의 복잡한 공사나 급속한 기술적 진보로 기술방식에 대한 지침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입찰(two-stage bidding)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설계 혹은 성과물 구체화 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최종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대규모의 복잡한 공사에는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절차가 필요하며, 입찰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실적, 수행능력, 건설, 제조업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입찰서류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2-33]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며, 입찰 공고 후 일반적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의 입찰 준비기간을 준다.

[표 2-33] 물품 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의 입찰서류 목록

입찰서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문 (invitation to bid)</li> <li>• 입찰참가자에 대한 지침 및 정보 (instructions to bidders and bid data sheet)</li> <li>• 입찰 서류 서식 (form or letter of bid)</li> <li>• 계약서 서식 (form of contract)</li> <li>• 계약조건 (conditions of contract)</li> <li>• 규격 및 도안 (specifications and drawings)</li> <li>• 관련 기술 정보</li> <li>• 물품 구매 목록, 용량</li> <li>• 납품 스케줄 등</li> </ul>
<p>* 출처: WB(2011), <i>Guidelines: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Non-Consulting Service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mp;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i>, <a href="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1/01/16226753/guidelines-procurement-goods-works-non-consulting-services-under-ibrd-loans-ida-credits-grants-world-bank-borrowers">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1/01/16226753/guidelines-procurement-goods-works-non-consulting-services-under-ibrd-loans-ida-credits-grants-world-bank-borrowers</a>. (2015.6.15.)를 바탕으로 작성</p>

### 3) 미주개발은행(IDB)

#### ① IDB 그룹 개요

IDB 그룹은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Latin America and Caribbean) 지역에 개발 금융을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은행이다. 1959년 설립된 IDB, 1984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와 1993년 미주 지역 소규모 기업 기술, 투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등 3개 기관이 IDB 그룹을 구성한다. 2015년 현재 미주지역 역내 26 개 차입국(미국 및 캐나다 제외)과 22개 비차입국(미국, 캐나다 포함) 등 총 4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5년 47번째 회원국으로 IDB에 가입하였다.

#### ② IDB의 조달 기준

WB와 마찬가지로 IDB의 조달기준도 물품 구매 및 공사에 관한 조달 지침<sup>31)</sup>과 컨설턴트 선정을 위한 조달지침<sup>32)</sup>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WB의 두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며, 컨설턴트 선정 및 계약은 일반적으로 QCBS방식으로, 물품 구매 및 공사는 ICB 방식으로 추진된다. IDB의 조달 방식의 특이사항은 차입국의 조달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차입국의 조달 시스템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

31) IDB(2011), *Polic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financed by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N-2349-9*,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774392>, (2015.6.25.)

32) IDB(2011), *Polic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financed by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N-2349-9*,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774392>, (2015.6.25.)

국 조달 시스템 사용 승인에 관한 방안<sup>33)</sup>에 의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달 시스템을 갖춘 차입국의 경우, IDB에서 정하는 사업 규모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국의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을 진행할 수 있다. 조달의 기본 원칙, 이해관계 충돌, 조달 방식별 사업 절차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WB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IDB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컨설팅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국제입찰(ICB 또는 internal shortlist QCBS)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된 국제입찰 여부 결정 기준금액에 따른다.

[표 2-34] IDB 발주 공사 및 컨설팅 국제경쟁 입찰 기준 금액

국가	공사금액 (천\$)	컨설팅금액(천\$)	국가	공사금액 (천\$)	컨설팅금액(천\$)
	ICB 기준	international short-list		ICB 기준	international short-list
아르헨티나	5,000	500	가이아나	1,000	100
바하마	3,000	200	아이티	1,000	100
바바도스	3,000	200	온두라스	1,500	200
벨리즈	1,000	200	자메이카	1,500	200
볼리비아	3,000	200	멕시코	15,000	500
브라질	25,000	1,000	나카라과	1,500	200
칠레	5,000	500	파나마	3,000	200
콜롬비아	10,000	500	파라과이	3,000	200
코스타리카	3,000	200	페루	3,000	350
도미니카 공화국	3,000	200	수리남	1,000	100
에콰도르	3,000	200	트리니다드 토바고	3,000	200
엘살바도르	5,000	200	우르과이	3,000	200
과테말라	1,500	200	베네수엘라	5,000	350

\* 출처: IDB(2015), *IDB Threshold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 and Selection of Consulting Services*,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535540>. (2015.4.16.)

33) IDB(2013), *Guide for Acceptance of the Use of Country Procurement Systems*,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225030>. (2015.6.24.)



### ③ 중남미 국가별 조달 현황

IDB에 따르면 도시개발 부문 (Urban Development Sector)에서 1978년에서 2015년 5월까지 체결된 컨설팅 계약은 9,929건, 6.75억 달러 규모이다. 이 중 브라질이 452건, 3억 7,490만 달러 규모의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아르헨티나가 5,682건 5,540만 달러, 콜롬비아가 161건, 3,280만 달러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남미 회원 국가 소속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외국가 수주액은 121건, 5천9백만 달러로 전체 발주금액의 8.8%에 불과하다. 주요 해외 참여 국가로는 미국(55건), 스페인(21건), 캐나다(16건)이며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11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바 있다. 2010년 이후로 한정하면 2,407건, 3.46억 달러의 도시개발 분야 컨설팅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외 국가 소속 컨설턴트와 체결된 계약은 21건, 2.46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 0.7%에 불과하다.

[표 2-35] 도시개발 부문 컨설팅 용역 수주 컨설턴트의 국적별 현황

기간: 1978년~2015년 5월				2010년 1월~2015년 5월			
국가	계약금액 (US\$)	계약금액 비중(%)	계약 건수	국가	계약금액 (US\$)	계약금액 비중(%)	계약 건수
합계	675,707,135	100.0	9,929	합계	346,873,161	100.0	2,407
브라질	374,955,815	55.5	452	브라질	277,169,469	79.9	61
아르헨티나	55,422,908	8.2	5,682	아르헨티나	22,471,341	6.5	1,831
콜롬비아	32,831,257	4.9	161	파나마	15,643,593	4.5	3
엘살바도르	25,884,855	3.8	64	아이티	9,952,144	2.9	118
기타 중남미국	675,707,135	18.8	9,929	기타 중남미국	19,172,435	6.5	373
이탈리아	15,179,408	2.3	7	영국	1,073,000	0.3	1
미국	12,353,862	1.8	55	캐나다	559,665	0.2	5
프랑스	10,167,336	1.5	6	스페인	510,298	0.2	6
캐나다	7,156,425	1.1	16	미국	225,300	0.1	8
기타 해외국	14,860,243	2.2	37	프랑스	95,916	0.0	1

\* 출처: IDB(2015), "Projects", 「IDB」, <http://www.iadb.org/en/projects/projects,1229.html>. (2015.6.15.)

도시개발 및 주택 부문 컨설팅용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사업대상지역의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크므로 차입국의 개인 컨설턴트나 기업이 컨설팅 용역을 수주하는 경향이 높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와 기술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4) 아시아 개발은행(ADB)

##### ① ADB 개요

1966년 일본의 주도로 설립된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2015년 현재 아시아, 태평양지역 역내 48개국과 역외 19개국 등 총 6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sup>34)</sup>. 아시아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 다수의 중동국가들은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현재, 5.1%의 지분을 출자<sup>35)</sup>하고 있으며, 투표지분은 4.3%로 전체 회원국 중 8번째 수준이다. 회원국들은 일본, 호주 등 역내 선진국 그룹,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역내 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역외 선진국 그룹, 그리고 개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아지역 내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각 국가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ADB의 일반자금(Ordinary and Capital Resource, OCR<sup>36)</sup>)과 ADF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 등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sup>37)</sup>.

---

34) ADB(2015), "Organization : Members", 「ADB」, <http://www.adb.org/about/members>, (2015.06.12.)

35) ADB(2015), "Investor Information", 「ADB」, <http://www.adb.org/site/investors/credit-fundamentals/shareholders>, (2015.06.12.)

36) OCR은 ADB의 차관(loan)에 사용되는 자금

37) ADB (2013), *CLASSIFICATION AND GRADUATION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3/oma1.pdf>, (2015.6.26.)

[표 2-36] ADB 개발도상국 회원 구분

그룹	금융 지원 종류	국가명
그룹 A	ADF only	아프가니스탄, 부탄, 캄보디아, 키리바티, 키르키즈공화국, 라오스, 몰디브, 마셜제도, 미얀마, 나우루, 네팔, 사모아, 솔로몬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그룹 B	ADF, OCR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그루지아, 미크로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 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그룹 C	OCR only	아제르바이잔, 중국, 쿡 아일랜드, 피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graduated group	—	부르나이, 다루살람,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 출처: ADB (2013), *CLASSIFICATION AND GRADUATION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3/oma1.pdf>. (2015.6.26.)

## ② ADB의 조달 기준

### □ ADB 조달 기준

물품구매 및 공사에 관한 조달은 ADB 조달 기준(Procurement Guideline)에 의하여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WB의 조달 기준과 같다. 이해관계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조달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제약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컨설턴트사용 기준에서 다른 다자간은행과 동일하게 공사 수행 후 관련 컨설팅 용역 수행 또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후속 공사 수행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ADB 건설공사의 국제경쟁입찰 기준금액([표 2-37])은 IDB의 기준 금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IDB의 최저 기준은 100만 달러 수준이나, ADB는 부탄, 캄보디아 등 최극빈국 기준 300만 달러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이 중남미지역과 비교하여 해외 기업의 MDB발주 건설공사 및 컨설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이다.

컨설팅용역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위한 별도의 기준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다. ADB 컨설턴트사용기준<sup>38)</sup>에 의하면, 국제 컨설턴트의 참여가 요구되는 기준금액은 프로젝트의 성격, 해당국 컨설턴트의 기술력, 과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다만 해당기준은 각 국가별 조달 평가 보고서 상에서 정해진 기준금액(ceiling)을 초과할 수는 없다.

38) ADB(2013),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sian Development Bank and Its Borrowers*,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1/guidelines-use-consultants.pdf>. (2015.6.26.)

[표 2-37] ABD의 국가별 건설공사 국제경쟁 입찰 기준 금액

ICB 기준 공사금액	국 가
3백만 달러	부탄, 캄보디아, 쿡 아일랜드, 피지, 미크로네시아, 키르키즈 공화국,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나우루, 팔라우, 마셜 군도, 사모아, 솔로몬 군도, 타지키스탄, 티모르, 투루크메니스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5백만 달러	아프카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몽골, 네팔, 파푸아 뉴기니, 우즈베키스탄
10백만 달러	카자흐스탄, 베트남
15백만 달러	방글라데시, 파크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25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40백만 달러	인도, 중국

\* 출처: ADB (2014), *Project Administration Instructions 3.03: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Appendix 2,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3431/pai-3-03.pdf>, (2015.6.27.)

컨설턴트 선정 절차는 WB 또는 IDB의 경우와 유사하나, 차관과 기술지원이 복합된 경우와 기술지원 사업은 컨설턴트 선정 후 계약 전 협상 여부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다르다. QBS 컨설턴트 선정 절차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선정된 컨설턴트에 대한 가격제안서 요청 주체에 따라 계약 절차가 일부 차이가 있다.

[표 2-38] QBS 컨설턴트 선정 절차

절차	차관 & 기술지원	기술지원
1	과업지시서(TOR) 준비 및 비용 계산	
2	공고	
3	참여 가능 컨설턴트 모집: 사업참여의향서 접수(preparing a long list consultants)	
4	RFP 준비 및 경쟁입찰 참여 업체 선정 (shortlist)	
ADB 1차 보고(제출)		
5	RFP 공고	
6	제안서 접수	
7	기술제안서 평가	
ADB 2차 보고(제출)		
8	차입국이 기술제안서 최고점자에게 가격 제안서 요구	ADB이 기술제안서 최고점자에게 가격 제안서 요구
9	협상 및 계약서(안) 준비	협상
10	계약 체결	계약 체결
11	ADB로 체결된 계약서 송부	
12	계약승인 공고	계약승인 공고

\* 출처: ADB (2013),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sian Development Bank and Its Borrowers*, p35,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1/guidelines-use-consultants.pdf>, (2015.6.26.)

[표 2-39] QBCS 컨설턴트 선정 절차

절차	차관 & 기술지원	기술지원
1	과업지시서(TOR) 준비 및 비용 계산	
2	공고	
3	참여 가능 컨설턴트 모집: 사업참여의향서 접수(preparing a long list consultants)	
4	RFP 준비 및 경쟁입찰 참여 업체 선정 (shortlist)	
ADB 1차 보고(제출)		
5	RFP 공고	
6	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7	기술제안서 평가	
ADB 2차 보고(제출)		
8	가격제안서 공개	
9	최종 평가	
10	제안서 순위 산정	
ADB 3차 보고(제출)		
11	ADB으로 체결된 계약서 송부	협상 및 계약 체결
12	계약승인 공고	계약승인 공고
13	복명 (Debriefing)	

\* 출처: ADB (2013),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sian Development Bank and Its Borrowers*, p35,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1/guidelines-use-consultants.pdf>. (2015.6.26.)

컨설팅사업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는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따른다. (1)인력중심 기술제안서(biodata technical proposal: BTP), (2)종합기술제안서(full technical proposal: FTP), (3)약식 기술제안서(simplified technical proposal: STP).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예시는 [표 2-40]에서 [표 2-42]와 같다.

[표 2-40] 인력 중심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항 목	배점 예시
1. 스케줄 및 운영 방안 (staffing schedule and work plan)	100
2. 인적 평가 (700)	900
a. 추천된 국제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
b. 추천된 국내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
총 계	1,000

\* 출처: ADB(2008). *Consulting Services Operations Manual*, p.55,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340/csom.pdf>. (2015.6.27.)

[표 2-41]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항 목			배점 예시
1. 제안자의 적격성 (100-200)	a.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70
	b. 유사 지역 내 사업 실적		50
	c. 추가적인 관련 평가 기준 (선택 항목)		30
2. 방법론 (200-400)	a. 목적의 이해		40
	b. 방법론의 질적 수준		80
	c. 혁신성 (과업지시서에 대한 comment)		40
	d. 운영 방안 (work program)		70
	e. 인적 스케줄 (personel schedule)		30
	f. 관련 장비 (counterpart facilities)		20
	g 제안서 준비		20
3. 인적 평가 (500-700)	a. 추천된 국제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팀 리더십	50
		도로공학자	80
		교통경제학자	90
		환경전문가	80
		사회/빈곤 전문가	100
	b. 추천된 국내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도로공학자	40
		교통경제학자	40
		환경 전문가	35
		사회/빈곤 전문가	35
총 계			1,000

\* 출처: ADB(2008). *Consulting Services Operations Manual*, p54,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340/csom.pdf>. (2015.6.27.)

[표 2-42] 약식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예시

항 목	배점 예시
1. 방법론 (300)	300
a. 방법론 및 운영 방안 (approach and work program)	200
b. 인적 스케줄 (personnel schedule)	50
c. 발 표 (presentation)	50
2. 인적 평가 (700)	700
a. 추천된 국제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b. 추천된 국내 컨설턴트 (개인별 평가)	
총 계	1,000

\* 출처: ADB(2008). *Consulting Services Operations Manual*, p.55,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340/csom.pdf>. (2015.6.27.)

## 5) MDB 발주 사업의 참여 기준

MDB 발주 사업의 참가 자격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사업의 규모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원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 경험이 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본 평가항목에서 보듯이 회사의 실적과 함께 참여하는 핵심 인력의 실적 역시 중요하다.

다수의 MDB 사업이 완전한 경쟁보다는 제한된 경쟁에 의해 발주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검증된 업체(Pre-qualified)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에 따라 자격이 천차만별이다. 다만 관련 사업의 참여 횟수보다는 사업의 규모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수의 사업이 수원국 기업간의 경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공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3] ADB 사업 참가자 자격 요건 사례

사업명	자격요건
Bagladesh City Region Development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쟁 입찰</li> <li>• 관련 경력 : 최근 5년간 최소 1개의 관련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프로젝트 가치 : DBT 75,000,000(약 97만 달러)</li> </ul> </li> <li>• 연간 평균 매출액 : 최근 5년간 평균 DBT 180,000,000 (약 232만 달러)이상</li> <li>• 유동자산 및 신용 거래 : 최소 DBT 30,000,000(약 38만 달러)</li> </ul>
China Liaoning Small Cities and Towns Development Demonstration Sector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경쟁 입찰</li> <li>• 연간 평균 매출액 : 최근 3년간 평균 CNY 30,000,000 (약 467만 달러)이상</li> </ul>

\* 출처: ADB(2015). Loan No. 2695-BAN(SF) : City Region Development Project Invitation for Bid,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ban2695-eGP-BAGERHAT-W01.pdf>. (2015.11.21.)

+ 출처 : ADB(2015). Loan No. 2695-BAN(SF) : Liaoning Small Cities and Towns Development Demonstration Sector Project Invitation for Bid,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prc2550-B-XFW3.pdf>. (2015.11.21.)





## 제3장 ODA 정책과 기존 연구

1. 건축 및 도시 ODA 정책과 기존 연구 방향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3. 정책 평가와 시사점

### 1. 건축 및 도시 ODA 정책과 기존 연구 방향

국가 ODA정책의 방향은 특정 산업보다는 전체적인 ODA의 추진목표와 효율성 향상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개별 산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 국제시장에서의 위치, 국내 여건 등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므로 ODA 기본정책과 상충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 ODA의 기본 정책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우리나라 ODA정책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방향은 MDGs 달성과 성과 관리의 효율성 향상, ODA 집행 기관별 사업의 중복이나 단절로 인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 방지(특히 EDCF와 KOICA간의 유·무상 원조 연계),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기술협력, 정책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협력 사업의 강화,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의 향상, 인적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sup>39)</sup>.

우리나라 ODA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이슈(환경, 여성인권 등)의 6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 편성([표 2-4] 참조) 역시 6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건축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산업에너지 분야인데 단일 분야로는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

39) 한국개발연구원(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ODA 분야 보고서 - 」, 국가재정운용계획 ODA분야 작업반.

보면 사업의 상당부분이 교통·물류 분야와 수자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도시개발과 건축 분야의 비중은 낮다.

#### □ 원조 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추진 정책<sup>40)</sup>

정부는 중점지원 분야의 설정 및 예산 배분과 더불어 원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PS 수립
  - 국가협력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사업 발굴 및 선정 절차 개선
  - 정부는 사업 발굴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보다는 정부부처간의 협의와 정보 공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유·무상 원조 연계
  - 유·무상 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는 1. 개발조사(무상)+프로젝트(유상), 2. 프로젝트(유상)+프로젝트(무상), 3. 동일 지역 내 연계(유·무상 공동 현지조사)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민관 협력 강화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연계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EDCF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부수적인 공공사업을 지원하거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EDCF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비구속성 원조 비율 제고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2007년 이후 급격히 비구속 원조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전체 사업의 55.1%가 비구속성 사업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강화
  - 26개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재외 공관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개발협력 동향과 사업별 진행사항 및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

40) ODA Korea (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 (2015.2.18.)

- 국제 협력 강화
  -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와 지역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MDB에 대한 협조용자 규모를 늘려 우리나라의 MDB내 지위 강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ODA 평가 역량 강화
  - 독립된 평가조직의 설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대상국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원조시스템 개편을 위한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ODA운영의 약점을 3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정부 자체의 ODA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단계부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유·무상 원조의 유기적인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셋째, 정보 수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국과의 협력 및 국제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 3가지 약점은 다음에 서술할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과 일정부분 상통하고 있다.

#### □ 건축 및 도시설계 산업을 위한 ODA활용 정책<sup>41)</sup>

권영상 외(2015)는 단순 시공 및 플랜트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돌파구로써 건축도시설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본전략과 방안을 4가지의 큰 범위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도시설계 산업이 ODA를 기반으로 국내 양자간 ODA사업-〉다자간 MDB사업-〉타 국가 비구속성 ODA사업-〉국제기구 투자 사업-〉현지국가 재정 및 발주 사업 순으로 해외진출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해 우리기업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마스터플랜 중심의 해외진출을 통해 후속사업과의 연계와 인프라 형성을 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진출 관련 정보와 금융지원을 위해 건축도시설계에 특화된 정보로 사업 대상지의 법률, 규제사항, 시장 수요, 재료의 규격과 성능, 인력 조달비용 등 시장 정보 수집과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복합금융과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건축도시설계 기

41)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업을 위한 금융 지원체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재 여러 기관을 분산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조정할 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지원할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사업기획과 조정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부와 대학원에 건축도시설계에 특화된 과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건축과 도시문화에 대한 홍보 기구 설치, 설계·컨설팅 단가의 국제화, 기업의 국제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가 양성을 제안하였다.

[표 3-1] 건축·도시설계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방안

전략	방안
다차원 협력형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사업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li> <li>마스터플랜 중심의 해외진출 방안 수립</li> </ul>
해외진출 정보 및 금융지원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국별 건축·도시 시장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제공 기반 구축</li> <li>건축도시설계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금융 지원체계 개발</li> </ul>
해외진출 지원 총괄기구 설치 및 협력관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지원 총괄기구 설치</li> <li>해외진출 관련 기관 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li> </ul>
해외도시개발 관련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 육성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도시설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li> <li>건축·도시문화 홍보 및 건축도시설계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li> </ul>

\* 출처: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p.4~6. 재정리

## 2)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존 연구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건축과 도시개발 분야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다수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건축과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곧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개선 부문이면서 ODA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성장환 외(2012)<sup>42)</sup>는 우리기업이 향후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도

42) 성장환 외(2012),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연구지원 2012-04, 토지주택연구원.

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자원부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및 신도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외도시개발사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 세계 사업의 80%가 진행되고 있으며, CIS, 아프리카, 아시아 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선정된 국가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아시아 중심의 진출과 더불어 중남미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고려하고, 중동·북아프리카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지역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상당수 지역이 국토기본계획 등 장기 계획이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진출가능 국가에 대해 우리가 장기적인 진출 로드맵 작성과 R&D를 포함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진철 외(2010)<sup>43)</sup>는 해외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ODA와 민관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ODA가 해외진출의 그 자체이기 보다는 더 큰 사업 또는 지역개발은 행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전략의 핵심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기존의 ODA를 개별국가 중심의 CPS보다는 지역지원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넓혀 나가고, 건설위주의 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시장으로 다변화 할 것을 주장했다.

조진철 외(2010)는 크게 4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계획역량의 강화로 ODA를 계획수립 등 개발프로세스의 일부로 활용할 것과 국내적으로는 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사업을 위한 발굴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다자간 지원의 확대를 통해 ODA의 활용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MDB나 국제기구에 Korea Trust Fund(이하 KTF)의 지원을 확대하고, MDB 사업과 MDB가 지원하는 수원국의 발주 사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계획수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번째는 민관협력 해외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우리의 해외개발 네트워크가 약함을 지적하며, 기존의 초청연수, 해외 공무원, 봉사단 등의 해외인력 파견, NGO, 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기존 네트워크 형성 사업, 민간 기업을 모두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

---

43) 조진철 외(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Ⅲ)」, 국토연 2010-37, 국토연구원

을 제안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ODA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네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규모가 크며 공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유연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을 총괄하고 통합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 역시 제안하였다.

유광흠 외(2013)<sup>44)</sup>는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와 국내·외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관련 기업의 종합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의 위험 부담으로 인해 거의 진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가지 중점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안으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화별, 국가별 기초정보의 조사, 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 외국의 관련 법령 조사, 표준계약서 등의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수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진출대상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현실과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조차 개별 기업의 능력으로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도상국 사업의 특성상 자금이 부족하므로 해외자금을 조달할 방안과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보증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비용 지원 역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해 양자 유·무상 사업과 MDB 사업 등 ODA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우 일정비율의 자금을 건축서비스 분야에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지네트워

---

44) 유광흠 외(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제도 개선연구」, AURI-기본-2013-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크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 계약, 법률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해외사업의 브랜드화와 우리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사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인력양성은 분야별로 특화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관련된 교육지원 체계와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해외사업 유경험자의 체계적인 경험 전수와 전문인력 pool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중점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광흠 외(2013)는 해외 지원업무를 통합하고, 전담기구를 두어 행정, 홍보, DB 구축, 정보수집 및 활용, 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 마련과 해외건설 금융 전담기구의 설치 역시 제시하였다.

차주영 외(2013)<sup>45)</sup>는 국내외 건축서비스 진흥과 관련된 법령과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적으로 ①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 ③ 정보제공 및 상담·협조, ④ 한국 건축가 홍보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4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광흠 외(2013)의 연구와 차주영 외(2013)의 연구는 건축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창무 외(2010)<sup>46)</sup>는 해외도시개발관련 정부정책과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공기업의 해외도시수출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면에서 제도개선과 세부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조직, 인력, 교육 추진체계 제도개선
  - 정부지원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신고와 지원 기준 마련, 해외건설촉진법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촉진 조항 신설, 컨트롤 타워 구축
  -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참여 확대
  - 정보 수집 및 관리 분석을 위한 one-stop 정보 포털 구축

45) 차주영 외(201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AURI-정책-2013-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6) 정창무 외(2010),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문교육과 상대국 이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금융, 세제, 리스크 관련 부문 제도개선
  - 공공자금의 금융지원대상을 해외도시개발로 확대
  - 사업초기, 시공, 운영 등 개발단계별 금융지원 방안 마련
  - Package deal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의 연계
  - 현실적 세액 공제 혜택과 해외파견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 세제지원확대
- PM, 설계, 계약, 시공 등 기술부문 제도개선
  - 한국형 도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화 단계 이전 지원체계 구축
  - 건설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 엔지니어링 및 시공 능력 강화
  - 해외 건설 리스크 저감 대책 개발
- 홍보, 마케팅, 네트워킹 부문 제도개선
  - 해외 각국 및 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사회와 정부에 적응과 홍보 강화
  - ODA의 활용을 통해 개별사업에서 연계된 사업으로 확대 필요

정창무 외(2013)<sup>47)</sup>는 해외의 도시개발 패키지 사업과 국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소개하고, 가능성 있는 대상국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패키지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재정과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지원정책으로 국내의 정책 이 해도와 참여확대를 위해 정책홍보, 해외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진출 대상국 관계자와 국내 관계자 모두를 위한 상품 브로셔의 제작을 제안하였다. 해외도시개발관련 업무를 전담할 해외도시개발정책관 및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할 해외도시개발전권대사를 통해 협의의 일관성과 신속함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융 분야에서는 해외도시개발펀드 조성과 해외도시개발 전담 금융기구의 설립을 통

---

47) 정창무 외(2013),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해외사업의 보증 능력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시스템과 민관공동컨소시엄 구축, 경쟁력확보와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및 공정복합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플랫폼 설립을 제시하였다.

김민영(2013)<sup>48)</sup>은 ODA에서 언타이드화의 확대에 따른 영향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분석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언타이드화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90%의 ODA사업이 언타이드로 발주되는데 비해 일본 기업의 수주율은 30%에 불과하였다. 여러 타국가의 경우 언타이드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국의 전략산업과 전략지역에 대한 지원과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자국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언타이드화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민관협력사업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협력과 유상지원 연계,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수출, 기술협력,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통한 네트워크 수립을 통해 ODA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우리 업계의 수주 감소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창구 외(2010)<sup>49)</sup>는 주요 MDB의 구성과 프로젝트 운영, 수주관련 사항, 민관협력 정책과 개발도상국의 민관협력 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MDB의 투자와 개발차관을 활용하여 건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강점으로 IT기술을 활용한 U-City 등 하이테크 도시개발 능력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종합건설사 중심의 시장 발전으로 건설과 개발이 분리·운영되지 못해 개발 능력의 부재, 세계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곤란,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할만한 개발자(developer)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MDB 발주 사업에 대한 진출이 부진하고, 세계 건설시장이 도급형 사업에서 사업자 주도형 투자 사업으로 변화함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MDB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은 직접 대규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MDB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MDB(또는 수원국)발주 사업에 시공자나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실적 쌓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단독 투자가 어려우므로 국내 또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에 참여하거나, 국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48) 김민영(2013),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9) 정창구 외(2010),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을 구성하여 MDB 사업에 참여 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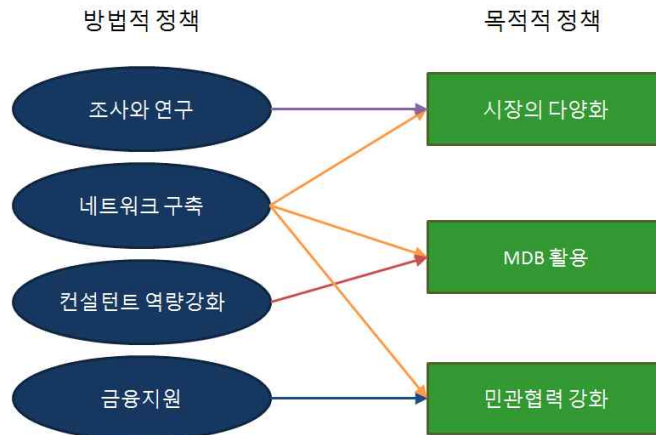
MDB 사업을 포함한 ODA사업과 해외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구축을 통해 MDB시장 진출을 촉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정보수집 및 제공, 관련 제도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pool 구축, 법률 및 부처 협의 등의 업무, 민관협력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관협력사업과 EDCF 지원을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DCF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직접 대출 또는 출자를 한다든지, 개도국 정부의 건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민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MDB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의 MDB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MDB와의 실무 자급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법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기존 연구의 제안을 분석하면 크게 시장의 다양화,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금융지원, 민관협력강화, MDB 활용의 7개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컨트롤 타워와 같은 조직체계의 구축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된 사항이긴 하지만, 건축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독자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하기엔 다소 분야가 좁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 설립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7가지의 주요 방안을 분류하면 목적으로서의 방안과 방법으로서의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의 다양화와 MDB의 활용, 민관협력강화는 해외진출이라는 목적의 일환이다. 반면에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금융지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방법적 정책과 목적적 정책의 상관관계

\* 출처 : 저자 작성

두 그룹의 정책들은 모두 상호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그룹의 정책들 간에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안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MD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민관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각 그룹별 정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적 방안

### □ 시장의 다양화<sup>50)</sup>

전 세계 해외도시개발사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체 사업의 80%가 진행되고 있으며, CIS, 아프리카, 아시아 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2] 해외도시개발사업의 규모(전 세계 기준)

지역	투자규모		계획인구		면적	
	억 달러	%	만 명	%	km <sup>2</sup>	%
중동/북아프리카	7,520	80	1,483	75	1,373	61
아시아	463	5	115	6	105	5
CIS	827	9	52	3	97	4
아프리카	513	6	324	16	681	30
합계	8,810	100	1650	100	1,575	100

\* 출처 : 성장환 외(2012),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연구지원 2012-04, 토지주택연구원, p.12.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친환경·그린 에너지 개념의 도시개발사업과 주거중심 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신도시 건설, 아프리카는 주거중심 복합도시, CIS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진출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걸림돌이 되는 문제 역시 가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개발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중동/북아프리카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과열된 시장 그리고 종교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불안한 정치 및 경제 상황이 고질적인 문제이며, CIS지역은 특유의 폐쇄적인 사회분위기와 법제도의 미비가 문제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국토기본계획 등의 상위/장기 계획 등이 없이 개발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계획 수립 노하우를 전수하고 장기 로드맵 작성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매개로 자원-도시개발을 교환하는 방식의 진출도 가능하다.

50) 성장환 외(2012),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연구지원 2012-04, 토지주택연구원.

## □ 민관협력 강화<sup>51)</sup>

민관협력 강화는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문이다. 좁은 범위의 민관협력 강화는 정부 ODA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을 말하지만, 넓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고, 책임과 역할을 분배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높이는 사업방안이다<sup>52)</sup>. 따라서 민관협력 강화란 넓게 보면 앞에 기술한 정책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관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표 3-3] 아시아 주요 협력국의 민관협력사업 확대 계획

국가	주요 내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9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전담 기구(PPP Center) 설치</li> <li>- 2013년 2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심 49개 추진 사업 제시</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1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Decision 71) 제정</li> <li>- 2015년까지 교통 인프라에 400억 달러 투자 계획 수립</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기금 및 대출 기관 설립, 토지 수용 기준 등 민간투자제도 정비</li> <li>- 우선 추진 26개 포함 총 58개 사업을 등재한 “PPP Book 2012” 발간</li> </ul>

\* 출처 : 김민형(2013), 「ODA 엔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관협력사업은 ODA만으로는 부족한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대상국 역시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역시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들이 일부 투자하는 건설-운영-양도(Build-Operate-Transfer: BOT)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상원조와 민간투자, EDCF 투자를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즉 마스터플랜은 무상원조로, 이후 우량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DCF의 사업타당성 검토 역량의 강화와 일반 EDCF지원 절차와는 차별화된 지원 절차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정부 제안을 통해 EDCF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51) 김민형(2013), 「ODA 엔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2) 박예지(2012),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와 ODA의 역할”, 「한국의 개발협력」, 제1권, 한국수출입은행.

#### □ MDB 활용<sup>53)</sup>

해외진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MDB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MDB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MDB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MDB의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민관협력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민관협력사업에 MDB를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개발협력의 주요 추세인 민간협력 강화와 민간투자 촉진의 흐름에 부흥한다고 할 수 있으며, Post-2015 체제의 '핵심 분야에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타 분야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고려할 때 더욱 유용한 방안이다. MDB를 기업의 사업,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설관련 사업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에 상존하는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 후 대외적인 평가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다른 전략으로 MDB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 ODA 목적에 부흥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MDB에 사업을 제안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 때 MDB로부터 큰 규모의 사업비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업진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MDB가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을 쌓는 것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독 참여가 힘든 사업의 경우 국내나 현지의 타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대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해 함께 진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MDB시장 진입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해외진출을 총괄할 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다소 부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과에서 건설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맡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과 MDB업무를 연계하여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MDB 전문가 역시 부족한데, MDB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MDB와의 정기교류와 실무자급 인력의 파견을 통해 빠른 정보수집과 사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53) 정창구 외(2010),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 2) 방법적 방안

### □ 네트워크 구축<sup>54)</sup>

네트워크 구축은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존재하나 대표적으로 MDB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받는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두 가지 있다. 먼저 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입찰정보의 획득과 같은 일차적인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비록 MDB는 직접적으로 수주기업을 선정하지는 않지만, 입찰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입찰자격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지 도시개발 협회 및 건축협회, 전문가 교류,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 현지 사회의 인정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개별 기업이 전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과 협의를 위한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 있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현지 홍보가 요구된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국과의 우호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초청사업의 강화,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지원, 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현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가간 공영개발 거버넌스, 도시관리 거버넌스, 개발금융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대 국가의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참여 사례로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공기업인 투자청을 통해 해외개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NGO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NGO를 활용하는 방안은 시민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NGO를 통한 원조비율이 높은데, NGO는 소외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54) 조진철 외(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Ⅲ)」, 국토연 2010-37, 국토연구원.

#### □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sup>55)</sup>

해외진출이란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비슷한 문화권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당사국에 대한 사전 정보, 현지 특성 조사는 중요하며, 현지 문화 및 국가별 기초정보, 현지 산업 동향, 관련 법령, 표준계약서,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적인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현지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제공, 해외 진출을 위해 사용할 표준계약서 등의 서식과 규정, 규격, 기준 등의 마련과 영문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업무를 개별 기업이 모두 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은 현지 공관, 현지 주민, 현지 업체 등 국내외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자료 소스를 관리하고 정리·분석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할 단일한 창구<sup>56)</sup>가 필요하며,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전문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sup>57)58)</sup>

엔지니어링 분야가 사업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낮다(3~5%). 그러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사업의 방향과 어느 기업 또는 어느 국가의 기업이 수주를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 전문인력,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해외 기업과는 경쟁력에서 열세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국제표준과 괴리된 국내 기준 및 법 제도의 유지와 해외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선 과제이다.

시공부문에 비해 취약한 엔지니어링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종합건설사 위주의 해외 진출이 아닌 전문 업체에 의한 분화된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 이전 단계, 즉

55) 유광홍 외(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제도 개선연구」, AURI-기본-2013-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6) 차주영 외(201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AURI-정책-2013-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7) 조진철 외(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Ⅲ)」, 국토연 2010-37, 국토연구원

58) 정창무 외(2010),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발굴 단계의 역량 강화와 이를 지원할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 시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외전문 인력은 국내전문 인력과 달리 해외 진출을 위한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포용성을 관련 분야 전문성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내외를 망라한 전문가 pool의 구축이 필요하며, 해외 사업 경험을 전수할 전문기관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KOICA가 개발협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괄을 가르치고 있으며,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부문은 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이나 도시개발에 특화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 금융지원<sup>59)</sup>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민간의 진출은 위험도가 훨씬 높다. 이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민간의 투자와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험 분산과 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녹색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등이 있으나, 건축 및 도시개발 업계의 이용은 저조하다. 건축과 도시개발 업계는 타 분야보다 높은 위험도로 인해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지원 역시 받기 힘들다. 따라서 특화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지원 서비스는 사업의 초기단계인 시장조사 및 사업 발굴 단계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시장조사와 사업 발굴 단계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없는 분야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지원은 사업 당 평균 4,000만원에 불과하여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미국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이하 USTDA)처럼 타당성 조사, 사전방문, 워크숍, 기술원조 등을 묶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시공, 운영의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59) 유광흠 외(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제도 개선연구」, AURI-기본-2013-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의 특성상 위험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특히 도시개발의 경우 규모가 커 보증 규모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당수 엔지니어링 업체가 중소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도 기업의 담보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보증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증발급 시스템을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 위주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sup>60)</sup>.

---

60) 정창무 외(2010),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정책 평가와 시사점

#### 1) 기존연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평가

기존 연구와 정부 ODA정책 사이에는 쉽게 연결 고리를 찾기가 힘들다. 이는 해외 건축 및 도시개발사업과 ODA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이를 통한 빈곤 해결 및 자립이 주목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사업구조 다양화와 이익증대가 우선 목적이 지, 수원국의 빈곤해결과 자립 등의 공익 목적을 우선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조달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ODA를 국내 건축업계가 겪고 있는 침체를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야별로 ODA사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Post-2015 개발의제와 ODA 정책 방향의 변화

ODA 정책 방향은 향후 MDGs 목표에서 Post-2015개발의제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 Post-2015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합의 되고, 무엇이 주안점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ODA전략과 지원 우선순위도 변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과 친환경이 핵심 주제이다.

SDGs의 도시분야(목표 11) 세부 목표에서는 충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의 제공과 빈민촌 업그레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지속가능한 정주 계획 수립 및 관리,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녹지 공유공간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 중심의 건축 사업과 도시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분야 목표는 지속가능 이란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즉 쉽게 수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조달하기 쉬운 물품을 활용할 것과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입찰 제안서 등의 사업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친환경의 강조로 인해 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개발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등의 문제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SGDs 도시부문 목표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 및 빈민촌 업그레이드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인구의 요구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 계획 수립 및 관리 증진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강화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재해에 의해 야기된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경감하고, GDP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x%까지 경감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지자체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 1인당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경감
11.7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녹색 공유 공간의 여성과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에 주안점을 둔 전면적인 제공
11.a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사회·환경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지원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재해 회복력, 향후 수립될 『효고 프레임워크20』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의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입 및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의 x% 증대
11.c	현지 물품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축을 위해 최빈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 출처: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 초안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p.29.

## ② 건축·도시설계 산업을 위한 ODA활용 정책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해외진출 전략은 ODA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해외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충분한 역량과 적합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안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보 수집과 제공, 인력 양성, 컨트론타워 설치, 금융지원 등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제안은 ODA의 활용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로드맵을 통해 제

시하고 있고, 여러 지원방안들이 ODA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제안되고 있으며, OD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목적적 제안의 평가

#### □ 시장의 다양화

전 세계 해외도시개발사업의 80%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ODA정책상 중요시 되는 지역은 아시아(54%)와 아프리카(20%)이다. 또한 전체 ODA투자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고, 아시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뒤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전체 ODA자금의 31%와 MDB 자금의 47%가 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ODA 총 투자액이 건축과 도시개발 관련 자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ODA관련 투자는 아프리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지역별 총 ODA 투자금액(전 세계, 지출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중동/북아프리카	12,176.6 (2,913.3)	15,448.2 (2,906.0)	13,757.1 (3,961.5)	25,619.2 (3,691.7)
아프리카	43,699.7 (16,766.0)	45,642.9 (16,320.6)	44,618.5 (16,941.4)	45,212.4 (18,695.7)
북/중앙 아메리카	6,871.8 (2,064.9)	5,957.8 (1,914.8)	4,710.8 (1,639.0)	4,625.5 (1,866.1)
남아메리카	3,082.5 (876.6)	4,259.3 (1,064.4)	4,279.5 (1,104.1)	3,931.8 (1,000.2)
아시아	26,135.8 (6,265.8)	25,436.9 (6,345.6)	23,860.1 (5,814.0)	26,457.3 (6,643.3)
유럽	5,872.1 (2,595.0)	8,989.6 (6,150.6)	8,093.5 (5,857.6)	7,480.5 (5,250.5)
오세아니아	2,018.2 (251.6)	2,230.6 (246.3)	2,138.3 (290.0)	2,148.5 (386.3)
기타	27,804.5 (2,422.0)	28,716.8 (2,491.3)	27,612.6 (2,320.1)	30,213.1 (2,533.6)

\* 출처: OECD(2015), “ODA 통계”, 「QWIDS」, <http://stats.oecd.org/qwids/>. (2015.4.11.)

단순히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면 중동/북아프리카가 중시되어야 하겠으나, ODA를 해외진출의 교두부로 삼으려한다면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좀 더 매력적인 지역이다. 특히 문화적·지리적 근접성과 아시아지역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ODA 정책을 고려할 때 아시

아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역시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아프리카 지역 역시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 민관협력 강화

ODA 기본 정책 역시 민관협력의 강화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Post-2015개발의제 논의에서는 공공재원을 개발도상국 빈곤해결과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과 민간자본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자본에 의한 에너지, 인프라, 교통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sup>61)</sup>. 따라서 민관협력 사업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EDCF의 경우 민간 기업이 직접 차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용자 종류는 민자사업차관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5백만 달러 이하)이 있다. 이마저도 건축분야는 단독으로 ODA사업에 참여할 분야가 없으며, 도시개발의 경우 사업비가 커서 ODA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존 연구는 민관협력사업과 무상원조와 EDCF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과 사업 제안을 우리정부나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 사업연계 방안은 ODA를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제안이지만,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민간업체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과 고민이 필요하다.

#### □ MDB 활용

MDB활용 방안은 기존의 다른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MDB를 민관협력사업에 연계하거나 EDCF 투자와 연계하는 것도 무상원조의 방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전문인력 부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역시 특별히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MDB사업과 KOICA사업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OD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여건이 대동소이하게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이 MDB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다. MDB는 기본적으로

61) 출처 :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v22, KOICA, p.8.

ODA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MDB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기전략을 구상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MDB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④ 방법적 제안의 평가

##### □ 네트워크 구축

기존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 국가 간 네트워크, 민간과의 네트워크의 3가지 네트워크 구축을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상 3분야 모두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KOICA는 ODA사업과 관련하여 수원국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사업과 연수생을 초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KOICA와 EDCF에서 NGOs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 관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건축 업계의 네트워크로 연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해 국내 초청사업의 강화나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강화, ADB 일본장학금프로그램(ADB-Japanese Scholarship Program: ADB-JSP) 과 같은 장학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KOICA등의 국가 기관과 수원국간의 네트워크는 강화되지만 이것이 건축업계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시 된다. 이는 국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건축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업 전 분야에 대한 것이며, 특히 건축이 사업의 주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초청인원은 주 사업 분야 담당자들이 주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건물을 지원하는 부문이 있다면 건축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 초청 인원은 대부분 교육 분야 담당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별개로 건축업계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이 절실하다. 이런 네트워크 구축은 ODA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형성과 입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앞에서 살펴본 Post-2015개발의제 체제하에서는 현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의 활용과 원조사업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전 연구는 조사와 연구를 위해 자료의 구축과 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표준 영문 계약서 등 서식과 규정의 영문화 작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의 조사와 분석, 제공을 전담할 단일 창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협회차원에서 6개 국가에 지부를 설립하여 자료 수집 및 현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주 지원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지원 역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한 지부가 6개 국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문이며, Post-2015 체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현지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ODA사업과 관련해서는 KOICA 현지사무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 및 건설은 관련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런 조사와 연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ODA 목표체제 아래에서 ODA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지 조사 및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전문가 양성)

기존 연구는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표준 준수와 함께 전문업체 중심의 분화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ODA와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ODA에서 점점 중요시 되는 분야가 기술지원 분야이며, 수원국도 기술지원 분야에 지원되는 자금을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지원과정에서 형성된 업체와 수원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 사업이나 민자 사업에 추가적인 자문 제공이나 기술정보, 업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나 ODA사업에서는 기술지원을 제공한 사업체는 시공 등의 이후 과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술지원을 전담할 업체와 시공을 전담할 업체 등 전문화와 업무분담, 상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업무 분담 체계는 업체 입장



에서는 자신들의 수익 분야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상위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외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는 ODA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와는 약간 방향이 다르다. ODA는 일반적인 해외사업과 달리 수원국(사업발주기관)과 시행 업체 외에 공여국 관계기관(KOICA 등)이 하나 더 있는 체계이다. 그리고 업체와 수원국간의 합의보다는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합의 사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ODA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일반 사업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ODA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없다.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은 해외건설실무를 위한 교육이지, ODA사업을 위한 교육은 아니다. ODA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 KOICA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ODA 전반에 관한 교육이지 건축 또는 건설 산업에 특화된 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해외건축 및 건설사업 교육과 ODA 교육을 적절히 융합하여 ODA와 관련된 건축 및 건설 사업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ODA사업의 특성상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 ODA 유경험자의 지식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사업 전문가 pool뿐만 아니라 ODA사업 전문가 pool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금융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자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의 대부분을 공여국에서 부담하는 ODA사업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EDCF에서 다양한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의 경우 5백만달러 이하에 한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나 개발도상국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관은 모두 ODA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무상원조는 절차상 수원국에서 직접 제안을 하는 사업에 한해 공여국에서 타당성 검토 후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차관은 적절한 사업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공고가 될 때 까지 기업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여국의 ODA 기관에서 적절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ODA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사업 발굴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ODA에 적합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원은 민간에서 사업발굴에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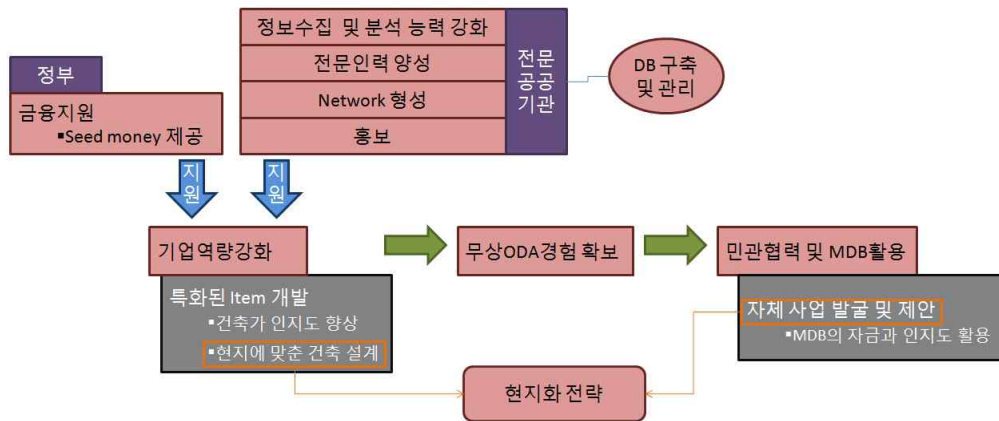
## 2)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ODA정책과 기존 연구의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관협력의 확대와 MDB와 협력 강화이며, 비구속성 사업의 확대는 부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Post-2015 체제하에서는 도시 분야에 대한 목표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 될 것이나, 반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중시될 것이다.

비구속성 사업의 확대는 해외 경쟁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과 인지도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당초 우리나라가 비구속성 사업을 증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율을 80%선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연구보고서(권율 외, 2007) 역시 기획 및 설계 등의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술의 상대적 열세로 인해 수주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sup>62)</sup>. 비구속성 비율이 90%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기업의 수주율은 30%선이다<sup>63)</sup>. 따라서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수주를 할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시공분야 역시 비구속성에 따라 현지주관기관이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개도국 기업이 수주할 확률이 높으므로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62) 권율 외(2007),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00~101.

63) 김민형(2013), 「ODA 언타이드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20.



[그림 3-2] 기존 연구 제안을 통해 살펴본 ODA활용 방안

\* 출처 : 저자 작성

정부의 민관협력 강화 및 MDB와 협력 강화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 사업의 강화나 MDB를 활용하는 방안은 중요한 전제가 있다. 기업이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기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본역량 강화란 특화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Post-2015체제하에서는 지속가능한 ODA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지속가능한 ODA란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 즉 현지화된 설계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현지에 적합한 설계 역량을 길러야 하고, 더불어 우리 건축가(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무상 ODA 경험을 쌓은 후 민관협력과 MDB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개발의 추세는 민간투자를 점점 강조하고 있다. 특히 MDB는 민간의 제안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Post-2015체제하에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 ODA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자체 발굴 사업이라고 하여도 현지 업체를 추가한다든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ODA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행하기는 힘들다. 특히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업무분야 즉, 정보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 지원, 홍보 등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필요시 즉시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반드시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나 MDB등과의 네트

워크 형성 시 공공기관이 더 유리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과 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기존의 ODA사업이나 관련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겸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기업에 적절한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원조 규모는 비록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하면 규모가 적다. 따라서 가용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의 EDCF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사업발굴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즉, 종자돈(seed money)개념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앞에서 언급한 부가적인 업무를 전담할 기관에서 사업발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업발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업이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기업마다 진출 지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특화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새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양질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가 지적하는 부문이 현재 우리나라는 KOICA와 EDCF의 이원적 구조로 ODA를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공동 조사, 사업 연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JICA와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과 같이 정책과 집행 모두를 통합한 기관의 설치와 중기 예산제 수립은 ODA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sup>64)</sup>. 단일 기관에서 사업과 자금을 총괄함으로써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또한 쉬울 것이다.

---

64) 윤덕룡 외(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2-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73-174.

## 제4장 타분야 ODA 현황과 전략

1. 타분야 ODA 개요
2. 교통물류
3. 교육
4. 농림수산
5. 보건의료
6. 시사점

### 1. 타분야 ODA 개요

KOICA의 중점 ODA사업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분야 등 7개 분야이며, EDCF 사업 역시 교통, 상하수도 설비, 교육 시설, 보건시설 등 KOICA의 핵심 사업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중 원조 규모로는 교통분야가 가장 많으며, 교통분야 외에는 교육과 보건의료, 공공행정, 에너지, 농림수산업 순으로 많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분야의 경우 단독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타분야 사업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범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성평등, 인권, 환경의 4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분야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자원확보, 농업 및 식량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과 관련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타분야 ODA사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을 교통,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교통물류

### □ ODA현황 및 정책<sup>65)</sup>

교통물류 인프라 투자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가장 많은 원조를 시행하는 분야이다. 교통물류 분야의 원조는 전 세계적으로 2013년 기준 186.3억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231.7 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EDCF가 지원하는 차관의 경우 2014년 집행 실적 기준으로 36.4%(2,298.9억 원)가 교통 분야에 지원되었다.

교통물류 분야는 KOICA의 무상원조 5대 중점 분야인 산업에너지 분야의 한 분야로서 도로인프라 구축, 철도인프라 구축, 항만인프라 구축, 공항인프라 구축, 교통물류종합개발의 5개 하위 중점 프로그램이 있다. KOICA의 교통분야 사업은 수원국에 교통부문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DEEP 사업이 주류이다.

[표 4-1] KOICA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사업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만달러)
미얀마	[DEEP]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013~2015	400
솔로몬군도	[DEEP]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2011~2013	106
스리랑카	[DEEP]스리랑카 콜롬보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	2013~2014	250
인도네시아	[DEEP]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1구간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2012~2014	350
	인도네시아 선박안정성제고 및 역량강화사업	2013~2015	130
캄보디아	[DEEP]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1~2013	280
	[DEEP]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2011~2013	320
	캄보디아 시엠립 한국순환도로 건설 3차사업	2013~2014	1,200
필리핀	캄보디아 민간항공 관리역량 제고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	2013~2016	1,010
	[DEEP]필리핀 자동차 검사관리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2~2013	100
	[DEEP]필리핀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	250
파라과이	[DEEP]파라과이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2011~2013	200
	[DEEP]파라과이 국도 1,2,6,7호선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2012~2014	200
	[DEEP]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2013~2014	530
가나	아크라시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013~2015	400
카메룬	야운데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사업	2012~2014	150

\* 출처 : KOICA(2015), “산업에너지 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15.)  
엑셀 자료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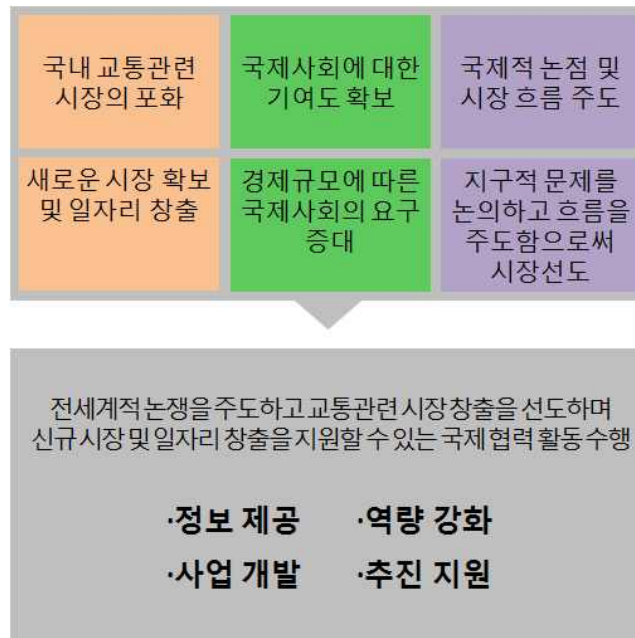
\* 전광성 외(2013), 「교통부문 국제협력 사업 체계화 연구 - KSP 사업과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 연구총서 2013-12, 한국교통연구원, pp.108~109.

65) KOICA(2015), “사업분야 : 산업에너지”, 「KOICA」, <http://www.koica.go.kr/>. (2015.5.15.)

## □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sup>66)</sup>

교통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오랫동안 민간의 해외진출에 OD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왔다. 교통분야에서는 ① 발주처에 대한 정보 부족, ② 발주사업에 대한 정보부족, ③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도 분석 능력 부족, ④ 내부역량 부족, ⑤ 공공과 민간의 연계 미흡 의 5가지를 해외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국제협력의 한계로 ① 구체적인 협력관계 설정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교환, ②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설정, ③ 연속성이 결여된 일회성 연수사업, ④ 수원국의 다양한 지식 공유 요구에 부흥하기에는 부족한 국내 경험 사례의 정리 미흡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교통물류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목표와 전략

\* 출처 : 박진영(2014), “교통부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전략”, 「KOTI Global Brief」, 1(1), 한국교통연구원, p.17.

66) 박진영(2014), “교통부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전략”, 「KOTI Global Brief」, 1(1), 한국교통연구원.

따라서 민간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국제협력 전략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정보제공 : 교통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DB의 구축, 공공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양해각서 체결과 인력파견, 공동 연구를 통한 정보 교류를 통한 국제기구와 재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 역량강화 : 인적 역량강화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사업발굴 : 전세계적 논점과 흐름의 이해와 국내 경험의 연계하고, 전통적인 도로 중심의 사업에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협동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한다.
- 해외사업 추진지원 : 공공기간에서 해외 사업을 위한 정보 HUB기능 확보하고, 다양한 민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 모색하고, 해외사업 시행 경험을 DB화하여 향후 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 교통물류분야 사례


교통물류분야의 사업에는 건축부문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개발사업의 경우 부수앙가 공항의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인적 물적 수송용량의 확충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총 투자비는 300만 달러이며, 이 중 공항터미널 신축과 주변 건물 개·보수, 활주로 보수 및 활주로 주변 정비 등 건축 및 건설 분야 부문에 214.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기자재 지원에 19.4만 달러, 건설관리에 19.4만 달러, 초청연수 및 기타 사업관리에 46.5만 달러를 지출하였다<sup>67)</sup>.

---

67)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산업에너지분야」, pp.344~345, <http://www.koica.go.kr/img/pdf/7.pdf>, (2015.5.15.)



[표 4-2] KOICA 교통분야 사례

사업명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개발사업
시행기관	KOICA,[시공: 서광종합개발, CM: 선진엔지니어링 필리핀 교통통신부
사업규모	300만불
사업기간	2006-2008
사업대상	필리핀 팔라완주 코론시 부수앙가(Busuanga) 공항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00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특성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 시설 확충이 필요</li> <li>○ 필리핀 정부는 공항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데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필리핀 정부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팔라완주의 부수앙가 공항에 대한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지원 요청</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터미널 신축 및 행정건물, 소방건물 등 개보수</li> <li>○ 기존 활주로 포장 및 이착륙 시설 정비</li> <li>○ 소방차, 트랙터 등 공항 기자재 지원</li> <li>○ 공항 운영기술 전수를 위한 국내초청연수</li> <li>○ 기타 사업관리</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여행서비스 수준 향상</li> <li>○ 수송용량 증대로 인한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물류 처리 역량 향상</li> </ul>

\*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산업에너지분야」, pp.344-345,  
<http://www.koica.go.kr/img/pdf/7.pdf>. (2015.5.15.)

### 3. 교육

#### □ ODA현황 및 정책

MDGs에서 교육분야의 중점 목표는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이며, 빈곤과 기아 근절과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권한 확대에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3년 기준 127.9억 달러 정도가 교육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9.5백만 달러 규모이며, 세부항목별로는 2번째로 규모가 큰 ODA분야이다.

[표 4-3]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사업규모(2015년 기준)

세부목표	2015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사업수	총사업 금액(백만\$)
1.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 제공	9	55.0
2. 기술인력 양성	29	157.4
3. 고등인재 양성	13	101.2
합계	51	313.6*

\* ODA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편성되므로 총 사업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출처 : KOICA(2015), “교육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16.) 엑셀 자료 재작성.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추진전략은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제공, 기술인력 양성, 고등인재 양성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비록 MDGs에서는 보편적인 초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기술인력 양성과 고등인재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술인력과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수원국민의 소득증대와 성장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한 교육을 통한 여성 인권과 권익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sup>68)</sup>.

#### □ ODA 방향 및 전략<sup>69)</sup>

교육분야 ODA의 문제점은 첫째, 아시아 중심의 지역 편중화, 둘째, 하드웨어적인 단기 직업교육 위주, 유·무상 연계 미비 및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국제기구나 민간 단체와 협력 미비, 전문인력 및 전문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꼽을 수 있다.

68) KOICA(2015), “사업분야 : 교육”, 「KOICA」, <http://www.koica.go.kr/>. (2015.05.16.)

69) 채재은 외(2012),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 사업대상 권역과 영역의 전략적 설정, ② 개발협력 추진방식의 효율화, ③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④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⑤ 성과관리 시스템의 강화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2]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 출처 : 채재은 외(2012),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89.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상대적인 강점을 가진 직업교육과 유학생연수를 중점으로 ② 중점협력국가 중심의 사업 대상지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③ ODA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④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패키지형 사업, ⑤ JICA와 같은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 구축, ⑥ 민간 및 국제기구,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사업 확대, ⑦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 ⑧ 전문인력 양성, ⑨ 교육 ODA사업 DB 구축 및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 교육분야 사례

교육분야는 학교건물 신축 등 건축 사업이 포함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분야가 ODA를 활용하기에 유용한 분야이다. 사례의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의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400만 달러 중 210만 달러를 실습동, 본관동, 기숙사 등의 훈련원 건물 신축에 사용하였다. 이 외에 기자재 지원에 110만 달러, 교재개발에 21만 달러, 기타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에 59만 달러를 사용하였다<sup>70)</sup>.

[표 4-4] KOICA 교육분야 사례

사업명	우즈벡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시행기관	KOICA, 우즈벡 노동 및 사회보장부
사업규모	400만불
사업기간	2007~2010
사업대상	<p>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Tashkent)</p>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소련연방에 독립 후 국가산업을 농업에서 경공업 및 중공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li> <li>○ 산업사회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li> <li>○ 우즈베키스탄의 고등학교 중 기술학교가 90%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미비</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 세르게이 지구에 약 1.8ha 규모의 공과 실습동, 본관동, 기숙사 등 건립</li> <li>○ 과목별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육 실습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li> <li>○ 과목별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자재 운용 유지와 과목의 지속적 운영 기술자문</li> <li>○ 훈련원 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한국연수</li> <li>○ 과목별 교재개발 및 기타 사업관리</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 시스템의 선진화와 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li> <li>○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숙련된 기술 기능공 양성</li> <li>○ 우리의 직업훈련원 운영 경험과 관련분야 기술 이전</li> </ul>

\* 출처 :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교육분야」, pp.133-134, <http://www.koica.go.kr/img/pdf/2.pdf>. (2015.05.21.)

70) 출처 :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교육분야」, pp.133-134, <http://www.koica.go.kr/img/pdf/2.pdf>. (2015.05.21.)

## 4. 농림수산

### □ ODA현황 및 정책

농림수산 분야 역시 MDGs하에서 직접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상당수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퇴치와 수원국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림수산 분야는 2013년 기준 102.1억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지원은 98.5백만 달러 규모이다.

[표 4-5] KOICA 농림수산분야 국가별 협력 프로그램 사업규모(2014년 기준)

세부목표	2014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사업수	총사업 금액(백만\$)
농어촌 인프라 구축	10	11.1
농어업 생산성 향상	23	9.9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4	1.1
농어촌종합개발	13	16.7
합계	50	38.8

\* ODA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편성되므로 총 사업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출처 : KOICA(2015), “농림수산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05.22.)  
엑셀 자료 재작성.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원조의 특징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농촌여성 인권신장, 친환경 농업개발 등 범분야 이슈를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목표는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소득원 다양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5가지이다<sup>71)</sup>. 그러나 실질적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분야 ODA는 인프라 구축과 농어촌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분야의 특징은 무상원조의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강조,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 역량강화와 기술전수, 1~3년의 단기 프로젝트사업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72)</sup>.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사업모델로 하여 ‘새마을사업’이라는 타이틀로 마을단위로 생활환경과 주민 삶의 질 개선,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여건에 맞춘 적정기술을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KOICA는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ODA 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새마을 ODA라는 명목으로 국제기구협력에 150.5억

71) KOICA(2015), “사업분야 : 농림수산”, 「KOICA」, <http://www.koica.go.kr/>. (2015.05.22.)

72) 송유철 외(2012),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9-141.

원(2015년 기준)이 원조하고 있으며, 이는 KOICA가 직접 수행하는 새마을 ODA사업 (191.1억 원)에 버금가는 원조 금액이다.

[표 4-6] KOICA 새마을운동사업 사례

사업명	ESCAP(지역빈곤완화 사업) 스리랑카,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농촌개발 시범사업 2차
시행기관	KOICA
사업규모	125만달러
사업기간	2006-2008
사업대상	라오스 팍남 군, 캄보디아 캄퐁참 주,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 및 반탄 주, 스리랑카 케골 및 라트나푸라 주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li> <li>○ 농촌의 빈곤 해소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간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가능한 농촌개발 모델 모색</li> <li>○ 지역빈곤완화 사업 1단계에서 가능성 확인 후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수립</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 개념 및 수행방법 소개 및 마을 지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 연수</li> <li>○ 사업대상지 교환방문 교육</li> <li>○ 도로 정비 및 마을안길 개선, 우물 및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li> <li>○ 학교 확장 및 개보수</li> <li>○ 마을환경 정화 및 마을회관 건립</li> <li>○ 관광인프라 구축</li> <li>○ 가이드라인 및 교재 개발, 웹사이트 개발 및 영상, 음성 교재 출간</li> <li>○ 지역 워크숍 개최</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교육 내용 전파</li> <li>○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농촌 개발</li> <li>○ 사업 실시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농촌개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 도출</li> </ul>

\*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지역개발」, p.291, <http://www.koica.go.kr/img/pdf/5.pdf>. (2015.05.23.)

유상원조의 경우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원조 자체가 상당히 적다. 유상원조의 집행 실적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유상원조(6,308.5억 원)의 1.3%(79.5억 원)에 불과하다<sup>73)</sup>. 유상원조 역시 종합개발사업과 인프라 중심으로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sup>74)</sup>.

이상과 같이 농림수산업 분야의 ODA는 유·무상을 망론하고 개발사업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KOICA 중심의 무상원조는 한국형 ODA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73) EDCF(2015), 「EDCF ANNUAL REPORT 2014 : 국문」, EDCF, pp.68-69.

74) 송유철 외(2012),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41-142.

#### □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농림수산업의 경우 민간분야 보다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은 첫째,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인식되는 신식품 개발을 통한 식량증산의 성공 경험, 원예와 특작물 개발과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 조정의 성공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운영되는 단기(2년 이내)간 동안의 은퇴자와 자발적 참가자 중심의 전문가 파견과 1년 이내의 연수생 사업을 농업 분야의 특수성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성과위주의 프로젝트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원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 5. 보건의료<sup>75)</sup>

### □ ODA현황 및 정책

보건의료분야는 MDGs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특히 아동보건, 모성보건, 질병관리를 중점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분야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30억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137.8백만 달러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보건 분야 ODA의 규모는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표 4-7] 보건의료분야 세부목표 및 사업규모(2015년 기준)

세부목표	2015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사업수	총사업 금액(백만\$)
1.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2	20.8
2. 보건의료 제도적 역량강화	3	22.5
3. 서비스 접근성 강화	19	140.4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17	90.9
5.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5	20.9
6. 식수 사업	7	31.8
합 계	53	327.3*

\* ODA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편성되므로 총 사업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출처 : KOICA(2015), “보건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4.) 엑셀 자료 재작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추진전략은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과 취약질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인적 역량강화, 보건의료 제도적 역량강화, 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의 5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5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에 가장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식수사업과 같이 세부목표로 직접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부목표(5.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와 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추진하고 있다.

75) KOICA(2015), “사업분야 : 보건”,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4.)



## □ ODA 방향 및 전략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슈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에서 수원국의 자체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국가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sup>76)</sup>.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①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② 우수한 서비스 접근성과 시스템, ③ 효율적인 기생충 및 전염병 퇴치 경험을 통한 위생환경 시스템 강화 능력, ④ 70년대의 모자보건요원 파견을 통한 성공적인 가정 분만 사례와 성공적인 시설 분만으로의 전환, ⑤ 우수한 의료분야 과학기술 능력을 들 수 있다<sup>77)</sup>.

비록 아직 선진국에 비해 다수의 분야에서 앞선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전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는 하드웨어적 방법보다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통해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법으로 ODA를 수행해야 하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sup>78)</sup>

보건의료산업은 아직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국제조달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은 병원과 기자재가 함께 진출하고, UN 및 MDB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자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다자시장 참여를 위해 목표 국가를 정하고, 시장조사와 기업의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6) 출처 : 권순만 외(2014),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정책연구 1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8.

77) 출처 : 주용식(2012), “ODA 스마트 파워 전략 : 캄보디아 보건의료 지원 중심”, 「e-비즈니스연구」, v13(2), pp.159~184.

78) 출처 : 이미정(2014),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의료시스템 진출방안”, 「보건산업 동향」, v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2~7.

<시장 조사항목의 예시>	조사항목	검토내용
	한국 의로기기 및 의약품 수출입 동향	해당제품의 수출국가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수출국가 중 의료 세부품목별 조달시장 규모	의료분야 조달시장 규모가 큰 국가 선정
	수출국가의 의료 조달벤더 주요품목 및 조달 규모, 해당제품의 가격과 품질 조사	의료 조달벤더들의 품목 분포를 통해 틈새제품 여부 확인, 각 벤더들의 조달규모, 제품가격 및 품질로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확보
	의료제품 유통을 위한 필요 인증 조사	인증절차, 소요기간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순서 정리

<기업 자가 진단항목의 예시>	진단항목	검토내용
	해외조달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존재	단순한 구매행위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의료제품 기술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조달인력 구성
	장기간의 해외파견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장기투자(최대10년)에 대한 자금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해외조달에 대한 책임제도	현지담당자의 권한이 분사 결정자만큼의 권한책임이 있어야 조달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수출경력 및 해외네트워크	민수시장에서 구축된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조달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진단

[그림 4-3] 시장조사와 자가진단 항목 예시

\* 출처 : 이미정(2014),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의료시스템 진출방안”, 『보건산업 동향』, v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5.

다자시장의 한 축인 UN의 경우 KOICA 다자협력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MDB보다 성공확률이 높고, MDB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부터 병원설립과 현대화 방안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

KOICA사업을 통한 진출은 컨설팅사업자, 시공자, 기자재공급자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참여자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특히 병원설계와 시공단계, 기자재공급단계에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과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보건의료분야 사례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병원시설과 기자재,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 중앙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00만 달러이며, 재활센터 건축비용에 2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sup>79)</sup>.

79)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보건의료분야』, pp.65-66, <http://www.koica.go.kr/img/pdf/1.pdf>, (2015.05.24.)

[표 4-8] KOICA 보건의료분야 사례

사업명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 중앙재활센터 건립 사업
시행기관	KOICA, 국립재활원 콜롬비아 부통령실
사업규모	400만불
사업기간	2007-2010
사업대상	콜롬비아 보고타시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롬비아의 특수한 내부 치안 상황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양산</li> <li>○ 부족한 재활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 보고타에 중앙재활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센터 건축(연면적 8,712m<sup>2</sup>)</li> <li>○ 재활 장비 및 센터 사무용 장비, 차량 지원</li> <li>○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한 재활운영기법 전수</li> <li>○ 국내초청연수를 통한 재활운영기법 전수</li> <li>○ 기타 실시협의, 사업 중간평가 및 기념비 제작 등</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 참전용사 및 그 가족, 최근 치안유지 활동으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 노동력 유지</li> <li>○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에 대한 보은과 양국간 우호 증진</li> </ul>

\* 출처 : KOICA(2015), 「함께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보건의료분야」, pp.65-66, <http://www.koica.go.kr/img/pdf/1.pdf>. (2015.05.24.)

## 6. 시사점

앞에서 주요 4분야(교통,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의 ODA관련 현황과 정책 제안을 살펴보았다. 교통과 교육분야의 경우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 분야는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돕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교육은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이 추가 아님에도 두 분야의 정책이 상당히 유사했다.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제안된 정책이 다른데 이는 농림수산업 자체가 현지 주민을 직접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 타 사업에 비해 더 크고, 직접적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타분야의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사업영역 확장, 파트너십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보수집 강화와 DB 구축 등인데, 이 정책들은 고스란히 건축분야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ODA사업과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유사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ODA를 활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교통 분야는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표 4-9] 분야별 ODA 정책 제안 비교

정책 제안		교통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건축
사업영역확장	대상지역		○			○
	대상사업	○				
하드웨어적 원조 탈피			○		○	
파트너십구축	국제기구	○	○			○
	민간사업자	○	○			○
전문인력 양성		○	○	△		○
제도적 장치 마련	컨트롤타워 설치	△	○			△
	재정확보	△				△
정보 Hub 기능 강화	자료 수집 및 제공	○	○			○
	DB 구축	○	○			○
비교우위분야 우선 정책			○	○		
단기 사업을 장기사업화				○	○	
수원국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				○		
다자원조 활용		○			○	○

\* 출처 : 직접 작성

#### □ MDB 활용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제안은 건축분야와 유사점이 별로 없었으나, 해외진출방안의 경우 다자시장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는 MDB보다는 UN이 다소 진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하는데 반해, 건축분야는 MDB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타분야의 건축부문 활용

타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 보건의료 분야 등 건축이 타 분야 ODA에 기여할 부문이 크다는 점이다. 교육분야의 학교 건축이나 보건의료분야의 병원 건축 등은 건축업계가 적극적으로 ODA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KOICA사업 진출을 위한 제안인 컨설턴트, 시공자, 기자재공급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분야 역시 타 분야 ODA를 활용하기 위해 타분야와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ODA 동반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네트워크와 정보 DB 구축

타분야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은 공공기관(연구소)을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수집 및 분석, DB구축의 Hub로 활용하자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계가 쉬운 공공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이다. 건축분야 역시 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을 정보 Hub와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사업모델 개발

농림수산업 분야가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한국형 ODA모델로 개발한 사례는 건축분야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은 수원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 방향을 국내의 경험에서 도출해 냈다는 것이다. 건축분야가 ODA를 활용하는데 첨단 기술을 사용한 건축은 큰 쓸모가 없을 것이다. 현지 여건이 첨단 기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성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분야 역시 현지 여건에 맞는 주택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TA 사업 중심 진출

교통분야의 경우 KOICA 사업의 상당수가 DEEP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무상원조 ODA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술지원(TA)에 주로 활용하고, 유상원조인 EDCF 차관을 실질적인 시설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건축과 도시분야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유무상의 확실한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 EDCF차관과 민간투자를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유사한 정책도 있지만 건축분야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분야는 모두 개별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ODA분야이며, ODA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에 건축분야는 단독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타분야의 일부로, 예를 들어 보건관련 사업이면 병원 건물의 건축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분야가 OD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만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Post-2015체제하에서는 주택문제와 같은 건축분야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만한 분야가 생길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의 주택개량과 같이 타분야와 연계한 사업모델과 주택건설과 같은 독립적인 사업모델 모두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 제5장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2.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3. 건축 및 도시분야 ODA 컨설팅 사업과 후속 사업 개발 사례
4. MDB 건축 사업 사례
5.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
6. 시사점

### 1. 사례분석 개요

본 장은 해외진출 사례를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업, 둘째, 컨설팅사업(TA)을 ODA로 수행하고 후속 사업을 개발한 경우, 셋째, 주요 MDB의 사업 사례, 넷째,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첫째 유형은 현재 건축분야가 가장 일반적으로 ODA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사례를 통해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유형은 ODA사업으로 수행된 컨설팅사업을 통해 어떻게 후속사업들이 형성되고 확장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유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MDB 사업의 내용과 주요 수주 국가를 살펴보고, MDB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형은 비록 직접적인 ODA사업은 아니지만, 해외신도시사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ODA사업이 민간사업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

## 2.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 1) DR 콩고 박물관 건립사업

#### □ 사업개요

DR콩고 정부와 국립 박물관 연구소 측은 수년전부터 국립박물관의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희망해 왔다. 신축 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가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적 수단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DR콩고 박물관 신축 지원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DR콩고 국빈 방문 당시 Joseph Kabila 현 DR콩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구상되었으며, 콩고 국민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형성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KOICA DR콩고 사무소는 DR콩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이하 PCP)를 접수하여 사업을 착수하였다. 같은 해 10월, KOICA 본부는 수원국의 PCP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예비조사(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국가 간 사전 협의 단계에서 정해놓은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다보니, 15,431m<sup>2</sup> 연면적의 시설을 800만 달러의 사업비로 3년 내에 종료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짧은 조사 일정으로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성, 유물의 가치 및 복원 방향과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보유예산 대비 요구하는 건축시설 규모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사업기간도 7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세부 조사를 위한 사업기본설계 조사 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 추진주체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행된 사업기본설계(Basic Design Study: 이하 BDS)은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수행하였고, 불어문화권 연구소 소속의 PM과 전시운영 관련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로 참여 하였다. 이후 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PMC는 상명대학교 산업협력단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고, 건축설계는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다.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 사업 내용

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9년 2분기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용은 2,000만 달러이며, 건축, 전문가 파견, 연수,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5-1] DR 콩고 박물관 건립사업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예산 (만 달러)
건축	• 국립박물관(연면적 6,320m <sup>2</sup> ) 설계, 시공, CM	1,425
	• 국립박물관 수장고 내부시설, 상설전시, 기획전시	275
전문가파견	• PM, 통역 및 코디네이터, 학예, 경영관리, 교육, 보존처리, • 영상 및 음성 디지털화 전문가 각 1명 • 프로젝트실무전문가(5급, 통역 및 실무) 1명	95
역량강화 연수	• 정책과정 • 실무과정(학예, 경영관리, 교육)	24
개관준비	• 시범운영/운영교육 전문가파견, 개관식 준비	40
운영지원 컨설팅	• 박물관 개관 후 6개월간 운영 컨설팅	30
평가, 성과관리	• Baseline, Endline 조사 • 중간 및 종료평가, 모니터링	10
기자재	• 차량 및 행정 기자재 등	70
홍보비	• 홍보 동영상, 브로셔, 카탈로그 등	10
기타	• 예비비	21
계		2,000

\* 출처: KOICA 내부자료, 「2차 집행계획」.

전체 사업예산 중 유물의 보존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하드웨어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향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차 사업의 형성을 전제로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구축에 사업의 비중을 두었다. 박물관 건축 사업의 세부 구성은 크게 박물관 건축과 전시시설(수장고 포함)로 되어있고 각각은 1,425만 달러, 275만 달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과 시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5-2] 건축 및 전시 사업비 세부 내역

구 분			사업비 (만 달러)	변경 사유
1. 건축	시공비	내외부	1,1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내부 연면적 : 4,420㎡ (용역비 산정 기준 면적)</li><li>조경, 외부시설 (담장, 정문 등) 공사비포함</li><li>시공단가 : 2,600 달러/㎡</li></ul>
		필로티 및 회랑	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공단가의 20% 반영 : 520 달러/㎡</li></ul>
	1.1. 건축 시공비		1,248	
	1.2. 건축설계		69.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산정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3종 보통 기준</li><li>설계기간 중 4회 파견, 시공기간 중 2회 파견</li><li>도서 번역 및 통역 비용 포함</li></ul>
	1.3 CM		1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공 기간 중 상주CM 1인 파견</li><li>비상주CM (공중: 단장, 전기, 기계) 16회 파견</li></ul>
	건축 사업비 합계		1,425	
2. 전시	3.1. 수장고		1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20만원/㎡ (1,965달러/㎡)</li><li>630㎡ X 1,965달러 = 123.7만 달러</li><li>중층 450㎡의 시공면적은 단위공사비에 포함됨</li></ul>
	3.2. 상설전시		1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만원/㎡ (1,785달러/㎡)</li><li>750㎡ X 1,785만 달러 = 133.9만 달러</li></ul>
	3.3. 기획전시		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00만원/㎡ (892.8달러/㎡)</li><li>200㎡ X 892.8달러 = 17.8만 달러</li></ul>
	전시 사업비 합계		275.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시는 설계 및 시공비용을 일괄 계산</li></ul>
건축 및 전시 시설 합계			1,700.5	

\* 출처: KOICA 내부자료, 「2차 집행계획」.

## 2)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건립사업

한-베 기술대학은 건축분야의 관점에서 특별히 우수한 사례는 아니지만, ODA사업의 효과측면에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 프로젝트 개요

베트남 박장성과 인근에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은 훈련된 기술·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기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통해 빈곤 감소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2009년 3월에 공식사업요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사전조사, 2010년 11월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실시협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3월에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월에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였고, 12월에 시공사와 공사를 계약하였다. 다음해(2012년)4월에 기공식 후, 2013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전체 프로젝트는 기술대학 건축, 전문가 파견, 교재개발, 기자재지원, 초청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비용으로 8.99백만 달러<sup>80)</sup>가 투자되었다.

### □ 건축부문 사업 내용

- 공사현장 : Thai Dao commune, Lang Giang District, Bac Giang
- 공사예산 : 4.10백만 달러(계약 금액 3.84백만 달러)
- 입찰방법 : 설계도서 산출에 의한 총액입찰방식(Fixed Lump-sum Price)
- 공사기간 : 2012.04.03. ~ 2013.10.31. (18개월)
- 건축개요 : 대지면적 10ha, 연면적 약 9,190m<sup>2</sup>
- 시공업체 : 신동아종합건설(주)
- 사업종료 후 일정 : 준공 후 하자발생시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팀 상주
- 사업분담 : 베트남측은 토목/조경 공사 등 인프라 설비를 시공

---

80) ODA Korea (2015), “한국의 ODA 지원현황”,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Vietnam.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Vietnam.jsp), (2015.7.12.)

[표 5-3] 건축물 개요

구분	연면적
본관동/강의동	2,540m <sup>2</sup>
기계과/자동차과/통합 실습동	2,156m <sup>2</sup>
전기/전자/IT 실습동	2,470m <sup>2</sup>
식당	879m <sup>2</sup>
강당	743m <sup>2</sup>
설비동	375m <sup>2</sup>
경비동	27m <sup>2</sup>
총합계	9,190m <sup>2</sup>

\* 출처: KOICA동남아시아1팀(2014), 「베트남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최종보고서」, KOICA. p.6.

#### □ 건축부문 진행과정

전체 시공사업 중 수원국(베트남)은 부지제공과 부지 조성관련 공사, 옥외 부대 토목 및 조경공사, 정화조와 물탱크 설치, 건물외부의 전기, 전자, 통신 등 인프라 설비 공사를 분담하였다.

시공업체 선정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입찰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와 한국어 병기가 사용되었다. 입찰절차는 1단계의 사전적격검사와 2단계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입찰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각각 70:30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였다.

입찰일정은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입찰의 전 과정은 KOICA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 1일에 입찰 설명회를 KOICA 베트남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후 일주일간의 질의응답 기간을 거쳐 12월 20일에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다. 이후 23일에 낙찰자에게 선정되었음을 통지하고, 26일에 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4]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기술평가(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량평가(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간 매출액(10점), 3년간 유사실적(10점), 보유인력(10점)</li> </ul> </li> <li>정성평가(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요약 및 추진전략, 대상지 분석 및 적정성(10점)</li> <li>과업수행 방안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10점)</li> <li>추진일정,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5점)</li> <li>장비 활용 계획 및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5점)</li> <li>특수 제안사항의 타당성(5점)</li> </ul> </li> </ul>
가격평가(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ICA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산정</li> </ul>

\* 출처: KOICA동남아시아1팀(2014), 「베트남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최종보고서」, KOICA. p.7.

[표 5-5] 계약 조건 및 기성

항목		내용
입찰 및 계약	입찰보증 (Bid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한도액의 5%, 입찰시 제출</li> <li>보증기한 : 입찰시 제출마감일 30일 이상</li> </ul>
	계약이행보증 (P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액의 20%, 낙찰일(계약 체결일 아님)로부터 7일 이내 제출</li> <li>보증기한 : 준공일 이후 60일 이상</li> <li>증권반환 : 발주처 준공 확인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서면 청구시</li> </ul>
	선금 (AP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액에 따라 30~40%, 선금 청구시 제출</li> <li>보증기한 : 준공일 이후 60일 이상</li> <li>증권반환 : 기성&gt;선금 전액을 넘어간 시점에서 60일로 서면 청구시</li> </ul>
	하자보수 (Warra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액의 3%, 준공확인 일자에 제출</li> <li>보증기한 :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종료후 60일 이상</li> <li>증권반환 :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종료후 60일로 서면 청구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계약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계약임</li> <li>공사 착공일은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조정함. 단, 발주자가 공사착공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li> <li>모든 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각종 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됨</li> </ul>
대금 지급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현지법에 의거, 달러 또는 동화 지급</li> <li>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li> </ul>
	선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율은 선금청구서 제출일(협력단 주거래은행의 매도율, 신한은행 buying 기준)</li> <li>선금 청구서 제출시 현장 PM-&gt;CM-&gt;본부승인 후 지급</li> <li>선금검토 : 선금사용계획서(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사용)</li> </ul>
	기성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율은 협력단 주거래은행의 매도율, 신한은행 buying 기준</li> <li>2개월(매월말 기준)을 원칙, 제출 시 현장 PM-&gt;CM-&gt;본부승인 후 지급</li> <li>기성검토</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사진, 공정표 및 공정내역 포함</li> <li>업체 신청내역을 CM이 검토하여 기성인정하며 조정 가능</li> </ul>
지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지체일수 마다 총 계약금액의 1/1000(발주처 준공일 기준으로 산정)</li> </ul>

\* 출처: KOICA동남아시아1팀(2014), 「베트남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최종보고서」, KOICA. p.9.

### 3. 건축 및 도시분야 ODA 컨설팅 사업과 후속 사업 개발 사례

#### 1)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 □ 사업개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으로 추진된 도시계획 프로젝트로서, 베트남의 법률<sup>81)</sup>에 부합하는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시킨 사례이다.

후에시는 2015년까지 중앙도시(Centrally-run City)로의 승격이 결정된 베트남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이다<sup>82)</sup>. 그러나 1999년에 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10년 이상 변화하는 도시여건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양자간 무상원조사업으로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요청하였으며, KOICA는 후에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림 5-1] 베트남 후에시 위치도

\* 출처: KOICA(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KOICA, p.8.

81) 도시계획법(Law on Urban Planning), 건설법(Law on Construction)

82) KOICA(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KOICA, p.4.

사업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총 28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 현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국내 초청연수, 기자재 지원이다. 계획범위는 현재 후에시(70.99km<sup>2</sup>)를 포함한 도시 확장구역 범위(약 348km<sup>2</sup>)까지이다.

[표 5-6]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The Modification of Hue City's Master Plan)
사업기간	2011.08~2013.12 (28개월)
대상지	베트남 투아티엔후에성 후에시 (Hue City,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발주처	KOICA
수행기관	(주)한아도시연구소, (주)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목적	1999년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평가 및 후에시 확장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내용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현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 연수초청, 기자재 지원 등

\* 출처 : KOICA(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KOICA. 내용 정리.

#### □ 추진주체

KOICA와 베트남 지방정부인 후에시 인민위원회(Hue City People's Committee)가 사업의 주관기관이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측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업체와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sup>83)</sup>하였고, 베트남 측에서는 PMU(Project Management Unit)를 구성하여 투아티엔후에성 및 후에시의 각 부서별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한국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 □ 진행과정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은 2011년 말 착수하여 2012년 워크숍 및 2회 중간회의, 2013년 최종회의 및 사업설명회, 베트남 건설부 심의회를 거쳐 28개월간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2014년 5월 베트남 중앙정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종결되었다.

83) 한국 전문가로서 마스터플랜 수립은 (주)한아도시연구소와 (주)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과업을 수행하였고, PMC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본 사업 진행과정 동안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후속사업의 발굴 및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는 ODA사업의 일반적인 사업화 절차와 소요시간(양자간 약 2년, 다자간 약 3-5년 소요)을 고려할 때, 사업 초반에 ODA 수행기관과 수원국 의사결정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사업에 대한 방향을 조기 설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표 5-7] 후에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구분	내용
2011년 8월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2011년 11월	• 착수회의
2012년 4월	• 현지 워크숍, 후속사업 관련 사전 협의
2012년 8월, 12월	• 1, 2차 중간회의
2013년 8월	• 최종회의
2013년 11월	• 하노이 사업설명회, 베트남 건설부 심의회
2014년 5월	• 베트남 수상실 승인

\* 출처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 2)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 □ 사업개요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의 후속사업인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은 실행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으로 건설시공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0개월이며, 사업내용은 베트남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설계 수립, 시범사업 선정 및 상세설계, 건설 시공으로 구성된다.



[그림 5-2] 후에시 향강 전경

\* 출처: KOICA(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KOICA, p.9.



후에시 향강변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경작지가 강의 풍부한 녹지를 잠식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향강 상세계획 프로젝트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베트남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는 향강 연안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을 2014년도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으로 제안하였고, 사전타당성조사 및 실시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5년도 KOICA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5-8]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사업기간	2014.12~2017.06 (30개월)
대상지	베트남 투아티엔후에성 후에시 향강 양안 약 15km 구간 (Huong Riversides, Hue City,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발주처	KOICA
수행기관	(주)한아도시연구소, (주)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목적	베트남 도시계획법에 의한 향강 연안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상세설계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내용	향강 양안 상세계획 수립 시범사업 선정 및 상세설계 설계 수립 ※ 시범사업 건설 시공은 2단계 사업으로 연계 추진 한국 연수초청, 워크숍 개최, 기자재 지원 등

\* 출처 : KOICA(2014),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제안요청서」, KOICA. 요약정리

#### □ 추진주체

사업 수행기관은 후에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와 동일하며, KOICA와 베트남 지방정부인 후에시 인민위원회(Hue City People's Committee)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 측은 상세계획 수립업체와 PMC가 참여하여 베트남 PMU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 중이다.

#### □ 진행과정

프로젝트의 발굴은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 중이던 2012년부터 진행되었다. 2012년 초반 마스터플랜 후속사업으로서 향강 프로젝트를 논의하였으며, 이후 2012년 말 ODA 수행기관 및 수원국 정부가 협의를 통해 2013년 초 수원국의 원조요청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 내에서 사전타당성 및 실시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말

KOICA에서 사업을 맡아주었다.

2015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5월 현지 워크숍 개최를 통해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수립이 진행 중이다.

[표 5-9] 향강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구분	내용
2012년 4월	• 후속사업 관련 베트남 지방정부 사전 협의
2012년 11월	• KOICA, 베트남 정부 협의
2013년 1월	• 프로젝트 제안 - 수원국 내 원조사업 요청, 수원국 지방정부 → 수원국 중앙정부
2013년 2월	• 프로젝트 제안 - 공여국 원조사업으로 요청, 베트남 중앙정부 → 한국 KOICA ※ 총 105여개 제안사업 중 최종 원조사업으로 선정
2013년 3월	• KOICA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2013년 5월	• 사업선정 후 KOICA 본부 및 베트남 결과 전달
2014년 3월	• KOICA 실시협의조사 및 RD(Record of Discussion) 체결
2014년 12월	• KOICA 프로젝트 발주, 수행기관 계약 체결
2014년 1~3월	• 사업 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2014년 4월	• 현지 워크숍 개최

\* 출처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 4. MDB 건축 사업 사례

### 1) 베트남 중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WG)

#### □ 프로젝트 개요

베트남의 중규모 도시인 Lao Cai시, Phu Ly시, Vinh시의 상하수도, 학교, 전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개량하고 공급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 12월 15일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approval)을 받았으며, 2017년 12월 30일까지 총 2억 8,500만 달러 (약 3,000억원)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2012년 6월 4일 전체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에 대한 공고(General Procurement Notice)가 났으며, 세부 사업별로 조달이 진행되었다. 2억 8,500만 달러 중 WB의 IDA에서 2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표 5-10] 베트남 중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개요

구분	연면적
사업대상지	• Lao Cai시, Phu Ly시, Vinh시
사업내용	• 도시기초기반시설 개량 및 서비스 개선 • 도시 상하수도 정비 및 위생 강화 • 도로 및 교량 건설 •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 기간	• 2011.12.15.~ 2017.12.30.
사업비	• 2.85억 달러

\* 출처: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5.11.)

#### □ 주요 사업의 조달 방식 및 입찰결과

입찰은 대규모 공사 및 컨설팅에 대한 국제입찰(ICB방식 또는 QCBS방식) 및 소규모 공사 및 컨설팅에 대한 입찰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5월 기준, 주요 건설공사 및 컨설팅에 대한 입찰결과는 [표 5-11]과 같다. 건설공사의 경우, 차입국의 국내업체 우선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국제입찰방식을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QCBS방식의 국제입찰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사와 베트남 업체들이 Joint Venture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신코퍼레이션 역시 베트남의 CONINCO사와 공동사업 참여를 통하여 175만 달러 규모의 건설관리 및 감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 하였다.

[표 5-11] 주요 건설사업 및 컨설팅 조달방식 및 국제조달 입찰결과

구분	도시	사업내용	조달방식	낙찰업체(국적)
물품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	Lao Cai	폐수(하수)처리장		
	Lao Cai	D1도로 및 Lang Chieng 교량 \$13,815,849	ICB	베트남
	Phu Ly	D4-N7도로 1구간 \$17,350,000	ICB	베트남
	Phu Ly	Lam Ha 01 및 Lam Ha 02 regulation lake		
	Phu Ly	Chau Giang 지역 폐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Phu Ly	Chau Giang교량, D4-N7도로, 하수관거 건설	ICB	베트남
	Vinh	Quan Bau 재정착(resettlement site)지 건설		
	Vinh	Bac 수로 1구간 개선사업	ICB	베트남
	Vinh	Bac 수로 2-1구간 개선사업	ICB	베트남
	Vinh	Bac 수로 2-2구간 개선사업	ICB	베트남
	Vinh	regulation lake 건설		
	Vinh	Vinh 유적지 주변 배수로 개선		
	Vinh	Cua Nam 호수 개량		
	Vinh	Hung Tay-Vinh도로 1		
	Vinh	Hung Tay-Vinh도로 2		
	Vinh	철도 통과 고가도로 건설		
	Vinh	Lam강변 도로 건설 1		
	Vinh	Lam강변 도로 건설 1		
컨설팅 서비스	Lao Cai	건설관리 및 감리	QCBS	Joint Venture (베트남, 핀란드)
	Lao Cai	도시계획 기술지원		
	Lao Cai	자산관리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지원		
	Phu Ly	건설관리 및 감리 \$2,557,000	QCBS	
	Phu Ly	도시계획 기술지원		
	Phu Ly	자산관리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지원		
	Vinh	건설관리 및 감리	QCBS	Joint Venture (스위스, 한국, 베트남: 유신코퍼 레이션), 타 국가 참여
	Vinh	자산관리 및 도시기반시설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원		

\* 출처: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5.11.)

베트남 중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는 [표 5-11]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 외에 도시계획수립용역, 소규모 건설공사, 영향평가 등도 발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국제입찰 보다는 국내입찰(NCB) 혹은 자격기준입찰(CQS) 등으로 발주하여 차입국 현지 업체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

[표 5-12] 기타 사업 예산 및 입찰 방식 (Phu Ly시 사업의 경우)

사업명	예산 (USD)	입찰방식
초등학교 및 유치원	1,730,000	NCB
사업단에 대한 기술지원	120,000	CQS
입찰서류 준비 지원	1,206,000	QCBS
건설관리	64,000	CQS
환경 사회변화 모니터링	181,000	CQS
재정 감사	121,000	CQS
자동차 구매	69,000	Shopping
오피스 물품 구매	30,000	Shopping
사업단 장비 구매	17,000	Shopping

\* 출처: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5.11.)

## 2) 베트남 도시업그레이드 프로젝트(WG)

### □ 프로젝트 개요

베트남의 4개 도시(호치민시(Ho Chi Min City: Hcmc), Can Tho시, Haiphong시, Nam Dinh시)를 대상으로 도시빈곤층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저소득층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베트남 국가 주거환경개선 계획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29일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approval)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4억 1,749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WB의 IDA에서 2억 2,247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프랑스가 3,751만 달러, 일본이 484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표 5-13] 베트남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개요

구분	연면적
사업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 Chi Min City(Hcmc), Can Tho시, Haiphong시, Nam Dinh시</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 계획 및 관리를 통한 기초 3차 기반시설 (집산도로, 국지 도로 등) 개선</li> <li>•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3차 기반시설과 연계된 주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li> <li>•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주택 개량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싱</li> <li>• 임대주택 공급</li> <li>• 토지관리 행정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li> <li>• 베트남 국가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National Urban Upgrading Program)</li> </ul>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4.29.~ 2014.12.31.</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7억 달러</li> </ul>

\* 출처: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5.11.)

### □ 도시건축분야 주요 사업의 조달 방식 및 입찰결과

본 프로젝트는 도시저소득층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3차 기반시설 건설과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주간선 및 간선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건설 공사,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등의 컨설팅 용역으로 구성된다. 건설공사 중 국제경쟁입찰로 공모된 사업은 18개건이며, 이중 16개 사업은 베트남 업체가 수주하였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하노이시 빈곤지역 2차 및 3차 하수관거 건설 공사는 독일 업체가 수주하였고, 중국과 베트남 업체의 joint venture가 2백만 달러 규모의 하수관거 공사사업을 수주하였다. 이외 중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베트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쟁입찰로 발주하였

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미화 5만 달러이상 규모로 QCBS를 통해 조달한 사업은 모두 36건이었으며, 이중 베트남과 타국가의 Joint Venture에 의한 수주가 2건, 해외국가 단독 수주가 10건이었다. 도시별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은 영국의 Banes Dawes Associates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주하였다.

[표 5-14] 주요 건설사업 및 컨설팅 조달방식 및 국제조달 입찰결과

구분	도시	사업내용	조달방식	낙찰업체(국적)
물품구매, 공사, 비컨설팅 서비스	Hcmc	2차, 3차 하수관거 공사 \$19,041,568	ICB	독일
	Hcmc	하수관거 공사 \$2,107,327	ICB	중국 & 베트남
	Hcmc 외	하수관거 공사 외 15건 총 \$60,953,906	ICB	베트남
	Hcmc 외	하수관거 공사 외 128건 \$72,701,973	NCB	베트남
컨설팅 서비스	Hcmc	건설공사 감리 및 기간망 개선 \$2,065,000	QCBS	호주
	Hcmc	건설공사 감리: 3차인프라 \$805,915	QCBS	베트남
	Hcmc	3차 기간망 공사 타당성 \$774,521	QCBS	베트남&말레이시아
	Hai Phong	건설공사 관리 및 감리(1차,2차 기간망 공사) \$1,586,754	QCBS	일본&미국
	Nam Dinh	건설공사 관리 및 감리 \$794,995	QCBS	덴마크
	Can Tho	건설공사 관리 및 감리	QCBS	베트남&핀란드
	Hcmc, Hai Phong, Nam Dinh	프로젝트 준비 타당성 검토(국제) \$97,350, \$42,350, 40,150,	SSS	영국

\* 출처: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5.11.)

### 3) 엘살바도르 무허가주택밀집지구 개선 프로그램 (IDB)

#### □ 프로젝트 개요

엘살바도르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택(산업)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0년 9월 IDB으로부터 해당 사업 제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총 7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았다. 본 사업은 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보조, ② 무허가주택밀집지구 개선, ③ 점진적인 주거개발을 위한 획지 계획 및 무허가 주택 양성화, ④ 주택 부문 역량 강화, ⑤ San Salvador 지역 자체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였다.

#### □ 프로젝트 조달계획

총 5,710만 달러의 건설공사가 계획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들로 구분되어 발주하여 국내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차관 제안서(loan proposal)의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90건, 약 750만 달러의 관련 컨설팅용역 역시 주로 자국 내 개인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90개 중 세 개의 사업이 개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위해 QCBS 방식을 적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국제 short-listing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기준인 \$350,00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해외 컨설턴트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표 5-15] 주요 컨설팅 사업 조달계획

사업	용역 금액	조달방식	비 고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및 운영 감사	175,000	QCBS	국내
무허가 주택 양성화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고용	300,000	QCBS	국내
프로그램 효과 평가	80,000	QCBS	국내
토지관리 워크샵 행사 기획		IICQ	국제/개인
주택부문 역량 강화 컨설팅	161,600	NICQ	국내/개인
무허가 불량촌 정비 계획 개인 컨설턴트 (국가정책)	265,680	NICQ	국내/개인
도시계획 개인 컨설턴트 (개별사업)	70,000	NICQ	국내/개인
토지관리 개인 컨설턴트 (개별사업)	90,000	NICQ	국내/개인

\* 주: NICQ (National Individual Consultant selection based on Qualifications)

\* 출처: IDB (2010). *El Salvador Program for Housing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s for Informal Urban Neighborhoods, Phase II: Loan Proposal*, Annex III,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576516>. (2015.5.9.)



#### 4) 아르헨티나 대도시지역 개발 프로그램 (IDB)

##### □ 프로젝트 개요

아르헨티나의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지역에서 공공위생, 대중교통, 폐기물 관리, 공원 등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IDB에서 4,000만 달러 차관과 아르헨티나 자체에서 제공하는 1,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2010년 12월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대도시권역 거버넌스 부문에 290만 달러, 조직 역량 강화 및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관리 부문에 4,450만 달러,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program evaluation)를 포함하여 행정부문에 26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 프로젝트 조달계획

사업제안서에는 공사 3건, 컨설팅 20건을 포함하여 총 2,110만 달러 규모의 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건의 건설 공사는 각각 700만 달러, 800만 달러 규모로, 아르헨티나의 국제경쟁입찰 기준 금액(500만 달러)을 상회하므로 국제경쟁입찰로 계획되었다. 컨설팅용역의 경우, 일반 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정책평가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용역 금액이 국제 참여자 선정 기준(\$500,000)보다 낮으므로 해외 컨설턴트의 사업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표 5-16] 주요 사업 조달계획

사업	금액 (\$1,000)	조달방식	비 고
폐기물처리 서비스 개선 공사	7,000	ICB	국제
교통 서비스 개선 공사	8,000	ICB	국제
타당성 조사	400	QCBS	국내
대도시권역 2 사전사업타당성조사	200	QCBS	국내
부문별 진단 평가	200	QCBS	국내
부문별 공공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4건	350~500	QCBS	국내

\* 출처: IDB(2011), *Argentina, Development Program for 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 Capital : Loan Proposal*, 「IDB」,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556196>. (2015.6.24.)

## 5) 메콩강 권역 타운 개발 프로젝트 (ADB)

### □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계를 이루는 메콩강 주변에 위치한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베트남의 Dong Ha, Lao Bao, Moc Bai, 캄보디아의 Battambang, Bavet, Neak Loeung, Poipet, 라오스의 동서경제회랑 주변 도시들을 사업대상지로 한다. 도시환경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회랑 도시들을 경제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해당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하수처리 시설,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기획은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regional)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말 프로젝트 승인이 이루어졌다.

[표 5-17] 메콩강 권역 타운 개발 프로젝트 개요

국가	프로젝트ID	프로젝트명	사업 규모(백만\$)	사업승인
베트남*	43319-043	메콩강 권역 회랑 타운 개발 프로젝트	130.00	2012년 12월
캄보디아+	43319-033	메콩강 권역 남측 경제회랑 타운 개발 프로젝트	54.78	2012년 12월
라오스†	43319-022	메콩강 권역 동서 경제회랑 타운 개발 프로젝트	40.83	2012년 11월

\* 출처 : ADB(2012),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6455/43319-043-vie-pam-0.pdf#page=44>. (2015.6.25.)

+ 출처 : ADB(2014), *PROCUREMENT PLAN*,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895/43319-033-pp.pdf>. (2015.6.25.)

† 출처 : ADB(201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Greater Mekong Subregion East-West Economic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588/43319-022-lao-pam-0.pdf#page=49>. (2015.6.25.)

### □ 프로젝트 조달계획

사업기획은 지역(regional)사업이지만 프로젝트는 각 국가별로 승인을 받고 실행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별 조달계획 기준을 따른다. 캄보디아에서는 공사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 라오스에서는 150만 달러 이상, 베트남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인 건설공사는 국제 경쟁입찰 절차를 따른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각 국가별로 국제 컨설턴트의 경쟁입찰 참여를 의무화하는 가격 기준이 ADB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결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Dong Ha 도시기본계획 준비, Dong Ha 도로 실시설계 등과 같이 100만 달러 이상의 컨설팅 용역 역시 베트남 자국 컨설턴트에 한정하여 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라오스의 경우와 같이 16만 달러 정도로 규모가 작은 컨설팅 용역도 국제 컨설턴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표 5-18] 주요 사업 조달계획

국가	사업	금액(US\$)	조달방식	비 고
캄보디아 <sup>+</sup>	Battambang 홍수 조절 공사	2,090,000	ICB	
	Battambang 수처리 시설 공사	14,280,000	ICB	
	Bavet 도시도로 건설 공사	8,570,000	ICB	
	Neak Loeung 홍수 조절 공사	3,980,000	ICB	
	Poipet 폐수처리시설 공사	3,970,000	ICB	
	실시설계 컨설턴트 (10개 프로젝트)	1,151,000	QCBS, FTP	국제
	건설감리 컨설턴트 (10개 프로젝트)	2,890,000	QCBS, FTP	국제
	역량 강화 사업 지원	2,480,000	QCBS, FTP	국제
	외부 모니터링 컨설턴트	140,000	CQS	국내
베트남 <sup>*</sup>	Dong Ha 도시도로 건설	27,100,000	ICB	
	Lao Bao 도시도로 건설	22,690,000	ICB	
	Moc Bai 도시도로 건설	18,310,000	ICB	
	Moc Bai 폐수처리시설	7,880,000	ICB	
	건설관리 지원 컨설턴트	2,120,000	QCBS	국제
	역량 강화 교육	960,000	QCBS	국제
	Dong Ha 도로 실시설계	1,320,000	QCBS	국내
	Dong Ha 도시기본계획 준비	3,000,000	QCBS	국내
라오스 <sup>†</sup>	Kaysone Phomvihane 도시도로 건설	10,580,000	ICB	
	Phine 도시도로 건설	6,240,000	ICB	
	Dansavanh 도시도로 건설	4,110,000	ICB	
	Kaysone Phomvihane 도로 실시설계	830,000	QCBS	국제&국내
	건설관리 지원	2,020,000	QCBS	국제&국내
	Kaysone Phomvihane 폐기물 관리 컨설팅	160,000	QCBS	국제&국내

\* 출처 : ADB(2012),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6455/43319-043-vie-pam-0.pdf#page=44>. (2015.6.25.)

+ 출처 : ADB(2014), *PROCUREMENT PLAN*,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895/43319-033-pp.pdf>. (2015.6.25.)

† 출처 : ADB(201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Greater Mekong Subregion East-West Economic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588/43319-022-lao-pam-0.pdf#page=49>. (2015.6.25.)

## 6)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지역개발계획(ABD)

### □ 사업개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빈민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카 수도권 지역계획(1995-2015)이 1995년에 수립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지역별 상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계획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체계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ADB의 추진으로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지역개발계획’을 ADB의 방글라데시 차관사업(Loan project)인 ‘지역 개발계획 컨설팅 서비스(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Consultancy Servic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수도 개발청(Rajdhani Unnayan Katripakkha, 이하 RAJUK)이 발주한 프로젝트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이며,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권 지역(Dhaka Metropolitan Area)에 대한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Dhaka Structure Plan 2016~2035)을 수립하고, 연계하여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표 5-19]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지역개발계획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RDP) Consultancy Services for City Regional Development Project</li> <li>※ ADB Loan Project, No. BAN 39298</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11~2015.07</li> </ul>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글라데시 다카 수도권 지역 (Dhaka Metropolitan Area, Bangladesh)</li> </ul>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jdhani Unnayan Katripakkha (RAJUK)</li> <li>※ Asian Development Bank (ADB)</li> </ul>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아도시연구소, (주)삼안 컨소시엄</li> <li>※ 현지업체 SHELTEC, DevCon 참여</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카 수도권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 및 종합계획 작성</li> <li>100만명 인구수용을 위한 위성도시 검토 및 제안</li> <li>실행기관인 RAJUK의 기술역량 제고</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haka Metropolitan Development Plan(DMDP) 검토 및 New Structure Plan(2016-2035) 작성</li> <li>1개 위성 도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신도시 Master Plan 작성</li> <li>도시 계획 전문가들을 위한 능력배양 및 교육</li> </ul>

\* 출처: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Dhaka Structure Plan Draft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 추진주체

사업수행기관은 ADB와 RAJUK이며, 한국 및 방글라데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컨설팅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 □ 진행과정

2011년 당시 ADB 컨설팅 사업에서 한국 업체의 수주실적은 ADB 전체 프로젝트 대비 약 5.0%<sup>84)</sup>이었으나, 도시계획 컨설팅 분야의 프로젝트 수주는 전무하였다. 다카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종합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 이후 각 부처별로 다양한 인프라 사업(도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주택 등)의 추가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호주(SMEC International Pty Ltd.), 미국(AECOM Technical Services), 스웨덴(Hifab International AB) 등 선진국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한아-삼안 컨소시엄이 현지 업체와 함께 참여하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은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사업 참여 실적(Track Record)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카 프로젝트 수주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2년 11월 계약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여 약 2.5년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 7월 국제 워크숍 개최 후 사업 종료 예정이다.

[표 5-20] 방글라데시 다카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구분	내용
2011년 3월	• 프로젝트 공고
2011년 10월	• Short List 선정
2012년 6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협사
2012년 11월	•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2015년 7월	• 국제 워크숍 개최 및 사업 종료

\* 출처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Dhaka Structure Plan Draft 보고서」.

84) KOTRA(2012), 「ADB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KOTRA자료 12-057, p.49.

## 5.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

### 1) 사업추진 배경

2014년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KOICA의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페루,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에서 주택 및 도시개발과정 현지연수(2014. 3.7~3.25)를 진행하는 중에, 방문국인 볼리비아의 Villaroel 국회 하원 부의장으로부터 볼리비아내 신도시개발 협력사업 검토를 위해 대상지인 산타크루즈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연수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에 직접 출장 연장을 건의하여 귀국일정을 3일 연기하여 현지답사를 시행하였다.

3일간의 현장답사와 추가적인 현장조사 전문가 파견, 볼리비아 측 관계자<sup>85)</sup>의 우리나라 방문과 신도시 현장 방문이 있었다. 볼리비아 측이 우리나라 기술진의 체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문팀 파견을 요청하여 2014년 7월에 현장지원팀을 파견 하였고,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시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였다.

2014년 8월 22일 신도시개발 대상지를 관할하는 Warnes시와 LH는 신도시 개발 사업관련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이어 한국기업인 OCS와 한국종합기술(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 이하 KECC)이 도시기본 구상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5-21]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

구분	내용
2014년 3월	• 볼리비아 국회 하원 부의장의 방문 요청 및 현지 답사
2014년 4.23.~5.16.	• 전문가파견 현장 조사
2014년 6.1.	• 볼리비아 측 관계자 8인 한국 방문
2014년 7.7.	• 현장 지원팀 파견 및 도시 기본구상 수립 착수
2014년 8.18.	• 분야별 전문가 추가 파견
2014년 8.22.	• Warnes市와 LH 간의 신도시개발사업관련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 한국기업인 OCS와 한국종합기술(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 이하 KECC)가 도시기본 구상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 출처 :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리.

85)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GEL社 회장과 관련전문가팀, 상하수처리업체(SAGUAPAC) 관계자, 관할시장 등 8명.

## □ 사업의 추진 주체와 방식

볼리비아의 신도시의 사업은 토지소유자인 GEL社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와 자금을 조달하고 LH는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면서, 계획 및 설계용역은 한국 기업이 GEL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구조로 수행되었다.

볼리비아측에서 사무실, 숙식, 차량, 현장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공기업인 LH의 자문팀 파견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신도시 소재지 관할지자체인 Warnes시에서 MOU 체결을 제안하여 공공성에 대한 명분도 확보하였다. 또한 LH 역시 PM계약에 따르는 리스크와 향후 국내기업 수주기회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제 비용만 지원받는 자문방식으로 참여하였다.

볼리비아는 국내와 달리 공사와 시공 시 실시설계 도면과 내역서 없이 발주자의 경험으로 공사비를 추정한 후 시공사에게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시공사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국내의 Turn-Key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주처(GEL)에서는 마스터플랜 완료시 기존의 방식으로 볼리비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LH 자문팀에서 GEL 이사회에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토록 함으로써 한국기업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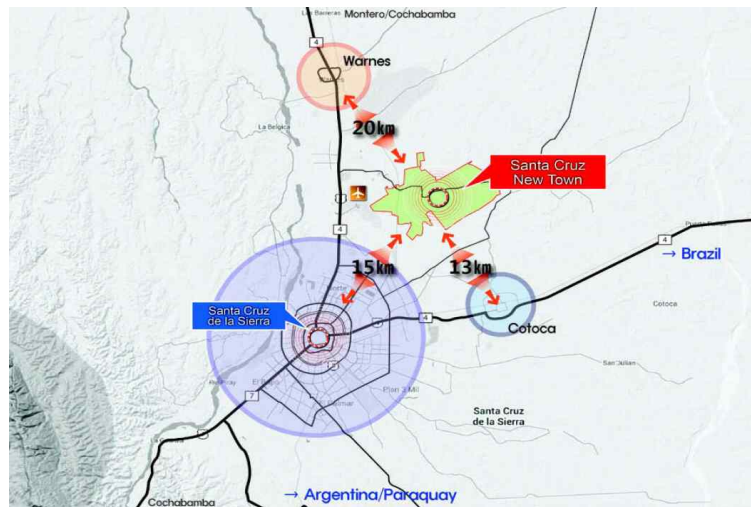
[표 5-22] 기존 방식과 LH 제안 방식의 비교

구분		기존 방식 (Turn-Key)	LH 제안 방식 (설계 입찰 분리방식)
기초자료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 실시설계 도면 + 공사비 추정견적
시공사 역할 범위		시공도면, 공사비 등 제안 및 가격협상	경쟁입찰 참여
소요 비용	설계비	10억 원 (마스터 플랜)	20억 원 (마스터 플랜 + 실시설계)
	공사비	1,000억 원	800억 원
	합	1,010억 원	820억 원

\* 출처 :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리

## □ 사업추진 일정 및 향후 일정

현재 OCS와 한국종합기술에 의해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이 완료(2015.5.31)되어 7월에 1단계 및 잔여지역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와 동시에 2016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1단계 토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신도시 설계용역을 한국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4일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5-3] 신도시 대상지 위치 현황

\* 출처: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 p.II-29.

## 2)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 □ 차별화된 개발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볼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선도적인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다음의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
- 내륙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수변도시’
- 라틴아메리카의 선도적인 개발모델이 되는 차별화되는 ‘창조도시’
- 산학연 클러스터와 주거가 연계되는 ‘복합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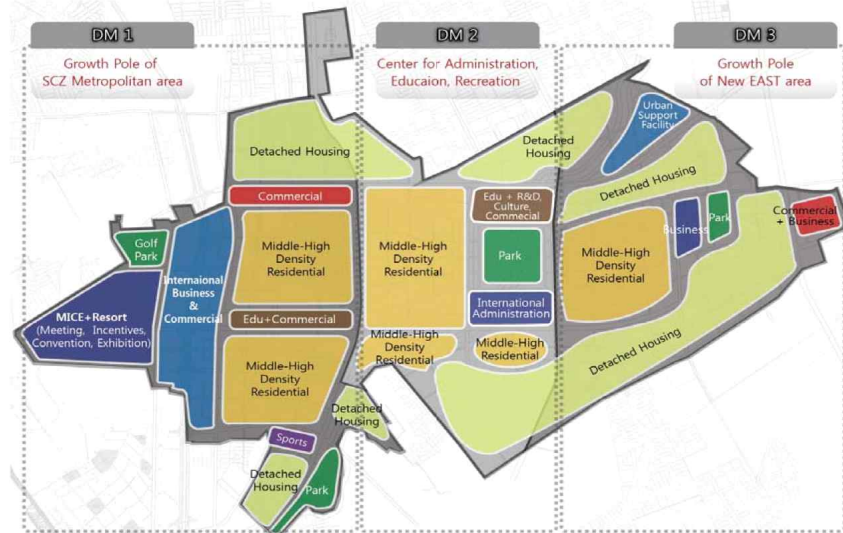


개발 기본방향은 광범위한 신도시 개발면적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망을 따라 사업대상지를 DM(Distrito Municipal, 이하 DM)-1, DM-2, DM-3로 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48개의 UV<sup>86)</sup>(Unidad Vecinal)로 구분하였다.

[표 5-23] 생활권 설정 기준

구분	UV(Unidad Vecinal)			DM (Distrito Municipal)
인구밀도 (인/ha)	저밀	중밀	고밀	약 120,000~180,000명
	50~100명/ha	150~250명/ha	250~300명/ha	
중심시설	학교, 근린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			일반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지역중심시설
공간구상	보행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동질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공간 구상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심 기능적 공간 구상

\* 출처: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 p.III-24.



[그림 5-4] 도시공간 구조 계획

\* 출처: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 p.III-16.

86) 볼리비아의 행정구역체계는 국가하위로 주(Departamento) - 도(Provincia) - 시(Municipio)의 체계로 되어 있고 시(Municipio)는 다시 구(Distrito) - UV(Unidad Vecinal)로 구분.

## 6. 시사점

다양한 ODA 프로젝트 사례의 진행과정 또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협력 사례별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표 5-24]와 같으며, 도출된 시사점을 다시 정리하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24] 국제개발 협력 사례 조사의 시사점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타분야 ODA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교육 등 타 분야에 건축분야가 포함</li> <li>• 건축물 건립은 해당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서비스 업계가 <b>ODA사업 참여 실적</b>을 쌓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필요</li> </ul>
건축 및 도시분야 ODA 컨설팅 사업과 후속사업 개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터플랜 계획 프로젝트 참여 후 연계 사업 제안</li> <li>• 수원국 측 인사들과 네트워크 형성</li> <li>• 수원국의 관련 자료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추가 사업을 발굴</b> 가능</li> <li>• 계획단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 가능</li> <li>• 해당국 정책, 경제, 인프라 등 <b>자료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b></li> </ul>
MDB 건축 사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사업에 참여하는 기준이 기관별 해당 국가별로 다름</li> <li>•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해 국제 입찰을 실시</li> <li>• 수원국 기업 활용을 장려</li> <li>• 기술 컨설팅분야에는 선진국 기업이 진출하고, 시공분야에는 현지기업이나 개도국 국가 기업이 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기관별, 국가별 조달 기준에 대한 상세 <b>조사 필요</b></li> <li>• 진출 우선순위 국가를 선정하고 사업 전략 개발</li> <li>• <b>컨설팅 사업 진출</b>을 통해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li> <li>• 수원국 <b>현지 업체와의 연계</b>를 통한 진출</li> </ul>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정부의 직접적인 협조 요청</li> <li>• 전문가 파견과 적극적인 대응</li> <li>•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기준을 적용한 설계</li> <li>• 마스터플랜 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사업 참여 기회 확보</li> <li>• ODA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마스터플랜</b> 수립시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li> <li>•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으로 <b>네트워크</b>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li> <li>• 해외 사업 유경험자 등 기존 <b>인력의 적극적인 활용</b></li> <li>• <b>ODA사업과 신도시개발 사업의 연계</b>를 위한 사업모델 필요</li> </ul>

\* 출처: 저자 작성

#### □ 건축분야 ODA실적을 쌓기 위한 타분야 ODA 활용

DR콩고 박물관 건립사업과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건립 사업과 같이 건축 분야 사업의 경우 타분야 ODA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순수한 기술 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타 분야 사업,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건축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건축서비스 업체는 타분야의 ODA사업을 ODA사업의 참여 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MDB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ODA사업 참여 경험(track records)은 중요하다. MDB나 국제기구 ODA사업을 경험이 없이 바로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글라데시 다카 프로젝트 역시 국내 컨소시엄이 이전에 ODA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하였다.

KOICA사업은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실적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므로 초기 진입에 유리하다. 따라서 KOICA사업을 EDCF사업과 MDB사업으로 가는 실적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하며, 규모가 작긴 하지만 타분야 ODA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건축부문 사업에 참여하여 ODA사업 참여 실적을 축적해야 한다.

#### □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통한 후속사업 연계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해야 한다. 후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과 항강 연안개발 사업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어떻게 후속 사업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스터플랜 상의 실행계획 단계에서 향후 도시개발 및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공공인프라 8개 분야(교통, 재해, 신재생에너지, 환경, 상하수도, 전기, 고형폐기물, 장묘) 39개 세부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제안하였고, 이 중 교통 및 관광분야 프로젝트가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수행 중이다.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을 우리나라가 수립할 경우, 이후 단계인 개별 인프라의 시공 단계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인문,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조사와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현지 네트워크 역시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다.

## □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ODA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관된 사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수원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계획 수립과 후속 사업 등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 후속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성장 또는 시장 등 수원국의 의사결정주체와 초기 방향설정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은 베트남 수상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 협의 및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서는 ADB, WB 등 타 ODA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하다. 후에시 프로젝트 역시 ADB의 그린시티 프로그램(Green Cities Initiative)과의 연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기반의 MDB 기관과의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후속 사업의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및 과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같은 적극적 대외 활동을 통해 수원국 정부 및 관련 ODA 기관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다양한 투자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 MDB 사업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WB, IDB, ADB 모두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사 및 컨설팅 조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IDB의 경우 각 국가별로 건설공사에 대한 국제경쟁입찰 요구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국제 참여자풀 선정 요구를 위한 가격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인 도시건축분야 컨설팅용역의 금액이 낮아 국제입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원국 내 컨설팅회사나 개인 컨설턴트가 주로 선정된다. 국가별 차이 역시 크며, 아이티, 온두라스, 벨리즈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국제입찰 및 국제 컨설턴트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및 컨설팅 용역 금액 기준은 건설공사 100만 달러, 컨설팅 10~20만 달러로 낮다. 반면에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국제 공모가 되는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며, 최근 해외국가의 수주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ADB 역시 각 국가별로 국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사업의 가격 기준이 있으며, IDB의 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아 해외 건설회사의 참여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각 국가별로 국제경쟁입찰을 위한 사업의 가격기준을 명시적하고 있지 않다.

조달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예시를 통해 인적 평가의 비중이 총점의 최대 70%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평가 배점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부문 기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입찰방식, 입찰 참여기준, 해외기업 참여 가능성 여부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조달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수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 사업(메콩강), 유사한 사업이 단계적으로 승인받아 진행되는 사례(그루지아), 소규모 사업(몽골) 등 각각의 사업에 따라 조달계획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MDB 기관은 모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달계획서, 공사 입찰공고문 등 광범위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컨설팅 사업의 부문별, 금액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과 건설공사의 종류별,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해외 업체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 및 분야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을 위한 사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TA 사업 진출의 활성화

MDB 사례에서 보였듯이 건설공사의 경우, 소규모 사업은 차입국 우선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경쟁입찰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차입국의 건설업체에서 수주한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도 소규모 사업 또는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용역은 대부분 차입국의 현지 업체에서 수주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관리 및 감리,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에서는 베트남 중규모 도시개발과 도시업그레이드 사업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컨설팅사업(TA)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비록 ODA 사례는 아니지만 볼리비아 사례에서 LH 자문팀의 노력으로 기존의 자국 기업에 발주하는 방식에서 외국기업(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

요가 있다. MDB 사업은 차관 제안서(loan proposal)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입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므로, 가급적 사전 기획 단계에 국제입찰이 가능한 사업규모로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 현지화 전략

현지 업체와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MDB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의 세부 사업이 국내 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제2장의 MDB 기관들의 컨설턴트 선정 기준에서 보듯이 현지 전문가의 참여나 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중요한 평가 요인이다. 따라서 현지 업체와의 joint venture를 통한 공동입찰은 현지 전문가의 사업 참여로 이어지므로, 지역에 대한 이해 부문에서 key expert 평가, 지식전수(transfer of knowledge) 부문에서의 평가,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사업 전략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 수행 실적이 미비한 국내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해외 업체와 joint venture를 통하여 사업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수행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 사업은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현지 업체와 함께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이다. 컨설팅용역은 사업 참여 기업 뿐 아니라, 책임기술자 등의 경력 및 실적 역시 평가의 주요소로 작용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해외 컨설팅사업 실적을 가진 도시건축분야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현지의 잠재적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기술 인력의 확보와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 □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ODA를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 및 전기통신시설 등 각종 인프라사업과 주택, 병원, 학교 등 상부구조물 건축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규모가 방대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첨단기술이나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는 단순한 토목이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수주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ODA 자금을 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설해야 하며 이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볼리비아의 사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대상지의 일부 시설, 병원, 학교 등의 인도적이고 ODA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을 ODA사업으로 시행하는 연계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시개발과 ODA사업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기업들의 후속 관련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 중 주택,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MDB와 현지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자금을 모두 활용하여 ODA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모델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하고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전문인력의 활용

우리나라는 우수한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 신도시 자문팀 역시 현직에서 떠났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LH의 전문직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신도시개발 기술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기본구상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5,778ha에 달하는 단지설계용역도 한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첫째, 볼리비아의 사례처럼 KOICA의 전문가 파견제도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 전문가팀을 파견하는 것이다. KOICA 연수과정에서 많은 신흥국들이 볼리비아처럼 도시개발 전문가를 파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문팀의 체재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건축이나 도시개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발굴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전문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해외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강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인력 pool을 만들어 교육 전문강사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장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 활용전략과 개선방안

1. ODA활용 전략
2. 단기 방안
3. 중기 방안
4. 장기 방안
5. 제도 개선방안

### 1. ODA활용 전략

기업의 입장에서 ODA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ODA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저개발국가의 개발과 국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점은 ODA사업이 일반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과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ODA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역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ODA사업에 진출하는 근본 목적과 이익 및 손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ODA사업을 해외 사업을 위한 투자와 경험 축적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MDGs체제 하의 ODA사업에서 건축분야는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SDGs체제 하에서는 건축과 도시 분야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분야에서 OD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작성

ODA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대상국의 자체 재정 사업이나 민간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ODA사업 → MDB사업 → 타국가 비구속성 사업 → 국제기구 금융투자사업 → 해외진출 대상국 재정사업 또는 민간발주 사업의 순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sup>87)</sup>, 국내 ODA사업 → 타국가 비구속성 사업 → MDB사업 → 국제기구 금융투자사업 → 해외진출 대상국 재정사업 또는 민간발주 사업의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여건에서 민간발주나 진출 대상국의 발주 사업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현지 물가가 불안정하고, 우리나라와 현지의 물가차이로 인해 설계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은 국제기구 금융투자 사업까지가 진출의 최대 목표이며, MDB사업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DB사업 진출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을 작성하는 이유는 MDB사업까지의 단계만을 고려하더라도 목표 달성까지 많은 시간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본적인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국가 로드맵에는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 로드맵의 포함 내용

- 
- 해외진출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 정비 방안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업체와의 협력 지원 방안
  -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방안
  - 국가의 지원방안과 민간의 활동
  - ODA를 활용을 지원 방안
  - ODA사업의 발주 금액 합리화 방안
  -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방안
- 

\* 출처 : 저자 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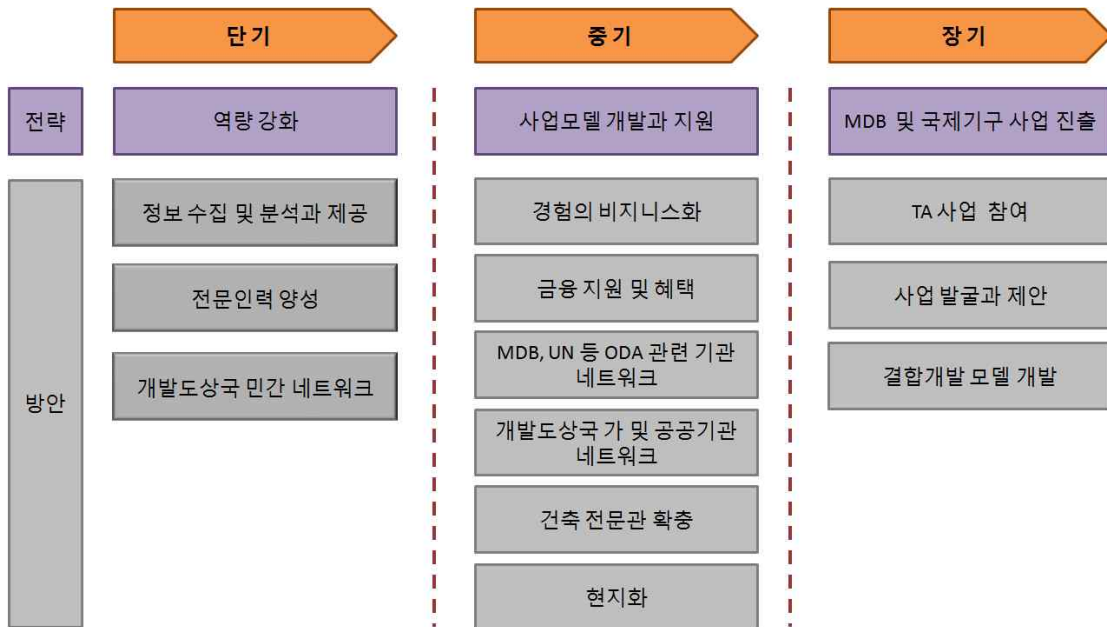
87)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8.

## 2)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전략과 방안

ODA사업을 획일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KOICA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MDB나 국제기구, 외국 원조기관의 발주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차이가 크다. 따라서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건축분야가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ODA 정책(3장)과 해외진출 관련 연구(3장), ODA관련 사업 사례(4, 5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단기 전략에 역량강화, 중기 전략에 ODA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 장기 전략에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제시한다.

단기 전략은 MDB 및 국제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중기 전략은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ODA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ODA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MDB와 국제기구 사업의 수주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림 6-1] ODA활용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방안

\* 출처 : 저자 작성

□ 단기 전략 : 역량 강화

단기 전략과 방안		
	전략	ODA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기업이 원하는 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공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발굴과 관리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민간네트워크 형성	수원국의 관련 전문가와 기업 등의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여 네트워크 형성 지원

ODA사업에서 건축분야의 수주 규모는 KOICA가 발주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다. 이는 건축분야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드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분야의 능력이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 발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ODA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부족한 정보는 사업 진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막상 진출하더라도 손해를 볼 확률을 높게 만든다. 이런 점이 회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서비스업체가 해외 사업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따라서 역량 강화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제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ODA사업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 관련 정보는 현지 민간 전문가나 기업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수원국의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 중기 전략 :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

중기 전략과 방안		
	전략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위한 ODA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 환경 마련
방안	사업모델 개발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ODA 비즈니스 모델
	건축 전문가 확대	ODA 수행기관에서 ODA사업의 건축부문을 관리할 전문관 확충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보증과 대출 지원, MDB 및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네트워크 형성	MDB 및 수원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사업 정보 획득
	현지화	현지 중심의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지화

강화된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중기전략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다른 공여국과 달리 수원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조 외에도 수원국의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업모델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KOICA의 사업 등 우리나라의 ODA사업에 적용하여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우리기업은 track records를 쌓아야 한다. 이후에 MDB나 국제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업모델 개발과 더불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ODA 수행 기관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KOICA는 현재 건축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문가의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모델은 장기적으로 MDB와 국제기구 사업을 위한 것이며, MDB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사업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MDB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MDB와 국제기구 등 ODA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수원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역시 강화하여 사업의 발굴과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 전략 단계에서 진행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사업 관계자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어 향후 개발도상국 정부와 MDB의 사업에서 사업 발굴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게 얻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점 증대하고 있는 적정기술 활용과 현지 중심의 사업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장기 전략 :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

장기 전략과 방안		
전략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
방안	TA사업 중심의 진출	후속 사업 연계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TA사업 수행
	사업 발굴 및 제안	우리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MDB와 국제기구 ODA 사업 발굴과 제안
	협력개발 모델 개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부터 최종 관리까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델 개발

장기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으로 MDB와 국제기구의 다자원조 사업에 진출하여야 한다. 다자원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 TA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WB나 IDB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수주실적은 거의 없고, ADB사업의 경우 2014년까지의 누적 수주율은 4.9%로 우리나라의 ADB 지분율인 4.35%와 거의 유사하다<sup>88)</sup>. 사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공분야에서는 점점 경쟁력이 약화 되는데 추세이며, 컨설팅 분야(TA)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 분야의 증가가 시공분야의 감소를 보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시공분야는 이미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와 현지 기업들이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에 우리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면 다자원조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활동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결국 컨설팅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이 후속 사업에 진출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88) ADB(2015), *Asian Development Bank & Republic of Korea : Fact Shee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7792/kor.pdf>. (2015.7.4.)

## 2. 단기 방안

### 1)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	
목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여 ODA사업 진출 지원
정보 수집 대상국	ODA 중점협력국 26개국
정보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정보</li> <li>• 법률 정보</li> <li>• 기술 정보</li> <li>• 문화 및 관습 정보</li> <li>• 현지 기업 및 전문가 정보</li> </ul>
정보 관리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자료의 국가별, 항목별 DB화</li> <li>• 분기별 자료 업데이트</li> <li>• 국가별 리스크 분석</li> <li>• 지역별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발간</li> </ul>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건축서비스 관련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이다. 기업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해외사업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는 비록 관련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 모두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생각하므로 쉽게 타 기업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 노력을 들일 여력이 없다.

다른 문제는 비록 타기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자료가 수집된 시점과 사용하려는 시점이 큰 차이가 있다면 수집된 정보는 신뢰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가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항목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 현지의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조사 항목은 물가정보, 기술정보, 법률정보, 현지 문화와 관습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가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이며, 사업비 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물가가 대체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현지인을 고용할 때 임금 자체는 낮을 수 있으나 모든 물품이 싼 것은 아니다.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물가의 변동 폭이 아주 크다. 정치의 불안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물가가 급속히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개발 등의 소문에 의해 담합 등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물가 정보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를 추정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소 불안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리스크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리스크 분석은 우리나라와 사업대상지간의 다양한 차이와 현지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리스크 분석에 나타난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정보는 대체로 수원국의 기술 수준과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물품과 수입에 의존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건축서비스분야의 기술기반이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 기반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당국가가 구소련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사전정보 없이 쉽게 진입하기 힘들 것이다.

정보자료 수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많은 서식이나 방식이 현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산산정을 위해 철근의 가격을 산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물품, 즉 철근의 굵기에 따라 각 종류마다 기재하고 가격을 산정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런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공의 종류에 따라서, 즉 건물의 바닥을 정지하는 작업을 한다면 인건비와 소요 자재비용 등을 묶어 산정한다. 이런 경우 우리 업체는 서로 다른 양식으로 인해 몇 번의 작업을 거쳐야 하며, 현지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알지 못할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양식과 방식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수원국의 법령이 우리나라와 같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듯이 일이 진행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 현재 해외진출 시 사용하는 계약서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참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정보와 더불어 표준계약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화된 문서서식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기업이 해당국에 진출할 때 현지에서 협력이나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습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인과 접촉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국가별로 하는 것이 최선이며, 조사 대상 국가는 CPS에서 우선시하는 26개국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하여야 한다. CPS 중점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자료의 DB화 및 관리, 제공

정보란 수집하고 분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제공되어야 가치가 있다. 상당수 민간 기업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모른다든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양한 자료가 개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 예로 KOICA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나면 사장되든지, 자료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재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공·민간의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분석 및 제공하는 것이 자료 수집만큼 중요하다.

자료 수집과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공공의 업무이며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관과 공공이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민간 기업이 수집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다시 제공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의 자료 수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관심대상과 분야에 국한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

기 힘들다. 따라서 관 또는 공공이 주도가 되어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업데이트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기적으로도 최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자료 항목별로 상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와 백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공 정보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정보사용료를 일정액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 분야의 경우 각 국가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을 묶어서 ‘건축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으로 발간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현저히 다른 자연 환경과 전기, 수도 등의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건축 방식을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 특히 ODA사업은 현지에서 적용과 유지가 가능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술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제공이 필요하다.

## 2)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목적	ODA사업을 위한 전문가 인력 양성
양성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건축 분야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CM 전문가) 양성</li> <li>• 사업 발굴 및 개발 전문가(Developer) 양성</li> <li>•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Coordinator) 양성</li> <li>• MDB 전문가 양성</li> </ul>
주요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에 대한 이해</li> <li>• 건설 사업관리 (CM)</li> <li>• 부동산 개발과 금융</li> <li>• 사업관리(PM)와 계약 및 품질관리 등</li> <li>• MDB 기관 채용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li> </ul>

전문인력은 3분야로 구분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CM전문가를 양성하여 건축 업무관리의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 개발자(Developer)와 전체 사업을 구성하고 진행 관리 등을 책임지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취약 부문인 국제기구 종사자의 양적 확대이다.

ODA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는 ODA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인재이다. ODA사업은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공익성과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ODA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즉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사회 인프라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지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ODA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언어 능력과 개발도상국을 이해하려는 의지이다. 언어 능력이란 단순히 영어 구사의 문제가 아닌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문제이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언어능력이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활동해야 하는 국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익을 얻거나 원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수원국 관계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향후 사업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 □ CM 전문가 양성

인력양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는 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ODA사업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 설계, 시공, 사후 관리의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M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CM, PM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반적인 건설 사업에 대한 과정으로 ODA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에 ODA사업에 대한 과목과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6-2] 건설기술교육원의 CM교육과정

구분		내용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고조 및 필요성의 인식으로 단기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C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li> </ul>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당 5일(35시간)</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0,000원(교재비 포함)</li> <li>•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거 납입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 환급</li> </ul>	
교과목	CM과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단계 프로젝트관리</li> <li>• 입찰 및 계약관리</li> <li>• 공정관리</li> <li>• 건설사업 정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리더십</li> <li>• CM표준절차</li> <li>• Constructability</li> </ul>
	CM과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레임과 분쟁처리 방안</li> <li>• CM 수행 사례</li> <li>• 설계변경과 VE</li> <li>• 의사소통관리 및 인적자원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FS)</li> <li>• 프로젝트 파이낸싱</li> <li>• 품질관리(QA/QC)</li> </ul>
	CM과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li> <li>• 건설사업 관리 사례</li> <li>• 건설회계 실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li> <li>• 건설안전관리</li> <li>• Lean construction</li> </ul>
	CM과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CM 기술평가를 위한 전략</li> <li>• CM 업무 수행 사례</li> <li>• 시설관리의 이해</li> <li>• Sustainabil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전략과 기술</li> <li>• PT 기획 및 제안서 작성기법</li> <li>• 건설사업 관리 사례</li> </ul>

\* 출처 : 건설기술교육원(2015), “교육안내”, 「건설기술교육원」, [http://www.kicte.or.kr/2012\\_kicte/edu/edu\\_cm.asp](http://www.kicte.or.kr/2012_kicte/edu/edu_cm.asp). (2015.10.25.)

#### □ 사업 개발자(Developer)의 양성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건설 현장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ODA사업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재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개발자(Developer)이다.

ODA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하는 사업이지만, 요청 이전 단계인 사업의 발굴은 수원국과 공여국,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ODA로 적절한 사업을 수원국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수원국 관계자가 원조를 제공해 줄 공여국을 찾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ODA사업보다는 MDB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더욱 유용한 방식이며, 사업을 발굴하여 ODA사업 자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사업의 발굴과 개발 능력을 가진 인재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표 6-3]과 [표 6-4]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발굴과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보다는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을 위한 대학원 과정으로 교육의 대상자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존의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수행하던 업무

를 단순히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관계자에게는 유용하지만, developer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개발자 교육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교육 내용에는 ODA에 대한 이해 및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건축과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개발과 유사하며, 자금 조달 방안 등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금융, 건축, ODA 4가지에 대해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표 6-3] 해외건설 인력 양성 사업(2014년도)

주관기관	사업	교육내용	교육 과정
해외건설 협의회	현장훈련지원 (OJT)	중소 중견 건설사가 채용한 신규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 시 훈련비용 지원	2015년 300명 규모 파견비용180만원 한도/인 훈련비 80만원/인,월 6~12개월, 업체당 20명
해외건설 협의회	해외건설 교육훈련	재직자과정 : 수주관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초급(2개 과정), 중급(8개 과정), 고급(4개 과정) 3단계 과정 당 3~5일
해외건설 협의회		인력양성과정: 대학생 인력양성 과정 전직전환 취업과정	2~3개월 과정
(재)건설 산업교육원	해외건설 플랜트 과정	플랜트 현장 실무 교육	졸업자 및 재학생 350시간(50일) 과정 훈련비 무료, 매월 316천원 지원
(재)건설 산업교육원	해외 비즈니스 과정	PM, 협상 수주분야 교육	340시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재)건설 산업교육원	해외 비즈니스 플랜트 혼합과정	플랜트 과정과 비즈니스 과정 혼합	350시간
건설기술 교육원	해외플랜트건설 기술인력양성	해외플랜트 인력 양성	22개 대학과 학점인정협약 공과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주간 300시간/ 단기 180시간 야간 180시간
건설기술 교육원	해외건설공사 실무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응능력 및 직무 능력 향상	35시간(5일) 단기 과정

\* 출처 : 해외건설협회(2015), “주요사업”, 「해외건설협회」, [http://kor.icak.or.kr/ach/ach\\_11.php](http://kor.icak.or.kr/ach/ach_11.php). (2015.9.18.)  
 (재)건설산업교육원(2015), 「(재)건설산업교육원」, <http://www.con.or.kr/index.asp>. (2015.9.18.)  
 건설기술교육원(2015), 「건설기술교육원」, [http://ha.kictc.or.kr/kor/kictc\\_2/kictc\\_1.jsp](http://ha.kictc.or.kr/kor/kictc_2/kictc_1.jsp). (2015.9.18.)

[표 6-4]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사례

설립목적	글로벌 도시수출 및 건설 전문가 양성 개도국 성장 지원,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추진연혁	2012.08. 교육부 인가, 2013.03 1기 입학식		
학위과정	글로벌 건설학과	글로벌 건설경영 전공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 및 해외건설업체 등의 임직원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전공	
		글로벌 인프라개발 전공	
	첨단 녹색도시 개발학과	첨단녹색도시개발전공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	도시행정 및 계획전공 (MUAP)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및 외교부 지정 중 점 협력국 도시공무원(서울시 ODA사업)
국토개발정책 전공 (MURD)		KOICA 협력대상국 국가공무원 대상 (KOICA ODA사업)	
연수과정	서울시정 사례연구	서울시 4-5급 공무원 특강 및 토론	
관학협력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KOIC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출처: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27.

#### □ ODA사업을 위한 Coordinator 양성

ODA사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과 공여국 정부 이외에도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원과 현지의 제도 및 기술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sup>89)</sup>.

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시작과 종료까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계약관계, 기관 간 업무조율, 설계 및 시공 등 각 단계별 품질관리,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율 등 다방면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코디네이터의 양성은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현장까지 상당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이론과 경험을 동시에 습득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건축분야의 업무만이 아닌 프로젝트 내의 타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며, 특히 상당수 건축 ODA사업이 타분야 사업의 일부로 시행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건축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양성하기 위해 타분야 ODA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 외에 타분야 ODA사업자가 건축분야를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디네이터로 양성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9) 방설아(2014), “공적개발원조(ODA)와 KOICA프로젝트 건설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5(4), pp.33-36.

## □ MDB 및 국제기구 종사자 양성

국가별로 수행하는 양자원조와 달리 MDB와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ODA사업은 개별 국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MDB와 국제기구 종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업형성과 수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즉, 사업의 형성과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해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MDB와 국제기구에 연락할 수 있는 contact point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 종사자는 당사자의 친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기업이 MDB나 국제기구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출신이 MDB와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경우는 다소 드물다. 단순히 파견 또는 경험의 개념으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MDB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여러 분야에 걸쳐 충분히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이런 MDB나 국제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MDB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MDB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인공고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류전형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항, MDB에서 실제 요구하는 지식, 인터뷰에서 대응요령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MDB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험이다. 따라서 MDB에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들이 MDB를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MDB 근무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강연회 등을 통해 MDB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MDB관련 인력양성의 대상이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다. MDB, 특히 지역개발은행은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도국 현지 인력을 친한파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MDB기관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지, 자체적으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자국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 친일본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MDB등에 취업한 후 일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개도국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장학금을 제공하여 이들을 친한국적 인적자원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 3) 수원국 민간 네트워크 강화

수원국 민간 네트워크 강화	
목적	수원국의 전문가 집단,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양성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업체 및 전문가 정보 자료 구축</li> <li>• ODA사업의 성과 관리를 통한 현지 평판 관리</li> <li>•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대학원 이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li> </ul>

현지 정부관계자와의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뿐만 아니라 ODA사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 업체 및 전문가와의 관계 확대는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사업 파트너를 모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원국 현지의 다양한 계층과 형성된 네트워크는 현지의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물가정보, 인력 정보 등 정보 수집에 큰 도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 중 특히 현지의 관련 업체와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우리기업이 현지 진출할 때 정보 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시 ODA사업을 잘 관리하여 현지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국제기구나 MDB사업의 경우 ODA사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점점 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 하고 있다. 한 기업이 부정적 인상을 현지에 남기게 된다면 이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잘 관리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수원국 정부관계자와 현지 주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수원국 현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직원에게 현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대학의 교수와 졸업생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 대학에서 수학을 원하는 직원에게 장학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 3. 중기 방안

#### 1) 우리 경험의 비지니스화

우리 경험의 비지니스화	
목적	우리나라의 과거 개발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ODA사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비즈니스 모델의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분야 특성상 새마을 운동과 같은 여러 분야 통합 모델의 일부로 개발</li> <li>• 주거개선 및 개발과 같은 Post-2015체제를 위한 모델 개발</li> <li>•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적정기술 활용</li> </ul>

수원국 관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국가개발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점이다. 수원국 관계자가 우리의 앞선 기술과 멋진 시설물에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이 실제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원국에게 실제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DA 원조 국가와 달리 ODA원조를 경험했고,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과거 경험을 찾고, 정리하고, DB화하여 수원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새마을운동 ODA이다. KOICA 새마을운동 ODA는 수원국 정부와 마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 제공과 종합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마을운동 ODA의 경우 다양한 섹터의 통합적 프로그램 추진이 특징이며, 건축분야 역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KOICA는 새마을운동 ODA의 주거환경 개선의 전반적인 방향과 적정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서비스 분야가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지역 저소득 층 주거지역 개선 또는 건설 등이 될 것이다. 도시지역 주거단지는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새마을사업 자체가 여러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이므로,

주거단지 개선과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의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또는 건축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확장할 수 있다.

기존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모델은 ODA 전 분야를 모두 통합하여 보여주고 있어 분야별 내용이 다소 간략하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발전된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적정기술 사례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표 6-5] 새마을운동 ODA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세부 개발 전략

구분	세부 내용
안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충이나 야생동물로부터의 안전성</li> <li>• 더위나 추위 대책</li> </ul>
위생성과 편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개선</li> <li>• 부엌 개량</li> <li>• 창문달기</li> </ul>
편리성과 쾌적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편리성 제고</li> <li>• 공간 분리를 통한 쾌적성 제고</li> </ul>
문화와 여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문화에 따른 문화의 사교 공간의 적절한 배치</li> <li>• 정원과 채마밭 가꾸기</li> </ul>
내구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구성이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건축</li> </ul>

\* 출처: 정기환 외(2014),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KOICA, pp.341-354. 정리

[표 6-6] KOICA 새마을 운동 ODA의 건축분야에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원칙

구분	내용
특징	깨끗한 물의 확보가 가능하고 하수 시설이 가능하면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함
원칙	건축물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어야 함
적정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하고 분명한 조합 및 디자인</li> <li>• 가능한 목재의 사용</li> <li>• 간단한 시스템 및 배관시설 사용</li> <li>• 건설현장에서 빗물제거</li> <li>• 더운 지역에 냉각시설, 추운 지역에 난방시설을 갖출 것</li> <li>• 1, 2층의 간단한 건축물을 지향</li> <li>• 기본적인 필요로서 전기의 사용</li> <li>• 화재유발 물질에 대한 주의</li> <li>•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접근에 대한 고려</li> <li>• 급수나 하수시설에 플라스틱 파이프 사용</li> </ul>

\* 출처: KOICA(2014), 「KOICA 새마을운동 ODA 추진 안내서(ver.1)」, KOICA, p.17.

## 2) 금융 지원 및 세금 혜택

금융 지원 및 세금 혜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등 국제기구 ODA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의 출처 마련</li> <li>• 세금 혜택을 통한 ODA사업 진출 활성화</li> </ul>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에서 건축과 도시분야 사업을 위한 보증 규모 확대</li> <li>•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방안 마련</li> <li>• ODA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li> </ul>

### □ 보증업무의 강화

해외사업을 위해 우리기업이 겪는 큰 어려움은 현지 또는 국내에서 적절히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대출구조는 단기 고금리 구조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수행하는 사업은 위험부담이 높아 충분한 대출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여 필요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DCF가 제공해주는 보증은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과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 유일하다. 현재의 EDCF 보증구조로는 우리 기업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힘들다. 반면에 일본의 JBIC의 경우 일본기업의 자회사가 현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수원국 현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보증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중소기업의 건축도시설계 기업이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기는 힘든 구조이다.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보증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건설 플랜트 산업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모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sup>90)</sup>.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업이 활용 가능한 특화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사업 전 분야에서 시행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ODA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증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조달시장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여국과 MDB 등의 개발 주체 역시 PPP 방식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ODA사업의

90)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16.

재원을 개발금융, 개발차관, 민간 자본 등의 복합체제로 운영하면 리스크 분산의 장점과 더불어 우리기업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수원국이나 MDB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MDB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증대시킬 수 있다.

[표 6-7] 복합금융 사례

구분	내용
독일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은행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허성이 낮은 개발차관(Development loans), 상업성 프로모션 차관(Promotional loans)을 통해 전체 개발금융의 64%를 조달(2008~2012년 평균)<sup>91)</sup></li> </ul>
프랑스개발청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li> <li>2013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12억 유로)의 4배인 약 48억 유로를 조달</li> </ul>

\* 출처: 정지원 외(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9.

† 출처: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17.

## □ 세금 혜택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수원국과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덜 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리기업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국내업무와 해외업무가 연결되어 있어 출입국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ODA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면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ODA사업이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을 쌓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세로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본다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91) 정지원 외(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9.

### 3) 해외 네트워크 형성과 활용

해외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용	
목적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건축서비스 기업의 MDB 발주 사업 및 TA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등 국제 ODA 관련 기관</li> <li>•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li> </ul>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관계자 초청 및 강연 기회 확대</li> <li>• MDB를 통한 장학금 제공</li> <li>• 국내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연수생 초청을 모두 포함하는 국별 동창회</li> <li>• 우리 기업과의 Fair 개최를 통한 교류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요구 청취 기회 제공</li> </ul>

후에시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1회성 사업이 아닌 후속 사업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 해외 네트워크의 형성은 다양한 조직의 전 방위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은 인력과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유리하므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경우 개별 기업별로 활용하겠으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 MDB등 ODA 관련 기관 네트워크

MDB 사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국제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MDB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MDB관계자와의 네트워크는 이런 사전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MDB 직원들이 대부분 특정업무만을 수행하지만, 일부는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직원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발굴연구 초기단계부터 경험을 공유하여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MDB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좋고 안정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MDB에 적극 진출하고 이들을 통해 점점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기 힘든 성과이므로, 단기적으로는 MDB의 다양한 업무 관계자를 초청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MDB 관계자 초청시 ODA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에

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DB기관과 장학금 제도 등을 같이 운영하여 친한국 인사를 점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 □ 개발도상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기존의 네트워크 형성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연수생을 초청한다던지 수원국 관계자와 만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수생, 관계 공무원 초청 등을 통해 만들어진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연수생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동창회 개념의 모임 조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에서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런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을 더욱 확대하여 KOICA의 연수생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연수생이나 초청 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별로 동창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KOICA 등의 전문기관에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이나 공무원의 초청을 통한 네트워크는 사실 민간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수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정작 건축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기업에 대해서 알고 만날 기회가 적다. 우리 기업 역시 ODA사업을 수주하고 참여하기 전에는 수원국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적다. 따라서 우리기업과 수원국 관계자가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원국 관계자와 우리 기업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수원국 중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관계자를 초청하고, 우리기업의 관계자 역시 초청하여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ODA 사업 Fair(가칭)를 여는 것이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기업과 수원국 모두 서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수원국과 기업이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수생 초청사업에 우리기업 관계자가 회사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 역시 유용하다. 연수생 초청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실무자도 있지만, 정부 고위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수생 초청 사업을 우리기업의 홍보와 소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4) 건축 관련 전문가 확대

건축 전문가 확대		
목적	ODA관련 기관의 건축분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	
방안	1단계	KOICA의 건축전문관을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확보
	2단계	타 ODA 기관에 건축전문관 신설

현재 우리나라의 ODA 기관에 건축 관련 전문가는 많지 않다. KOICA의 경우 건축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KOICA의 지역별 팀을 묶어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문관을 배치하고 있다. 건축전문관은 CM 관리 및 지원, 설계 및 기술, 시공 자문 등의 업무를 지역별 요구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표 6-8] KOICA의 건축전문관 업무와 담당지역

구 분	담당지역 및 주요업무	근무 위치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지역 : 지역총괄팀,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팀(1),</li> <li>건설사업 제도개선 및 표준화 총괄</li> <li>CM 관리 총괄</li> </ul>	지역총괄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지역 : 서남아시아팀, 동북아태평양팀, 중동중앙아시아팀</li> <li>CM 관리 지원</li> </ul>	서남아시아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지역 : 중남미팀, 서아프리카팀(2)</li> <li>필요시 설계분야 기술자문 총괄</li> </ul>	중남미팀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지역 : 동남아시아1팀, 동남아시아2팀</li> <li>필요시 시공분야 기술사항 자문</li> </ul>	동남아시아1팀

\* 출처 : KOICA 내부자료, 「건축전문관 업무분장 및 배치계획」.

2015년 2월 기준으로 총 136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전문관의 수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 건축자문관을 국가별로 운영하지 않고 KOICA가 사업 섹터를 몇 개씩 묶어서 건축전문관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JICA는 국가별로 건축전문관을 파견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점진적으로 건축전문관을 KOICA 사업지역별 또는 국가별 파견하여 건축전문관의 수를 늘려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 6-9] KOICA 건축전문관의 지역별 업무량

지역 부	사업팀	지역 CM社	기획	집행 계획	설계입찰 및 설계	시공 입찰 및 시공	준공 후 및 사후관리	합계	사 업 수
아 시 아 1 부	동남아1팀	(주)토펙엔지니어링	2	1	14	3	5	25	37
	동남아2팀	(주)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1	1	5	3	2	12	
아 시 아 2 부	서남아시아팀	(주)삼우씨엠	6	1	4	6	1	18	40
	동북아태평양팀		2	0	3	2	2	9	
	중동중앙아팀	(주)한미글로벌 건축사사무소	0	1	8	2	2	13	
아 프 리 카 중 남 미 부	중남미팀	(주)정림종합 건축사사무소	5	0	5	9	0	19	27
	서아프리카팀 (2)	(주)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1	1	2	3	1	8	
	동아프리카팀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3	1	8	6	4	22	32
	서아프리카팀 (1)	(주)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0	1	5	2	2	10	
합계			20	7	54	36	19	136	

\* 출처 : KOICA 내부자료, 「건축전문관 업무분장 및 배치계획」.



## 5) 현지화

현지화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사업 수행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기업과 하도급 및 공동 수급 등의 방식을 통한 경쟁력 확보</li> <li>• 현지 문화와 환경 여건에 적합한 건축방식 도입</li> </ul>

5장에서 살펴본 MDB 사업 사례를 통해 최근의 사업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현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주 현황 역시 주변 지역의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업들이 거의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지화가 필요하다.

현지화를 하는 방법은 현지인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법,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방법, 현지의 특성을 맞춰 설계·시공 등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방법은 현지의 사업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수행하기 힘들다. 반면에 현지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현지인의 과도한 임금 요구나 현지에서 실제 산정되는 비용보다 하도급 비용이 2~3배 정도 높아지는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 현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시공은 현지 특성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업체는 시행착오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KOICA의 경우 우리기업이 현지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문제, 현지의 설계관련 규정, 법규, 재료와 공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하도급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아시아권에서는 다소 덜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경우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뒤떨어지지만 건축 관련 법규와 규정은 유럽의 영향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설계도서부터 각종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지인의 고용 없이 우리나라 인력만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위해 현지기업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파트너로 함께 참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외에 우리기업이 현지의 특성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현지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설계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경우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에어컨 등의 전기 사용 기구를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을 설치하여 고온 다습한 기온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실패작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하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가 싼 수원국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고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면 수원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합작이나 현지인 고용 등의 현지화전략에서 점차 기술과 재료, 설계 컨셉 등을 철저히 현지화하는 전략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지화는 수원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 4. 장기 방안

### 1) TA사업 참여와 사업의 발굴과 제안

TA사업 참여와 사업의 발굴과 제안	
목적	MDB 및 국제기구 발주사업 수주와 참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사업 참여를 통한 track records와 사업 경험 축적</li> <li>• 신규 사업 발굴과 제안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창출</li> </ul>

현재는 시공분야에 대한 참여가 주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ODA 사업에서 중요 시해야 하는 경험은 TA사업에 참여한 경험이다. MDB 기구는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50~100만 달러 규모의 TA사업을 발주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과 본 사업의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

TA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당성을 분석하고 설계를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전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TA사업의 중요성은 건축분야보다 더 크다. TA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수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MDB 기구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비록 TA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직접 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TA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요구하는 상세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고, 필요 기술과 공법, 조건 등을 TA사업 수행국가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등 TA 수행 국가의 타 기업이 본 사업을 수주하고 시행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TA사업을 통해 해당 수원국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조건의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업체는 KOICA의 DEEP사업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주는 TA사업과 같은 분야에서 track records를 쌓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ODA 사업을 MDB나 국제기구 사업에 입찰하기 위한 track records를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TA사업 참여를 통해 쌓은 경험과 단기방안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정보수집 및 분석, 제공 능력, 중기방안의 사업모델 개발, 금융지원,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2) 결합개발 모델 개발

결합개발 모델 개발	
목적	개발부터 관리까지 여러 관련 분야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사업 수행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고민 상담부터 시설물 관리까지의 Tota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li> <li>• 민관협력시스템 구축</li> <li>• 참여기관 및 기업 간 업무 조율과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 설립</li> </ul>

MDB 및 국제기구의 사업은 도시개발과 비슷하게 관련된 여러 사업이 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민관협력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건축서비스 업체 역시 MDB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점차 사업자체를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의하여 발굴하고 이를 MDB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MDB에 사업을 제안할 때 EDCF등의 우리나라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일정부분 제원을 담당하고, 우리나라기업의 참여를 일정비율로 정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프로젝트 사업모델의 개발을 넘어서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공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요 파악, 사업의 구상, 제원의 확보, 관리 등 전 분야 걸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참여주체간의 의견 조율과 사업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설립 역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관련 공공기관, 지원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JICA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화되어 있는 기관들을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는 개별기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며, 특히 부처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 관련 실무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관보다는 기존 기관의 통합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5. 제도 개선방안

앞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든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인 정보수집 및 관리·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두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수집 및 관리·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은 모두 기본 역량 강화의 핵심 분야이다. 정보수집 및 관리·제공은 사업 대상지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각종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해외사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다. 정보지원이 없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해외진출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지원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정보는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 결과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ODA사업에서 건축분야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건축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ODA사업의 특성과 사업 대상지의 건축여건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할 때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MDB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MDB사업의 기술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 핵심 참여자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제안서에는 현지 여건에 적절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평가 항목 역시 있다. 단순히 건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는 사업의 수주가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전체를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없으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해외정보 지원센터

해외정보 지원센터	
목적	기업의 해외 진출의 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수집되고 보관되는 정보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하고, 필수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 제공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공기관을 이용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체계 구축</li> <l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의 목록 및 수집 방법 등 가이드라인 연구</li> <li>• DB 구축을 통한 수집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li> <li>• 지역별(권역별) 및 국가별 수집 자료의 분석</li> <li>• 포털 등을 통한 자료 제공</li> <li>• 기업별 맞춤 정보 지원</li> </ul>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 1 : 조직 신설</li> <li>• 대안 2 : 기존 조직 개선</li> </ul>

다수의 ODA 및 해외진출 연구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 역시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외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현황이나 플랜트 등 건설사업 중심으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국내 여러 기관과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해외사업 및 현지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담 수행할 센터가 필요하다.

[표 6-10] 해외진출 관련 국내 주요기관 제공정보

기관	관련부처	제공 정보	비고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입찰공고, 입찰예정사업, 해외원조시장입찰정보, 연계사업지원정보 등	국가 일반현황, 플랜트 및 건설사업 중심의 정보 제공
해외건설협회*	국토 교통부	국가별 시장동향, 건설통계, 프로젝트 발주정보, 플랜트 사업 동향, 국내 진출지원 제도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국토 교통부	국가별 개황, 도시개발제도 및 관련계획, 국가별 시장 및 경제동향, 도시개발동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외사례 및 동향, 해외규격 및 공사기준, 해외 입찰계약관련 자료 및 영문 서식,	
KOICA*	외교부	국내외 ODA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 협력국-분야별 현황, ODA사업 정보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 상품인증, 해외시장동향, 통상정보, 해외투자정보 등	

\* 출처 :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14.

† 출처 : 해외도시개발센터(2015), <http://www.iuc.or.kr/>. (2015.11.16.)

+ 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2015), “해외건설기술”,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 (2015.11.16.)

정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주목적은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수집 관리하고 있는 해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과 건축서비스 업계의 요구에 특화된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표 6-11]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구분	항목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 국가 현황</li> <li>• 개발도상국 물가 현황</li> <li>• 개발도상국 국가별 조달 가능 물품 현황(수입, 현지 생산)</li> <li>• 개발도상국 현지 건축서비스업 동향 및 업체 정보, 관련 전문가 정보</li> <li>• 개발도상국 국가별 주요 수행 사업</li> <li>• 개발도상국 ODA사업 정보</li> <li>• 개발도상국 법률 정보</li> <li>• 개발도상국 국별 기술 표준</li> <li>• 개발도상국 국별 각종 통용 서류 서식</li> <li>• 국내 분야별 ODA 전문가 정보 pool</li> </ul>
자료분석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 국별 투자 리스크 분석</li> <li>• 개발도상국 국별 외국의 투자 동향</li> <li>• 우리나라의 ODA 수원 경험 및 경제개발 경험</li> <li>• 국내외 ODA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조사 분석</li> <li>• 개발도상국 현지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li> </ul>
자료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수집 방법 및 항목 표준화</li> <li>• 자료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li> </ul>

\* 출처 : 저자 작성

자료수집의 경우 1차적으로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여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지 기술정보, 법률정보, 전문가 정보 등 수집 자료 항목을 늘려가야 하며,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병행해야한다. 자료의 수집 대상국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ODA 26개 중점 협력국 중 ODA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점차로 나머지 중점 협력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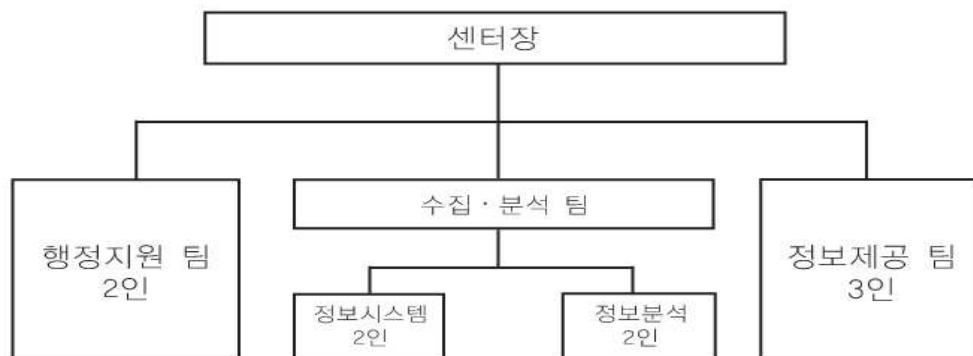
자료분석 업무는 1차 자료를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단순히 특정 시점의 물가정보 등은 실제 활용가치가 낮다. 기업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물가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예상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자료분석을 통해 1차 자료를 쓸모가 있는 자료로 가공해야 하며, 국가와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국가별 투자 위험과 같은 유용한 정보 역시 분석하여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는 업무 역시 수행해야 한다. 다수의 기관이 자료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차원을 넘어 표준화 작업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자료는 어느 기관에서 수집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관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보수집 역할의 상당부분은 기존의 KOTRA나 KOICA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정보지원센터는 수집이 필요한 자료의 상세 내역 제공과 수집된 자료의 취합과 분석·관리·제공에 집중하여야 한다. 조직은 분석·관리·제공을 위한 인력을 중심으로 가볍게 유지하며, 특히 분석업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1차 자료의 제공보다는 업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센터 설치를 위한 대안으로 해외정보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대안 1과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확장하는 대안 2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① 대안 1 : 해외정보 지원센터 신설 방안

##### □ 해외정보 지원센터 초기 운영방안



[그림 6-2] 해외정보 지원센터 예상 조직도(초기)

※ 출처 : 저자 작성

초기단계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인력은 정보 수집·분석과 제공의 2개 분야에 최소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센터



3팀 체제로 운영하고, 수집·분석팀은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며 기초적인 자료 분석 역시 수행하도록 한다. 정보제공팀은 정보 이용자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취합하는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 팀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을 총괄하도록 한다.

[표 6-12]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구분	업무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계획 및 관리</li> <li>인사관리</li> <li>각종 지원업무</li> </ul>
수집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해외 자료를 수집하던 기관에서 보유 또는 수집하는 자료의 목록 작성</li> <li>기관별 자료를 분야별로 재분류 및 재취합</li> <li>취합 자료의 유효성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li> <li>물가 정보 등 시계열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li> </ul>
정보제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공 업무</li> <li>제공 자료에 대한 피드백 접수</li> <li>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수요 조사</li> </ul>

\* 출처 : 저자 작성

#### □ 해외정보 지원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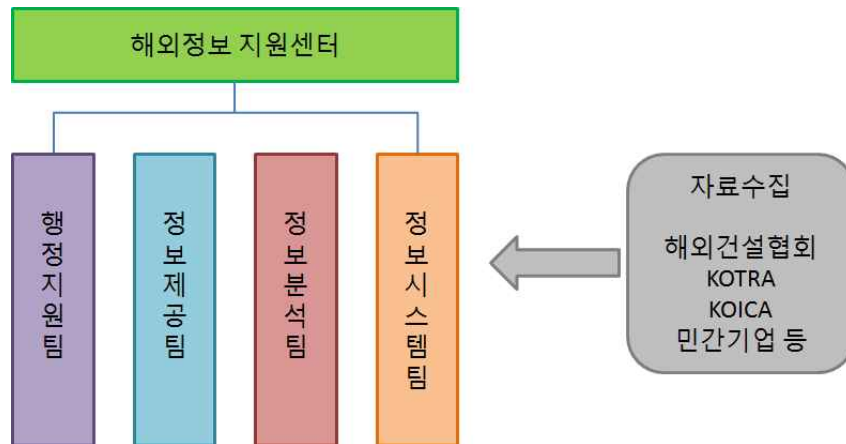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지원센터는 지역별/국가별 현황과 사업 환경 및 리스크 분석 등 각종 분석업무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집·분석팀을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전담하는 정보시스템팀과 지역별, 국가별 분석 업무를 전담할 정보분석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정보분석팀은 대략적으로 26개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며 총 8개 하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정보시스템팀은 기존의 수집업무와 DB구축, 통합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제공팀은 자료제공 업무와 자료 수요조사, 해외사업 관련 홍보 및 세미나 등 대외업무 역시 수행하도록 한다.

[표 6-13]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중장기단계)

구분	업무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계획 및 관리</li> <li>인사관리</li> <li>각종 지원업무</li> </ul>
정보시스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취합 및 개선방향 연구</li> <li>정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li> <li>자료 수집 체계 및 서식 표준화 등 표준화 사업</li> <li>전문인력 현황 정보 수집 및 관리</li> </ul>
정보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 정보 등 자료의 국가별 분석</li> <li>해외개발도상국 국별 투자 동향과 리스크 분석</li> <li>우리나라의 ODA 수원 경험 및 경제개발 경험 연구</li> <li>국내외 ODA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li> <li>개발도상국 현지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제작</li> </ul>
정보제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공 및 제공 자료에 대한 피드백 접수</li> <li>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수요 조사</li> <li>해외사업 관련 홍보 및 세미나 등 개최</li> </ul>

\* 출처 : 저자 작성

중장기 계획을 위한 인력 확보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업무의 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보분석팀의 인원을 중점적으로 추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행정관리에 4명, 정보시스템팀에 5명, 정보분석팀에 17명, 정보제공팀에 6명 총 33명으로 구성한다.



[그림 6-3]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구성(중장기 안)

\* 출처: 저자 작성

[표 6-14]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인원(안)

조직		인원(명)		
		단기방안	중기 방안	장기방안
행정지원 팀		2	3	4
정보시스템 팀		2	4	5
정보분석 팀	동남아시아 1	2	2	3
	동남아시아 2		1	2
	서남아시아		1	2
	아프리카 1		1	2
	아프리카 2		1	2
	남아메리카		1	2
	중동/중앙아시아		1	2
	동북아/태평양		1	2
정보제공 팀		3	3	6
기관장		1	1	1
합계		10	20	33

\* 출처 : 저자 작성.

## ② 대안 2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개선 방안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센터장 이하 총 10인으로, 기획홍보팀과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발굴, 진출지원 등이다.

해외시장 동향은 4개 지역 42개국, 해외투자정보는 4개 지역 39개국의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KOTRA나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집하여 국가개황, 도시개발제도, 관련계획, 시장 및 경제동향, 도시개발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학 온 해외공무원을 활용(현재 9개국)하여 관련국의 법률정보, 투자정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하는 정보센터의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필요한 기능과 업무의 확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 중 정보수집과 가공 및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수준이며, 정보가 수집된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어 체계적인 분류가 미약하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국가별 물가정보, 국별 조달 가능 물품 정보, 건축서비스업 동향과 업체, 전문가 정보, ODA사업 관련 정보, 서류

및 서식 정보 등의 자료와 건축서비스업계에 초점을 맞춘 투자 리스크 분석, ODA사업을 위한 수원 경험 및 경제 개발 경험, 사례 분석, 개발도상국의 현지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작다.

현재의 조직을 다소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기능을 보강한다면 보다 유용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분석팀을 추가하여 3팀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즉, 대안 1의 정보시스템팀과 정보제공팀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기획홍보팀과 사업지원팀에서 각각 관련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분석팀은 신설한 후 대안 1에서 제시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대안1과 같은 수준으로 증원한다.



[그림 6-4] 대안 2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활용한 정보센터의 구성  
\* 출처: 저자 작성

[표 6-15] 개선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지원 정보자료

구분	기존 지원 정보 자료	신규 지원 정보 자료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현황</li> <li>국가별 주요 수행 사업</li> <li>법률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 현황</li> <li>개도국별 조달 가능 물품 현황(수입, 현지 생산)</li> <li>개발도상국 현지 건축서비스업 동향 및 업체 정보, 관련 전문가 정보</li> <li>개발도상국 ODA사업 정보</li> <li>개발도상국 국별 기술 표준</li> <li>개발도상국 국별 각종 통용 서류 서식</li> <li>국내 분야별 ODA 전문가 정보 pool</li> </ul>
자료분석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투자 리스크 분석 (국가 신용도 평가)</li> <li>외국의 투자 동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도상국 국별 투자 리스크 분석 (정밀분석)</li> <li>우리나라의 ODA 수원 경험 및 경제개발 경험</li> <li>국내외 ODA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조사 분석</li> <li>개발도상국 현지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li> </ul>
자료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수집 방법 및 항목 표준화</li> <li>자료 통합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li> </ul>

\* 출처 : 저자 작성

##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ODA사업과 해외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해외진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양성 분야	1단계	CM전문가
	2단계	Developer 전문가 및 Coordinator 전문가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스터고에 건축 및 도시분야 학과 신설 및 ODA과목 추가</li> <li>• 대학 및 대학원에 전문 과정 신설</li> <li>•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직 종사자 등을 위한 과정 신설</li> <li>• 교재 개발 및 교육 전문가 확보</li> </ul>

ODA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일반적 건축설계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ODA사업은 설계시에도 수원국의 여건과 공익적인 면을 고려해야한다. 사업에 관계하는 주체 역시 일반 해외사업과 달리 수원국(사업발주기관)과 시행 업체 외에 공여국 관계기관(KOICA 등)이 하나 더 있는 체계이다. 더욱이 많은 경우 업체와 수원국간의 합의보다는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합의 사항에 따라 진행이 된다. 따라서 ODA사업의 담당자는 일반 사업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고,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ODA를 활용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ODA사업의 특징과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해외건설관련 교육과정은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 특화되기도, ODA를 접목하여 교육하고 있지도 않다([표 6-3] 참조). 대학원과정 역시 국내외 고위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무자를 위한 과정이 부족한 현실이다([표 6-4] 참조).

ODA의 공익성과 해외사업의 특징,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의 현실,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력의 양성은 장기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국내 ODA사업을 통해 경력을 쌓은 후, MDB 등의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적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ODA사업의 건축프로젝트 관리에 초점을 맞춘 CM전문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MDB 진출을 위한 ODA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Developer와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권영상 외(2015)는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학 특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건축도시설계 관련 분야 학부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특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92)</sup>. 국토교통부 역시 마이스터고를 2015년부터 개설하여 해외건설 인력의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93)</sup>.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D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ODA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ODA관련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표 6-16]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대학 및 대학원

대안		내용	예산 (정부지원)
학 부 과 정	학과 설립형	•학부과정 내 해외 건축·도시설계 학과 설립 - 독립된 학과로 운영 - 기업의 위탁교육 과정 개설	•10억 원/년 - 2년 단위 기본 - 2회 이상 지원
	트랙 분리형	•기존 학과에서 해외 건축·도시설계 트랙 운영 - 1·2학년: 공통교육 - 3·4학년: 해외 건축·도시설계 트랙	•8억 원/년 이상 - 2년 단위 기본 - 1회 이상 지원
	계약 학과형	•대학-기업 계약형 학과 설립 - 독립된 학과로 분리 / 기존 학과와 통합 가능 -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분담 - 인턴쉽 / 졸업 후 기업에 취업 보장	•5억 원/년 미만 - 2년 단위 기본 - 1회 이상 지원
대 학 원 과 정	학부 연계 대학원 과정 확충	• 해외 건축·도시설계 학부와 연계 운영 (건축·도시·토목학과 중심) - 학부과정: 해외 건축·도시설계 기초과정 - 대학원과정: 해외 건축·도시설계 심화과정 • 해외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영역별 과정 구분	10억 원/년 - 2년 단위 기본 - 1회 이상 지원
	신규 전문 대학원설립	• 학부와 독립적으로 전문 대학원 설립 - 대학 내 타 대학원과 협동과정 운영	20억 원/년 - 2년 단위 기본
	기존 전문대학원 활용	• 기존 건설전문대학원 활용방안 - 해외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영역별 과정 구분 - 해외 연수 프로그램 / 영어교육 강화	5억 원/년 - 2년 단위 기본

\* 출처 :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26.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은 1. 마이스터고, 2. 학부 3. 대학원, 4. 전문가과정의 4개 체제를 유지하고, 여기에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사업에 대한 교육과 ODA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과정에 포함한다.

마이스터고와 대학, 대학원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활용하고, 전문가 과정은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CM과정과 각종 건설 관련 과정을 KOICA의 ODA관련 과정과 융합하여 건축서비스산업 ODA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92)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26.

93) 국토교통부(2015)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내년 상반기 개교”, 「보도자료」, 2015년 9월 15일자.

ODA 관련 과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KOICA에 위탁 교육을 하는 방식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표 6-17]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안)

구분	방안
마이스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및 도시계획과 신설</li> <li>• ODA과정 신설</li> </ul>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건축·도시설계 학과 설립</li> <li>• 기존 학과에서 해외 건축·도시설계 트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학년: 해외 건축·도시설계 트랙</li> </ul> </li> <li>• 3·4학에 CM 과정, Developer 과정,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li> </ul>
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건축·도시설계 학부와 연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영역별 과정 구분</li> </ul> </li> <li>• 전문 대학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타 대학원과 협동과정 운영</li> </ul> </li> <li>• 기존 건설전문대학원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영역별 과정 구분</li> </ul> </li> <li>• ODA사업을 위한 CM, Developer, 코디네이터 통합 과정을 개설</li> </ul>
전문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 전문가 과정</li> <li>• Developer 및 코디네이터 과정</li> </ul>

† 출처 :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p.26.을 참조하여 내용을 추가함.

\* 출처 : 저자 작성

마이스터고의 운영은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며, ODA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ODA관련 교육은 여건상 교사를 두기 힘들다면 KOICA의 교육을 활용하도록 한다.

대학과 학부과정의 경우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대학에서는 3·4학년 과목에 CM과 developer, 코디네이터, ODA에 대한 과목을 개별적으로 신설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과정은 통합과정으로 운영하여 ODA사업에서의 건축과 도시계획분야에 더 특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표 6-18]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전문가 과정(예시)

구분	교육 항목	교육기간
CM 전문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사업에서 건축분야의 사업 형성 및 진행</li> <li>• CM 실무</li> <li>• ODA를 위한 적정 기술의 이해</li> <li>• ODA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li> <li>•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li> <li>• 실무 외국어 및 의사소통</li> </ul>	6개월
Developer/ Coordinator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분야 ODA사업 발굴 프로세스</li> <li>• 부동산 개발과 금융 조달</li> <li>• ODA사업 타당성 분석 및 계약, 매니지먼트</li> <li>• MDB 사업 사례</li> <li>•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li> <li>• 실무 외국어 및 의사소통</li> </ul>	6개월

\* 출처 : 저자 작성

전문가 과정은 CM 전문가 과정, Developer 과정, 코디네이터 과정의 각각에 ODA 과목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건상 Developer나 코디네이터가 실제 필요한 MDB사업에 진출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CM 전문가 과정에 집중한다. 즉 2단계로 나누어 1차로 CM과정과 ODA 과정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의 역량 증대 추이에 맞춰 Developer 과정과 코디네이터 과정을 추가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실무와 연계한 프로그램 역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적합한 강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히 설정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인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가능한 섭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사진은 가능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ODA 사업 또는 해외 사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건설기술교육원(2015), “교육안내”, 「건설기술교육원」, [http://www.kicte.or.kr/2012\\_kicte/edu/edu\\_cm.asp](http://www.kicte.or.kr/2012_kicte/edu/edu_cm.asp), (2015.10.25.)
- 건설기술교육원(2015), 「건설기술교육원」, [http://ha.kicte.or.kr/kor/kicte\\_2/kicte\\_1.jsp](http://ha.kicte.or.kr/kor/kicte_2/kicte_1.jsp), (2015.9.18.)
- 건설기술정보시스템(2015), “해외건설기술”,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 (2015.11.16.)
- (재)건설산업교육원(2015), 「(재)건설산업교육원」, <http://www.con.or.kr/index.asp>, (2015.9.18.)
- 국토교통부(2015),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내년 상반기 개교”, 「보도자료」, 2015년 9월 15일자.
- 국무조정실(2015),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2015년 11월 10일자.
- 국무조정실(2015), “2014 ODA 실적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년 4월 8일자
- 권순만 외(2014),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정책연구 1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 권율 외(2007),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2013),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연구보고서13-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민형((2013), 「ODA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3-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제22호, KOICA.
- 김태경 외(2014), 「해외개발협력사업의 경기도 참여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4-63, 경기개발연구원.
- 박소연 외(2014),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도시개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토계획」, v49(4), pp.55~79.

박예지(2012),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와 ODA의 역할”, 『한국의 개발협력』, 제1권, 한국수출입은행.

박진영(2014), “교통부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전략”, 『KOTI Global Brief』, 1(1), 한국교통연구원.

방설아(2014), “공적개발원조(ODA)와 KOICA프로젝트 건설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5(4).

서수정 외(2014), 「정책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장환 외(2012),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연구지원 2012-04, 토지주택연구원.

송유철 외(2012),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광흠 외(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제도 개선연구」, AURI-기본-2013-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덕룡 외(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2-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미정(2014), “해외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의료시스템 진출방안”, 『보건산업 동향』, v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광성 외(2013), 「교통부문 국제협력 사업 체계화 연구 - KSP 사업과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 연구총서 2013-12, 한국교통연구원.

정기환 외(2014),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KOICA.

정지원 외(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창구 외(2010),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투자 및 개발자관 활용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정창무 외(2010),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창무 외(2013),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진철 외(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II)」, 국토연 2010-37, 국토연구원.

주용식(2012), “ODA 스마트 파워 전략 : 캄보디아 보건의료 지원 중심”, 『e-비즈니스연구』, v13(2), pp.159~184.

차주영 외(201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AURI-정책-2013-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채재은 외(2012),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청(2015), “도소매서비스업”,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2015.9.3.)

한국개발연구원(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ODA 분야 보고서 -」, 국가재정운용계획 ODA분야 작업반.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통계조회시스템』, 각 연도, <http://211.171.208.92/index.html>. (2015.2.18.)

- 해외건설협회(2015), “건설통계”,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sta/sta\\_1502.php?area\\_code=&f\\_date=1965/01/01&t\\_date=2015/05/10](http://www.icak.or.kr/sta/sta_1502.php?area_code=&f_date=1965/01/01&t_date=2015/05/10). (2015.9.3.)
- 해외건설협회(2015), “주요사업”, 「해외건설협회」, [http://kor.icak.or.kr/ach/ach\\_11.php](http://kor.icak.or.kr/ach/ach_11.php). (2015.9.18.)
- 해외도시개발센터(2015), <http://www.iuc.or.kr/>. (2015.11.16.)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베트남 후에시 향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 (주)한아도시연구소 내부자료, 「Dhaka Structure Plan Draft 보고서」.
- ADB(2008), *Consulting Services Operations Manual*,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340/csom.pdf>. (2015.6.27.)
- ADB(201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Greater Mekong Subregion East-West Economic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588/43319-022-lao-pam-0.pdf#page=49>. (2015.6.25.)
- ADB(2012),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6455/43319-043-vie-pam-0.pdf#page=44>. (2015.6.25.)
- ADB (2013), *CLASSIFICATION AND GRADUATION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3/oma1.pdf>. (2015.6.26.)
- ADB (2013),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sian Development Bank and Its Borrowers*,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1481/guidelines-use-consultants.pdf>. (2015.6.26.)
- ADB (2014), *Project Administration Instructions 3.03: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Appendix 2,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3431/pai-3-03.pdf>. (2015.6.27.)
- ADB(2014), *PROCUREMENT PLAN*,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75895/43319-033-pp.pdf>. (2015.6.25.)
- ADB(2015), *Asian Development Bank & Republic of Korea : Fact Shee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7792/kor.pdf>. (2015.7.4.)
- ADB(2015), “Organization : Members”, 「ADB」, <http://www.adb.org/about/members>. (2015.06.12.)
- ADB(2015), “Investor Information”, 「ADB」, <http://www.adb.org/site/investors/credit-fundamentals/shareholders>. (2015.06.12.)
- ADB(2015), *Loan No. 2695-BAN(SF) : City Region Development Project Invitation for Bid*,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ban2695-eGP-BAGERHAT-W01.pdf>. (2015.11.21.)

- ADB(2015), *Loan No. 2695-BAN(SF) : Liaoning Small Cities and Towns Development Demonstration Sector Project Invitation for Bid*,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prc2550-B-XFW3.pdf>. (2015.11.21.)
- EDCF(2015),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
- EDCF(2015), 「EDCF ANNUAL REPORT 2014 : 국문」, EDCF.
- EDCF(2015), “EDCF안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 EDCF(2015), “사업정보”,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tro/outline/what.jsp>. (2015.3.15.)
- EDCF(2015), “지원절차”,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job/process/eval.jsp>. (2015.3.16.)
- ENR(2015),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http://enr.construction.com/toplists/Top-International-Design-Firms/001-100.asp>. (2015.8.28.)
- IDB(2010), *El Salvador Program for Housing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s for Informal Urban Neighborhoods, Phase II: Loan Proposal*, Annex III,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576516>. (2015.5.9.)
- IDB(2011), *Polic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financed by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N-2349-9*,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774392>. (2015.6.25.)
- IDB(2011), *Policies for the Selection and Contracting of Consultants financed by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N-2350-9*,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774394>. (2015.6.25.)
- IDB(2011), *Argentina, Development Program for 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 Capital : Loan Proposal*, 「IDB」,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556196>. (2015.6.24.)
- IDB(2013), *Guide for Acceptance of the Use of Country Procurement Systems*,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5225030>. (2015.6.24.)
- IDB(2015), *IDB Threshold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 and Selection of Consulting Services*,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535540>. (2015.4.16.)
- IDB(2015), “Projects”, 「IDB」, <http://www.iadb.org/en/projects/projects,1229.html>. (2015.6.15.)
- JICA(2015), “Type of Assistance: Grant Aid”, 「JICA」,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grant\\_aid/index.html](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grant_aid/index.html). (2015.9.10.)
- JICA(2015), “Type of ODA Loans”, 「JICA」,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oda\\_loans/overseas/types.html](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oda_loans/overseas/types.html). (2015.9.10.)
- KOICA(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KOICA.
- KOICA(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KOICA.
- KOICA(2014), 「베트남 후에시 항강 연안개발 상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상세설계, 제안요청서」, KOICA.

KOICA(2014), 「KOICA 새마을운동 ODA 추진 안내서(ver.1)」, KOICA.

KOICA(2015),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KOICA(2015), “ODA 알기”, 「KOICA」, <http://www.koica.go.kr/>. (2015.4.8.)

KOICA(2015), “KOICA 소개”, 「KOICA」, <http://www.koica.go.kr/>. (2015.4.8.)

KOICA(2015), “KOICA 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11.14.)

KOICA(2015), “사업추진방향”, 「KOICA」, <http://www.koica.go.kr/>. (2015.3.17.)

KOICA(2015), “사업분야 : 산업에너지”, 「KOICA」, <http://www.koica.go.kr/>. (2015.5.15.)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산업에너지분야」, pp.344~345,  
<http://www.koica.go.kr/img/pdf/7.pdf>. (2015.5.15.)

KOICA(2015), “산업에너지 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15.)

KOICA(2015), “사업분야 : 교육”, 「KOICA」, <http://www.koica.go.kr/>. (2015.05.16.)

KOICA(2015), “교육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05.16.)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교육분야」, pp.133~134,  
<http://www.koica.go.kr/img/pdf/2.pdf>. (2015.5.21.)

KOICA(2015), “사업분야 : 농림수산”,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2.)

KOICA(2015), “농림수산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2.)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지역개발」, p.291, <http://www.koica.go.kr/img/pdf/5.pdf>. (2015.5.23.)

KOICA(2015), “사업분야 : 보건”,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4.)

KOICA(2015), “보건분야 추진사업”, 「KOICA」, <http://www.koica.go.kr/>. (2015.5.24.)

KOICA(2015), 「함께 읽는 KOICA사업 이야기 : 보건의료분야」, pp.65~66,  
<http://www.koica.go.kr/img/pdf/1.pdf>. (2015.5.24.)

KOICA 내부자료, 「2차 집행계획」.

KOICA 내부자료, 「건축전문관 업무분장 및 배치계획」.

KOICA동남아시아1팀(2014), 「베트남 국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최종보고서」, KOICA.

KOTRA(2012), 「ADB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KOTRA자료 12-057, p.49.

OCS & KECC(2015), 「산타크루즈 뉴시티 마스터 플랜」.

ODA Korea(2015),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5.2.9.)

ODA Korea(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140709_01.pdf). (2015.2.18.)

- ODA Korea(2015), “한국 ODA의 이모저모: 지원실적”,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2015.3.13.)
- ODA Korea(2015), “한국의 ODA 지원현황”,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Vietnam.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Vietnam.jsp). (2015.7.12.)
- OECD(2015), “Aid statistics”, 「OECD」, <http://www.oecd.org/dac/stats/development-aid-stable-in-2014-but-flows-to-poorest-countries-still-falling.htm>. (2015.2.18.)
- OECD(2015), “ODA 통계”, 「QWIDS」, <http://stats.oecd.org/qwids/>. (2015.4.11.)
- RAJUK(2015), *Dhaka Structure Plan :2016-2035*.
- UN(2015), “News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http://www.un.org/millenniumgoals/>. (2015.4.11.)
- WB(2010),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CUREMENT/Resources/ConGuid-10-06-RevMay10-ev2.pdf>. (2015.6.15.)
- WB(2011), *Guidelines: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Non-Consulting Service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1/01/16226753/guidelines-procurement-goods-works-non-consulting-services-under-ibrd-loans-ida-credits-grants-world-bank-borrowers>. (2015.6.15.)
- WB(2015), “Projects and Operations”, 「WB」,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16398/vietnam-medium-cities-development-project?lang=en&tab=overview>. (2015.05.11.)

## A Study on Utiliz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Son, Dong Pil  
Cho, Sang Gyu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in Korean has kept losing its competitiveness over the international market. Howev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re very limited when comparing to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nstruction and plants industry.

However, a size of the fund for ODA of Kore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urthermore, under SDGs which is new ODA goal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expensive housing for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core goals. So,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ODA marke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will expand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been done for how to use ODA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So, the study aims firstly to review existing policies and studies about ODA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secondly to examine strategies of utilizing ODA by other industries and various cases of ODA projects, and finally to provide measures to utilize ODA for the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o the overseas market.

The study sets MDB market as a realistic goal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a road map with 3 periodical strategies: Strengthening internal and external abilities for the overseas expansion as a short-term strategy; Developing a new ODA model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nd supporting for the model as a mid-term strategy; Expanding the business into MDB market as a long-term strategy.

Measurements for the short-term strategy include building an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system specifically for ODA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raining proper professionals, building networks with civilians in developing countries.

Measurements for the mid-term strategy include developing an ODA model which is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of development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Korea and will provide practical advices for developing countries. A good example for such model would be the Saemaeul movement which had been done during 70'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Korea. The Saemaeul movements had projects of re-building houses, which would be applied to many par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proper supports are also required including finances and guarantees of the government or banks, networking with the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DBs, increasing a number of staff in ODA authorities of Korea working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for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developing countries for both environment and economy etc.

Measurements for the long-term strategy include winning a contract for TA projects in MDBs' projects, and developing ODA projects by companies themselves and making a proposal of the developed projects to MDBs.

The study also proposes 3 measurements to expand business into MDB market: Winning contracts of TA projects of MDBs, suggesting proposals for ODA projects, and making a joint development system in which various business parties work together for development, financ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various measurements for the each strategy, the study specially emphasizes the two fundamental requirements to strengthen abilities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building an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system and training proper professionals.

There are several public organizations doing work of gathering information from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information is not managed by a single organization and not properly provided to companies. So establishing an new organization is required to manage and analyze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various other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training professionals, MDBs assess ability and experience of personnels participating their projects. So, having trained and experienced professionals is essential for companies to win a contract. However, training professionals for ODA projects are rather different from training professionals jus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s a consequence, the study proposes a new Overseas Information Center and developing education system and programs.

The center should be a software-oriented organization mainly doing assembling existing information, analysing and providing data and information to architectural companies. The center will work for making DB, categorizing information, survey for customers' demands, analyzing information by regions and countries.

Education programs for professionals requires knowledge about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business, and ODA. For a short-term, the program emphasizes on training CM experts. On the other hand, for a long-term, it emphasizes on training developers and coordinators. For the education system, a purpose-built highschool (Meister high school), undergraduates, post-graduates and expert courses are proposed.

Key words :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ODA, MDB,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Overseas Information Center, Experts Education Programs.